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정 윤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옥 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권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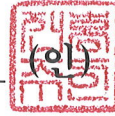
이 옥 희

# 인 준 서

이옥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1월

심사위원장 전 홍 주



심사위원 송 승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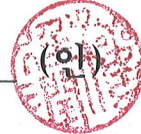
심사위원 배 지 희



심사위원 김 고 은



심사위원 권 정 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만 5세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 1-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어떠한가?
  - 1-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 1-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어떠한가?
  - 1-4.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가?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는 어떠한가?
  - 2-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2-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유아 공감교육과 유아 예술교육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프

로그래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시안은 전문가 협의와 예비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통합적 예술 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교육 목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로 설정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 상황 인식하고 이해하기’, 정서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공유하기’, 소통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로 구성하였다.

셋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전략, 교사 역할,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학습 원리는 상황수용의 원리, 협력적 소통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통합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공감요소 탐색, 2단계는 공감상황 인식, 3단계는 공감 표현, 4단계는 공감적 감상·소통하기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 활동은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신체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교수 전략은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협동활동 제공하기, 공감표현 촉진하기, 추론활동 제시하기를 설정하였다. 교사는 계

획자, 환경 제공자, 동기 유발자, 감정표현 촉진자, 공감적 지지자,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교수-학습 자료에는 매체 자료, 실물 자료, 모형 자료, 표현 자료, 표현 도구, 소리 및 영상기기들이 포함되었다.

넷째, 본 프로그램에서의 평가는 유아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평가로 구성하였다. 유아평가는 유아 스스로 활동을 회상하며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자기평가와 교사가 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여 실시하는 교사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사평가는 교사가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 등에 관해 평가하였다. 프로그램평가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유아에게 표준화된 척도에 의한 평가를 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G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8명(실험집단)과 B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8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주 2회씩 총 26회를 실시하였다. 비교집단 유아들에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양서영(2016)이 사용한 유아 또래 간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은 이종향(2007)이 사용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Windows 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 유아들과 비교집단 유아들의 사전·사후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 점수의 평균에 관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집단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인인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에서도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보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비교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인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서도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보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바람직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14
3. 용어의 정의 .....	14
1) 통합적 예술활동 .....	14
2) 의사소통 능력 .....	15
3) 친사회적 행동 .....	16
II. 이론적 배경 .....	17
1. 공감교육 .....	17
1) 공감의 개념 및 구성요소 .....	17
2) 유아의 공감발달 .....	25
3) 유아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 .....	31
2. 통합적 예술활동 .....	35
1) 통합적 예술활동의 개념 및 중요성 .....	36
2)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	44
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관련 변인 .....	49
1) 의사소통 능력 .....	49
2) 친사회적 행동 .....	54

<b>Ⅲ.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b>	60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 절차	60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석	62
1) 문헌분석	63
2) 설문조사를 통한 교사의 요구분석	71
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시안 개발	86
1) 목적 및 목표 설정	86
2) 교육 내용 설정	92
3) 교수-학습 방법 설정	98
4) 평가 방법 설정	150
4.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최종안	156
1) 프로그램 타당성 검증 및 수정	156
2) 프로그램 최종안	169
<b>Ⅳ.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b>	177
1. 연구 방법	177
1) 연구 대상	177
2) 연구 설계	179
3) 연구 도구	180
4) 연구 절차	184
5) 자료 수집 및 분석	201

2. 연구 결과 및 해석 .....	201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 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	202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	204
V. 논의 및 결론 .....	207
1. 논의 .....	207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 ..	207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	215
2. 결론 및 제언 .....	225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공감의 구성요소 .....	19
〈표 2〉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와 Hoffman의 공감발달 단계 .....	26
〈표 3〉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	32
〈표 4〉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 .....	45
〈표 5〉 친사회적 행동의 구성요소 .....	56
〈표 6〉 친사회적 행동 발달단계 .....	58
〈표 7〉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배경 .....	72
〈표 8〉 요구도 분석을 위한 설문지 내용구성 .....	73
〈표 9〉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	75
〈표 10〉 유아 공감교육이 필요한 이유 .....	75
〈표 11〉 유아 공감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공감 주제 .....	76
〈표 12〉 유아 공감교육 운영 실태 .....	77
〈표 13〉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	79
〈표 14〉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유아교사의 요구사항 .....	80
〈표 15〉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방법 .....	81
〈표 16〉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수 방법 .....	83
〈표 17〉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	83
〈표 18〉 목적 및 목표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87
〈표 19〉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93
〈표 20〉 교수-학습 원리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99
〈표 21〉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 .....	102
〈표 22〉 교수-학습 과정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106

<표 23> 교수-학습 활동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113
<표 24> 교수 전략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124
<표 25> 교사의 역할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129
<표 26> 교수-학습 자료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134
<표 27> 프로그램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 .....	139
<표 28>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림책 .....	141
<표 29> 프로그램을 위한 영화 선정 기준 .....	142
<표 30>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영화 .....	143
<표 31>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영상 .....	144
<표 32> 프로그램을 위한 신문·뉴스·광고 선정 기준 .....	145
<표 33>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신문·뉴스·광고 .....	146
<표 34> 프로그램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 .....	148
<표 35>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명화 .....	148
<표 36> 프로그램을 위한 사진 선정 기준 .....	149
<표 37>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사진 .....	149
<표 38>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림 감정(어휘) 카드 .....	150
<표 39> 평가 방법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	151
<표 40> 1차 전문가 협의 후 전문가 의견 .....	158
<표 4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활동 최종 선정 .....	163
<표 4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활동계획 및 내용 .....	172
<표 43>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 및 평균 월령 비교 .....	179
<표 44>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	180
<표 45> 의사소통 능력 검사의 영역별 검사 내용 .....	181

<표 46>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영역별 검사 내용 .....	183
<표 4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계획 .....	190
<표 48>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전체 내용(초안) .....	191
<표 49>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전체 내용(수정안) .....	192
<표 50>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	193
<표 51>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상세 내용 .....	194
<표 52> 공감 활동안 예시 .....	199
<표 53>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	202
<표 54>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	205

## 그림 목차

[그림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 절차 .....	61
[그림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활동 ..	117
[그림 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최종안 .....	170
[그림 4]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 절차 ..	185
[그림 5] 의사소통 능력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	204
[그림 6]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	20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급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어간다. 공감은 사람 간의 관계에 필요한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으로 현대사회는 물론 미래사회에서도 필요한 역량이다. 공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라는 미래사회 변화에 관련된 여러 관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허순향, 남승규, 2019).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인간다움’ 자체임을 확인하며, 인간만이 가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우남희, 2017).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각되고 있다(지성애, 정하나, 2015). 또한,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21세기 미래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미래역량 프레임워크에 공감을 포함하였으며, 미래사회의 유아들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능·태도·가치를 갖추어 가는 요소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미경 외, 2018).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는 공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공감은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더 적합한 정서적 반응으로(Hoffman, 2000/2011), 타인의 감정 상태를 마치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지각하여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Feshbach, 1982; 최미숙, 임연자, 2016 재인용). 공감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하며, 긍정적인 사회화를 위해 필요하다(Gordon, 2005/2010). 공감능력은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고 역량이기도 하며(유희수, 윤수진, 2022),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

는 유아기부터 점진적으로 발달한다(Hoffman, 1975; 이석순, 1999 재인용). 허순향(2018)은 공감의 생득적인 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개발될 수 있기에 학습과 훈련을 통해 공감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에 적합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Gordon(2005/2010)과 Rifkin(2009/2010)은 어떤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배움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유아기임을 언급하며 유아기부터 공감이 발달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Howe(2012/2013) 또한 유아들이 또래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감성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는 공감능력을 신장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하였다.

공감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여 유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김진희, 2009; Eisenberg & Miller, 1987). 그러나 이러한 공감능력은 보장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 있다(김태훈, 2015). 공감능력이 결핍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이 부족해져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신영, 2018). 따라서 유아기에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인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김미정, 2011; 최미숙 외, 2017).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은 의사소통 능력(송수희, 2014) 및 친사회적 행동(이경주, 2002; 한아람, 2016)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감능력과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공감능력의 발달이 중요하다.

한편, 공감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또래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도 또래집단 괴롭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신나라, 2021; 조재휘, 2020). 또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어 유아교육현장에서도 공격적 행동을 보인 유아에 대한 퇴원 요구와 보상비 청구가 증가하여 유치원과 교육청에 해당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1; 김은설 외, 2013;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2013; 이승하, 김유중, 2020). 이러한 따돌림, 괴롭힘의 주된 원인으로 공감능력의 결핍이 부각되면서(김봉년, 2012; 이은영, 2015; 천세영 외, 2015), 공감능력은 학교폭력, 따돌림 현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정아, 2015).

이러한 공감능력 발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한편, 유아교사들은 공감을 포함한 인성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의 구체적 교수 방법과 실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용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배지현(2021)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가치교육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수 방법 안내 및 실행 사례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교사가 유아들의 개인차 및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박성희(2004) 역시 공감능력은 평생에 걸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워나가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공감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배려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공감과 같은

가치교육을 실행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사의 원활한 공감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공감연구 동향을 살펴본 유찬기와 남기범(2018)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연구의 수행 건수가 2010년~2014년 기간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에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응용화로 인해 공감의 개념이나 의미 연구보다는 구체적인 공감의 적용연구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공감의 정의나 이론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공감을 실제 다양한 분야 또는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가 증가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공감 척도 도구 개발연구(고희갑 외, 2015; 임영숙, 김밀양, 2021)와 특히 유아의 공감능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 부모, 교사 변인과 같은 환경적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강영녀, 신현정, 2024; 공영숙 외, 2022; 김대윤, 2022; 김정희, 김민경, 2019; 김양진, 도미향, 2022; 문연심, 2004; 박수연, 이진숙, 2023; 변혜원 외, 2018; 안선정, 임지영, 2020; 오안나, 2022; 이경주, 도미향, 2022; 이미성, 조성심, 2020; 이정애, 2018; 정대현 외, 2014; 조순옥, 2014; 차혜정, 송승민, 2017; 천순미, 이경민, 2023; 박영임, 장혜림, 2022; 방세현, 서현, 2023)가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공감능력과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은유, 백지혜, 2019; 이용주, 백승학, 2017; 지성애 외, 2018; 지성애, 최다은, 2017; 최민수, 김수정, 2019)와 특정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권미혜, 2017; 권정윤, 황인주, 2013; 김채연, 2019; 박소영, 이미나, 2018; 백인경, 2017; 정진화, 2017),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들(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김나원 외, 2014; 김연희, 2016;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이선영, 2016; 임영숙, 2018; 정하나, 2015; 현지영, 2013)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경험은 유아들의 공감능력(강경희, 2019; 강은

회, 2019; 김견미, 2014; 김나원, 2014; 김연희, 2015;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이재경, 2020; 정하나, 2015), 정서지능(김나원, 2014;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현지영, 김수영, 2015), 자아존중감(김정아, 2019; 정하나, 2015), 감성지능(임영숙, 2018), 사회적 기술(강경희, 2019; 임영숙, 2018), 또래 유능성(강은희, 2019; 김창순, 2013), 조망 수용능력(김연희, 2015), 친사회적 행동(김나원, 2014; 김연희, 2015; 신미영, 2022), 자기조절력(이선영, 2016), 또래 상호작용 행동(이선영, 2016), 사회성(이재경, 2020; 허혜진, 2011) 등을 향상하고 공격성(현지영, 김수영, 2015)은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교육 경험의 중요성과 이를 유아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개발된 유아 공감능력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Gordon의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김나원, 2014; 김은주 외, 2011)와 순환적 공감모형을 토대로 한 연구(강은희, 2019; 김연희, 2016)가 있다. 이외에도 그림책(김정아, 2019), 극놀이(정하나, 2015), 명화(안미인, 2022)를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유아의 놀이행동을 유발하는 공감상황 놀이를 통해 공감 과정을 경험하는 어포던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신미영, 2022) 등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감수성인 공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감성을 향상해 정신건강의 질을 높이는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김봉년, 2012). 또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도 예술경험 영역에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의 예술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며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해(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유아기 예술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아기 예술활동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계된 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예술활동 간 통합적인 표현의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박선영, 2013).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통합교육과정 안에서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하며 유아 자신의 경험을 보다 의미 있게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박형신, 2020). 이처럼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예술활동의 경험은 강조되고 있으며, 예술활동이 갖고 있는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예술활동 간의 통합 경험은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예술활동은 인간의 느낌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춤, 연극 등과 같은 형태로 내면의 느낌이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표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김유진, 2022; 안지영, 최미숙, 2014),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다(전택수 외, 2014). 예술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의의는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민규 외, 2012; 김영미 외, 2014; 김현수, 조수현, 2012; 나경아 외, 2012; 신재한, 2012). 즉, 예술활동은 유아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예술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술활동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활동으로 유아의 느낌과 생각을 표출하는 도구이며, 특히 분야를 초월한 통합적 예술활동은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감정,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영연, 2002).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의 적용은 유아에게 타인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할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게 된다(김소정, 2016).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은 단지 주제와 연관된 유아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유아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실행하며 완성된 작품은 또래에게 소개하는 경험을 나누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대상에 관한 느낌, 감정, 상상력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둔다(성순임, 2016).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가 예술작품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안진아, 2003).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표현한 감정과 생각을 또래와 공유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권난주, 안재홍, 2012; 성순임,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통합적 예술활동은 각각의 공감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작품을 탐색하고 음악, 미술, 춤, 연극과 같은 다양한 표현양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또래와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 습득을 기대할 수 있다.

통합적 예술활동이 주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ad(1943/2007)는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이고 예술작품도 사물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에 의존하여 창조한 것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공감과 협동능력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정현주 외(2014)는 공감능력이 통합적 예술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통합적 예술활동 자체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래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몰입과 경험, 체험 등 놀이의 성격을 강조하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박경주 외, 2018). 특히 유아교육에 적용할 경우, 폭넓은 예술적 체험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송순옥, 2016a; 윤진희, 2022; UNESCO, 2009),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chirmacher, 1993; 송순옥, 2016b 재인용).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은 공감과 협동능력 형성은 물론 균형적인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활동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임현희, 2018). 통합적 예술활동에 관한 연구를 예술활동 간의 통합 연구와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문학, 음악, 미술, 극놀이, 신체표현과 같은 예술활동 간의 통합 연구(권유선, 최혜진, 2013; 김미화, 2016; 성순임, 2016; 유세현, 2019; 이슬, 2015; 이은경, 2017a)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 연구로는 과학과 음악, 미술, 극놀이, 신체표현, 문학, 시각예술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합한 연구(김경하, 2016; 김은수, 2018; 김정미, 2016; 김채연, 2019; 박예원, 2015; 송민서, 2018; 최지원, 서소정, 2015), 다문화를 문학, 극놀이, 음악, 미술, 연극과 같은 예술활동과 통합한 연구(박순철, 2019; 백인경, 2017; 이진, 2017), 통일과 문학, 음악, 미술, 신체표현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합한 연구(양승희, 2017; 이시영, 2022) 등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예술활동 간의 통합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와의 공통점은 문학, 음악, 미술, 극놀이, 신체표현 등 모든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극놀이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는 활동과 영화 및 사진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유아들에게 더욱 다양한 예술활동의 경험을 제공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통합적 예술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들의 흥미와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며(한영지, 1998), 전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이은경, 2017b). 또한, 통합적 예술활동은 협동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협력과 소통능력 발달에 이바지한다(강은영, 2013; 유세현, 2019; 전지연, 최은영, 2011). 이러한 통합적 예술활동이 가지는 긍정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예술활동을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감능력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대부분의 학문에서 ‘통합’, ‘융합’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영해, 백지혜, 2021). 그동안 학교교육에서는 교과 중심의 분절된 교육은 지양하고 교과 간의 통합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지식을 관련성 있게 다루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교과적 접근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16; 조현희, 2019). 유아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이라는 형태로 학문 간의 융합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이은형 외, 2012),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간 통합은 다양한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작용을 하며 하나의 주제를 여러 교과목을 통해 유용하게 경험시키는 방법이다(Drake, 2012; 김미경, 2018 재인용). 이 방법은 타 교과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선정된 주제에 알맞은 교과별 학습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윤이, 2006). 즉, 각 교과의 고유한 목표가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제 중심 통합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의 요구, 학습자의 흥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선정·조직하고 학습자 주도의 활동을 통합활동으로 유도하여 전인발달을 도모하는 방법이다(강충열, 1998). 이 방법은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나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며, 경험을 통합하고 학습자 주도의 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수, 강충열, 2008).

셋째, 경험 중심 통합은 학습자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통합하여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이다(한희정, 2008). 이 방법은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통합하여

접근한다(홍순정, 김재춘, 2017).

마지막으로 예술에 국한되는 통합의 예로 탐색, 표현, 감상의 통합이 있다. 탐색, 표현, 감상의 통합은 음악·미술과 같은 예술활동의 내용이나 단계로 볼 수 있는 탐색과 표현 및 감상이 각각 분리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은주, 2024; 홍명옥, 2007).

이와 같이 통합적 접근은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배움의 성취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강은영, 2013;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박순철, 2019).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통합적인 경험을 통해 전체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관련 정보를 관계짓거나 실생활과 연결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기 때문이다(Bredenkamp & Rosegrant, 1995). 이렇듯 통합교육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접근방법으로 유아 공감교육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통합의 원리를 주제 중심, 경험 중심 및 예술에서의 통합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탐색, 표현, 감상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통합은 공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탐색, 표현, 감상 과정을 연계하여 여러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유용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인발달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공감능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공감능력과 더불어 유아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또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의견을 이해하며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김혜정, 2017; 손복영, 2015). 유아기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대인관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권정윤, 황인주, 2013; 이정아, 2017; Hazen & Black, 1989). 즉, 의사소통 능력은 유아기에 있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또래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벗어나 또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된다(신은수 외, 2010). 김은설 외(2013)와 우채영(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높은 의사소통 능력은 공격성 및 정서 문제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되고, 친사회적 행동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임영심 외(2012)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의 표정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여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손은애(2005)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한 유아들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원영(2007)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들에게는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Rubin과 Everett(1982)는 유아기가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김혜정, 2017 재인용). 따라서 유아기는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또래 집단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지성애 외, 2009).

의사소통 능력과 아울러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하나는 친사회적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행동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적 보상이나 벌에 기인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집단을 위해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바람직한 행동을 의미한다(김영옥, 2003; 김혜금, 2014; 신하람, 2019).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강력한 요소로(김정현, 2014; 장미선, 문혁준, 2004), 공감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민주, 2011; Malti et al., 2009),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유아들의 경우 또래관계가 원만하여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순옥, 최미숙, 2013). 유아기에 발달된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은 성인기 이후까지 지속된다(김영옥, 2003)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을 유아기 발달과업 중 핵심 과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유아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이 세 가지 발달은 필수적이다. 유아기에 형성되는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러한 능력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발달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명화, 극놀이, 그림책과 같은 단일의 예술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만 진행되었을 뿐 다양한 예술활동을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일의 예술활동은 한 가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통합적 예술활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여러 시각과 감정 표현을 경험하

게 된다. 다양한 감정 표현의 경험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진, 2014). 이상의 내용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미숙(2017)의 연구에 따르면, 문학을 비롯한 미술, 사진, 음악, 극놀이, 영화 등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합적인 감각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창의적인 인성과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 체험할 수 없으며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상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할 수는 있다(Smith, 1759/2009). 이처럼 상상은 공감 형성의 필수조건이 된다(황혜진, 20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감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창의적인 인성과 상상력의 확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감능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통합적 예술활동을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대상의 감정 표현이 구체적이고 유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반영된 자료(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를 활용하여 단위 활동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공감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인 문학, 영화, 극놀이영상 제작, 신체표현, 사진, 미술, 음악을 통해 공감활동을 구성하고, 탐색, 표현, 감상의 과정을 연계하여 적용한 후,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 1-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어떠한가?
- 1-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 1-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어떠한가?
- 1-4.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는 어떠한가?

- 2-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2-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통합적 예술활동

통합적 예술활동은 예술활동을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김유진, 2022)을 의미한다. 통합의 형태는 예술활동 내 통합, 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은영, 2013; 김미경, 2018; 김유진, 2022; 박순철, 2019; 백령, 2015). 이중 예술활동 간의 통합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음악, 미술, 문학, 신체, 극놀이, 사진 등 각각의 예술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성순임, 2016).

본 연구에서 통합적 예술활동은 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서, 유아가 공감 주제에 적합한 예술작품을 탐색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문학, 영화, 극놀이영상 제작, 신체표현, 사진,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며, 또래와 함께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소통·공유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순히 듣기, 말하기와 같은 언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호 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능력을 의미한다(송명자, 2008).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며 유아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으로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우혜진, 2012).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 배려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는 정

도를 지키고 지나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3)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이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행해진 행동을 뜻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거나 배려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김영옥, 2003).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감 및 갈등해결 능력 향상 측면의 개인 정서조절 능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협력과 봉사정신 함양 측면의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이종향, 2007). 개인 정서조절 능력이란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정서들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감교육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공감의 개념 및 요소와 유아의 공감발달을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1) 공감의 개념 및 구성요소

공감이라는 용어는 1846년 독일의 철학자 Vischer가 ‘ein(안에)’와 ‘fühlung(느낀다)’를 합한 말로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 용어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대한 몰입과 감정이입을 의미하는 Einfühlung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천우영, 2016; 허순향, 2018). 이후, 1909년 영국의 심리학자 Titchener에 의해 희랍어 ‘empathia’로 번역하여 사용되다가, 현재의 ‘empathy’로 정립되었다(Howe, 2012/2013).

이러한 공감의 유래를 기초로 많은 연구를 통해 공감의 의미가 정의되었는데, 학자마다 조금씩 그 의미를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다. Bryant(1982)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적 경험을 인식하고 이에 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offman(2000/2011)은 공감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해지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라고 정의하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더 알맞은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Eisenberg와 Miller(1987)는 공감을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공감의 개념을 정의한 국내 연구 중에서 정하나(2015)는 다른 사람의 감정

과 생각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감정으로 조율하는 것을 공감이라 하였고, 신미영(2022)은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상황이나 감정에 이입하고 그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이선영(2016)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에 관해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감정과 입장에서 반응하는 능력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박지선(2014)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생각, 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이해하여, 그에 적절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사회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나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감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소통적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조용주, 2010). 공감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인지적 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인지적 관점(Mead, 1934; 강경희, 2019 재인용), 공감을 정서의 공유나 대리적 정서로 정의하며 정서적 현상을 우선으로 보는 정서적 관점(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은 공감한 내용이 타인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정의하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소통적 관점(Rogers, 1983; Bauer, 2005/2006; Truax & Carkhuff, 1967; 신미영, 2022 재인용)이 그것이다. 또한, 공감을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우선하는 단일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지하고 접근(Davis, 1980; Hoffman, 2000/2011)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감의 구성요소에 관한 입장과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내용(고희갑 외, 2015; 국은순, 2023; 박혜빈, 2013; 이

민영, 2018; 이준 외, 2015; 차화정 외, 2011; 천우영, 2016; 허순향, 2018)에  
 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 허순향, 2018)을 구  
 성하는 측면에서도 차이는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공감을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이며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김연희, 2015; 김정섭, 2017; 류현강, 2015; 송  
 문영, 2019; 연진영, 1986; 유희수, 윤수진, 2022; 이효주, 2013; 허순향, 남승  
 규, 2019; Roberts et al., 2001). Hoffman(1981)은 공감을 인지적 요소를 중  
 간매개로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느낌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각성  
 상태를 일으키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Barrette -Lennard(1981)  
 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의사 표현적 요소를 포함한 세분된 개념모형으로  
 제시하였으며,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공감의 순환 단  
 계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인 공감의 구성요소는 대체  
 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소통적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강은희, 2019;  
 김견미, 2014;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이선경, 2016). 선행  
 연구(정하나, 2015; 황다현, 2014)를 참고하여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소통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공감의 구성요소

구분	하위 요인	
	개념	내용
인지적 요소	조망수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이해한다.
	감정의 재인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구별해낸다.
	역할 취하기(채택)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정서적 역할 채택(수행)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경험해 보며 나와 타인의 감정을 구별한다.
	상상하기	상상과 추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상상해 본다.

구분	하위 요인	
	개념	내용
정서적 요소	정서 공명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자기감정처럼 대리 경험한다.
	정서 감염	다른 사람의 정서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리게 된다.
	공유된 정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동일하지 않지만, 대리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공감적 관심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개인적 고통	다른 사람의 불운이나 고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소통적 요소	공감적 반응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한 것을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하며 소통한다.

출처: 정하나(2015: 12), 황다현(2014: 26)을 재구성함.

첫 번째로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공감적 정서나 공감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고 작용을 의미한다(천우영, 2016). 이러한 인지적 요소에 관한 관심은 사회심리학 분야의 Mead(1934)로부터 시작되었으며, Mead는 공감의 개념에 감정적인 인식보다는 인지적 요소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였다(신경일, 1994b 재인용). 즉,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사고, 조망, 고통, 감정 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지적 이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Howe, 2012/2013). 또한,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상황과 정서를 언어적 내용, 비언어적 단서를 매개로 추론하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것으로 공감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소를 더 강조하여 왔다(정희섭, 2019).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인지적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조망 수용’, ‘감정의 재인’, ‘역할 취하기’ 등이 있다(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먼저 ‘조망 수용’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별개로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는 과정에 서나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 생각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다(Davis, 1980).

‘감정의 재인’은 공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재인해 내기 위해서는 상황적 단서와 언어적 내용은 물론 비언어적 단서에도 민감해야 한다(Feshbach, 1975; 이선영, 2016 재인용).

‘역할 취하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추론하고, 그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서 역할을 해 보는 보다 타인 지향적 의미가 있다(박성희, 2004). 이 때문에 ‘관점 취하기’, 또는 ‘관점에 대한 역할 취하기’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김영미, 2012; 황다현, 2014). 이러한 ‘역할 취하기’는 역할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Davis, 1994). ‘지각적 역할 취하기’는 주어진 어떤 대상이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취질 것인가를 상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역할 취하기’는 타인의 동기, 의지, 생각 등을 추론하는 능력이며, ‘정서적 역할 취하기’는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을 추론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Hoffman(2000/2011)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감정의 재인식’과 ‘역할 채택’, ‘정서적 역할 채택(수행)’으로 세분화하였다. ‘감정의 재인식’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민감하게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하고, ‘역할 채택’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서 역할 수행을 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적 역할 채택’은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감정의 재인식’과 ‘역할 채택’을 하나의 용어로 결합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해 내는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원리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습득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공감의 핵심적 요소로서(정희섭, 2019),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유발되는 정서 상태로(Hoffman, 2000/2011),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대리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이며,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상황에 맞추어 상대의 정서와 유사한 정서를 대리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Feshbach & Feshbach 1987). 정서적 요소도 ‘정서 공명’, ‘정서 감염’, ‘공유된 정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이은진, 최새은, 2021). 그러나 공감에 대한 정서반응은 공감자와 공감대상이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와 공감자와 공감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신경일, 1994a).

먼저 공감자와 공감대상이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로 ‘정서 공명’이 있다. 이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전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마치 소리가 공명하듯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자연스럽게 대리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은지, 2019; 정하나, 2015).

이와 관련하여, Hoffman(2000/2011)은 ‘정서 감염’을 인지적·반성적 사고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감에 있어 ‘정서 감염’을 중심 요소로 보았으며, 이러한 ‘정서 감염’은 다른 사람이 느낀 정서에 마치 감염이 된 것처럼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 감염 현상의 증거로 동작 모방이 있다(박은경, 2017). 동작 모방은 자신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 몸짓, 행동을 비슷하게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거울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진, 2021).

신생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기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하는 현상, 아기에게 밥을 먹여 줄 때 엄마가 입을 벌리면 아기도 엄마를 따라 자연스레 입을 벌리는 동작 모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이진희, 2008). 이렇듯, 정서 감염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인지적이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Hoffman, 2000/2011). 따라서 정서는 인지적 요소와는 달리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과정을 뜻한다(김경미, 2011; 허혜진, 2011).

마지막으로 공감자와 공감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로 ‘공유된 정서’가 있다. 이는 나와 상대방의 감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인지적 능력의 개입이 요청되며, 정서 감염보다 발전된 수준을 의미한다(김영미, 2012; 정하나, 2015). ‘정서 감염’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느낄 수 있는 전염적으로 일어나는 정서반응을 뜻한다면 ‘공유된 정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단순한 동일시 과정이 아닌 비록 상대와 동일하지 않아도 대리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느끼며 반응하는 정서반응을 의미한다(강은희, 2019;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따라서 ‘공유된 정서’는 ‘대리적 정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김영미, 2012; 이경아, 2010).

이와 관련하여, Davis(1980)는 공감의 정서적 특성을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며 동정하는 따뜻한 감정을 의미하는 ‘공감적 관심’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끼며 불편함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적 고통’으로 정의하였는데, 신경일(1994a)은 Davis의 ‘공감적 관심’이 두 번째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공감대상과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와(정서 공명, 정서 감염), 공감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공감대상에 대한 동정, 연민의 감정

을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공유된 정서, 공감적 관심, 동정)로 구분될 수 있다(신경일, 1994a). 이러한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가장 본능적인 공감의 유형으로 타인의 상황에 따른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감정에 관해 동일하거나 대리적으로 느끼는 정서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세 번째로 공감의 소통적 요소는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이해한 내용에 관해 정확하면서도 민감하게 상대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성관, 2014; 조수연, 2017; Rogers, 1983).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이해한 내용에 관해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때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관해 이해한 내용을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공감이 주체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체와 대상이 상호작용을 할 때 마침내 감정적인 공유가 완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동효관 외, 2020). 공감의 소통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김연희, 2015; 김정아, 2019). Rogers(1983)는 공감의 정의에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한 최초의 학자로서 내담자의 내면을 마치 상담자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이를 다시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Bauer(2005/2006) 역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공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큰 이해와 동의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감의 소통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의 소통적 요소는 대부분 언어적 반응에 관해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통은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언어적 반응 역시 매우 중요한 의사전달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이미정, 2012).

따라서 공감의 소통적 요소는 다른 사람에 관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공감한 내용을 언어·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며 상대에게 전하는 경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감은 완성된다는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감의 구성요소에 관한 여러 학자의 입장을 신경일(1994a)은 인지적 요소가 선행된다고 보는 견해(Rogers, Barrett-Lennard, Keefe)와 정서적 요소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Kagan)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인지적 요소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 요소가 우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각각의 요소는 어떠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절된 구별이 아닌 편의상으로 구분한 것이다(고영희, 2011; 김영미, 2012; 신미영, 2022; 임영숙, 2018). 기존에는 학자들이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소통적 요소로 구별하여 강조하였지만, 공감은 단일 차원으로 이해되기에는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으로(Barrett-Lennard, 1981), 각각의 요소가 선후 관계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정희섭, 2019).

이처럼 공감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소통적 요소로 세분화할 수는 있지만, 복합적으로 내재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2) 유아의 공감발달

유아의 공감발달을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의 흐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입장과 특정한 발달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첫 번째, Hoffman(1993)은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에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은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능력의 발달에 따라 공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4단계로 공감발달 과정을 설명하였다(박병춘, 2009 재인용). 정서

와 인지능력이 결합한 Hoffman(2000/2011)의 공감발달 과정을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의 흐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한 선행연구(김정섭, 2017; 정하나, 2015; 최지선, 2018)를 참고하여 재구성하면 표 2와 같다.

<표 2>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와 Hoffman의 공감발달 단계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Hoffman의 공감발달 단계
감각운동기 (-2세)	전반적 공감 (global empathy) ~12개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함</li> <li>· 고전적 조건화, 모방 등의 비자발적, 무의식적 공감이 나타남</li> <li>· 타인의 고통에 대한 막연한 단서에 불쾌감 느껴 행동</li> <li>·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감정과 혼합하여 그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융해적 공감(fused empathy)’ 단계</li> <li>· 신생아실에서 어떤 영아가 울면 따라 울음</li> </ul>
전조작기 (2-7세)	자기중심적 공감 (egocentric empathy) 12개월-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타인을 분리해서 인식함</li> <li>· 타인의 내적상태에 관해 인지하지 못함</li> <li>· 타인의 내면이 자신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타인의 고통에 자이중심적인 반응을 함</li> <li>· 어려움에 있는 타인에게 부적절한 도움을 제공함</li> <li>· 우는 친구 달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주거나, 우는 친구의 엄마가 아닌 나의 엄마를 불러옴</li> </ul>
구체적 조작기 (7세-11세)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empathy for another's feelings) 2,3세-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함</li> <li>·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이 다름을 알게 되어 타인에게 타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li> <li>· 언어가 발달하여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됨</li> <li>· 만 6세 이후에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폭넓은 공감이 가능함</li> <li>· 멀리 있는 존재에게는 상상만으로 공감할 수 없음</li> </ul>
형식적 조작기 (11세-)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 (empathy for another's general plight) 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타인의 분리된 정체감을 인식</li> <li>· 타인의 한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적 곤경, 먼 곳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상황에 관해서도 관심 가짐</li> <li>· 가장 발달한 형태의 공감이 이루어짐</li> </ul>

출처: 김정섭(2017: 15), 정하나(2015: 20), 최지선(2018: 24-26)을 재구성함.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 공감’은 생후 12개월까지의 영아들에게 해당하는 단계로, Hoffman(2000/2011)은 영아기 초기부터 공감능력이 발현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감각운동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기 전 가장 단순한 유형의 공감으로 고전적 조건화, 모방 등의 비자발적이며 무의식적인 형태의 공감이 나타난다(정하나, 2015). 전반적 공감 단계는 정서를 경험하는 주체가 자신인지 타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로 타인의 고통에 관해 막연한 단서에 의한 울음으로 표출하고(김은주 외, 2011),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김미정, 2011). 이는 감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혼합해 버린 나머지 그 감정이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때의 공감을 ‘용해적 공감(fused empathy)’이라고도 한다(김연희, 2015; 김완수, 2013; 천우영, 2016). 즉, 이 시기의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분별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는 단순한 공감 형태인 것으로(강민주, 2010), Hoffman(2000/2011)은 영아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지하는 것은 수동적이며 비자발적인 수준의 공감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아가 다른 영아의 울음에 따라 울더라도 자신의 울음이 다른 영아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구이선, 2018). 즉, 알지 못한 채 공감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무의식적 공감으로 볼 수 있다(권민정, 2019).

‘자기중심적 공감’은 생후 12개월에서 2세 사이의 영아들에게 해당하는 단계로 인지발달 단계에서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에 걸쳐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신과 타인을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다름은 알게 되지만, 아직 자기중심적이기에 타인의 내적상태까지는 알지 못

해 타인의 마음이 자신과 동일할 것으로 추측함으로써(이종형, 2004; 천우영, 2016), 타인의 어려움에 관해 영아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한 반응을 나타낸다. 즉, 타인의 고통에 관해 자신이 함께 고통을 느끼며 반응은 하지만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가 되었던 방식으로 타인을 위로하려고 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자아중심적인 반응(강민주, 심미경, 2011; 김연희, 2015)을 보이는 단계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는 친구를 달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주는 경우(고희갑, 2014; 천우영, 2016)와 옆에서 울고 있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 울고 있는 영아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엄마를 부르는 경우(김완수, 2013; 임주희, 2011)를 예로 들 수 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은 2, 3세에서 10세의 아동기까지 해당하는 단계로 인지발달 단계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로(신미영, 2022), 타인의 감정과 영유아 자신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타인의 감정에 따른 반응을 나타낼 때 타인에게 맞는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김정섭, 2017). 3세경에 영아는 단순한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김미정, 2011; 정유미, 2021), 점차 언어가 발달하여 보다 다양하고 세분된 감정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게 되어, 만 6세 이후에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폭넓은 공감이 가능해진다(김은지, 2019; 손혜원, 2020; 조수연, 2017; 최선향, 2018). 이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감정에 관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가능한 것이다(장문희, 2018). 또한, 대상이 없이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해 적절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공감하게 된다(이석순, 1999). 그러나 상대방이 가까이에 존재할 때만 공감이 가능하고 멀리 있는 존재에게는 상상만으로는 공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이효주, 2013; 조은진, 2012; 최선향, 2018), 만 3세 유아는 타인의 어려움에 관

해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을 위로하기 시작한다(한상희, 2019).

이렇듯 유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이루어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 또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로 공감교육의 적정시기라고 할 수 있다(Howe, 2012/2013).

마지막으로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은 10세 이후의 단계로 인지발달 단계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김정섭, 2017). 타인의 한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먼 곳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상황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되어 아프리카의 기아와 같은 문제에 관해 단순히 보이는 것에 관해 안타까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게 된다(김은주 외, 2011; 김정섭, 2017; 최선향, 2018; Howe, 2012/2013). 즉,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타인의 만성화되고 상황이 더욱 비극적인 것에 관해 더 많은 어려움을 함께 느끼게 되는 단계이다(윤석미, 2011; 임주희, 2011). 또한, 다양한 정서와 생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 가능하며 상상을 통해서도 타인에 관해 공감할 수 있어, 가장 발달한 형태의 공감이 이루어진다(김완수, 2013; 김은지, 2019; 손혜원, 2020; 이효주, 2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감발달은 인지발달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로 공감교육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정한 발달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공감의 형태로 Flavall(1985; 이선경, 2016 재인용)은 영유아

가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공감의 유형을 ‘비추론적 공감’, ‘공감적 추론’, ‘비공감적 추론’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비추론적 공감’은 정서적 감염 상태로 타인의 감정 표현에 따른 유사한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이 주는 감정 표현의 단서가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의 단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단서에 반응하며 일어나는 수동적인 반응일 뿐 어떠한 인지적 표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생아실의 아기들이 다른 아기들이 울면 같이 우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감적 추론’은 타인의 감정 표현에 관해 자신이 그 감정을 함께 느끼며 어떤 감정인지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공감적 추론’은 유아는 타인이 표현한 감정에 관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추론은 하지만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타인을 보며 기뻐 것이라는 추론은 하지만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은 기쁘지 않은 것과 같은 현상이다(구이선, 2018; 손혜원, 2020). 이러한 구분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별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신미영, 2022).

Hoffman(2000/2011)은 공감능력이 생애 초기부터 발달을 시작으로,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인지적 발달을 거치면서 보다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고, Krznaric(2014/2014)은 공감능력은 생득적인 것이며 아주 어릴 적부터 개발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하나(2015)는 공감능력의 발달과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Gallese(2007)는 사회적 관계를 잘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알며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느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공감능력은 생득적인 측면과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개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 3) 유아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

여러 학자를 통해 유아기 공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과 모델을 기반으로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ROE) 프로그램과 순환적 공감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극놀이, 영화,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Hoffman(2000/2011)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공감교육의 기회를 자주 제공할수록 유아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다시 문제행동 및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최소화와 자아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도덕성을 향상하는데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정승영(2015)과 Gordon(2005/2010) 역시 공감능력은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학습될 수 있는 능력으로 유아기에 형성되어 유아기의 또래관계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유아기에 공감의 경험이 제한되면 갈등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격성, 폭력 등의 외현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Miller & Eisenberg, 1988),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류현강, 2015). 이상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공감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많은 학자가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기 공감능력의 형성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능력의 필요성은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프로그램 내용	적용 효과
김미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뿌리 프로그램</li> <li>•8개월 아기와 엄마를 교실로 초대하여 두 달 동안 아기와 엄마의 교감, 의사소통 방법, 아기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며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ul>
현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교육 프로그램</li> <li>•총 12회기 중에서 아기와 엄마의 만남은 5회로 5개월 된 아기와 10개월 된 아기를 교실로 초대하여 아기와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고 교감 나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공격성</li> </ul>
김나원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에 기초한 인성교육 활동</li> <li>•5개월 된 아기가 2주 단위로 총 7회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들이 아기와 만나기, 만남 후 활동, 다음 만남 준비하기 단계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정서지능</li> </ul>
김연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환적 공감모형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li> <li>•9권의 그림책 및 5편의 동영상을 선정하여 동화, 동극, 현장학습, 이야기 나누기, 미술, 요리,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타인에게 관심 갖기,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공감 표현하기, 표현된 공감 알아차리기, 공감 주고받기의 순환적 공감의 단계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사회적 행동</li> <li>•조망수용</li> </ul>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화놀이를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li> <li>•5권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동화책을 감상하고 극화놀이를 수행하는데 4단계로 실행(자아공감 인식, 대인공감 조망, 공감의 소통, 공감의 순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자아존중감</li> <li>•마음 이론</li> </ul>
임영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적 이해에 기초한 유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li> <li>•24권의 동화를 선정하여 언어, 미술, 과학, 신체, 동극, 인형극, 역할극, 노래극, 언어·미술 통합 등의 관련 활동으로 구성하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지능</li> <li>•사회적 기술</li> </ul>
강경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li> <li>•게임, 동화, 미술, 신체표현, 요리, 음악, 이야기 나누기, 탐구, 현장체험활동 등을 상황 분석하기, 생각 열기, 감정 표현하기, 감정 나누기, 정리 및 평가하기 단계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ul>
강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li> <li>•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책 한 권당 이야기 꾸미기, 극놀이, 그룹 토론 활동 3차시를 한 세트로 구성하여 총 12회기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또래유능성</li> </ul>
박상희, 임영숙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를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li> <li>•18권의 동화를 활용하여 동화 속 주인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주인공이 되어 마음을 표현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인식</li> <li>•감성지능</li> </ul>

연구자	프로그램 내용	적용 효과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포던스 기반 놀이 중심 유아공감교육 프로그램</li> <li>•공감놀이 후 놀이 경험을 공유하고 연계활동 실행(공감놀이와 상황 경험하기, 공감놀이 경험 나누기, 공감대상의 감정 들여다보기, 공감의 가치 실천하기 단계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친사회적 행동</li> <li>•정서지능</li> </ul>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명화 활용프로그램</li> <li>•명화 15작품을 선정하여 명화를 감상하고 스토리나 시대적 배경을 상상하여 공감요소 인식, 공감적 사고, 공감적 소통·확장 단계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ul>

자료: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음

유아교육현장에 적용된 유아를 위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우선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ROE)’ 프로그램은 Gordon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관에서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교실로 주 1회 초대해서 1년 동안 아기의 발달과정 및 아기와 부모가 소통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공감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정하나, 2015). 공감의 뿌리 교과과정은 유치원,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에서 6학년, 7학년에서 8학년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Gordon, 2005/2010), 유아부터 아동까지의 참여자들이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신미영, 2022). 이러한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김나원 외, 2014; 김미정, 2011; 현지영, 2013)가 몇몇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중 순환적 공감모형(Barrett-Lennard, 1981)을 기반으로 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강은희, 2019; 김연희, 2015).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모형은 보다 세분화된 수준의 공감 관련 연구를 위하여 제안한 모형으로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복잡한 수준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공감의

진행 과정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분화된 개념모형으로 복잡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감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련의 흐름을 통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순환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보고 5단계의 순환적 공감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감의 첫 단계로 상대방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공감적 주의 집중 단계’,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며 공유하는 ‘공감적 공명 단계’,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현적 공감 단계’, 상대방이 표현한 공감에 집중하고 지각하는 ‘지각된 공감 단계’, 새로운 공감표현과 확장된 형태의 공감으로서 ‘공감의 순환 단계’로 구성된다.

극화놀이를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정하나(2015)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접근법을 강조하며 5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극화놀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4단계로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 자아 공감 인식 단계에서는 동화 듣고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자아 공감 도입하기, 2단계 대인 공감 조망 단계에서는 공감적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대인 공감 강화하기, 3단계 공감의 소통 단계에서는 공감적 극화놀이를 통한 공감 실천 및 견고화하기, 4단계 공감의 순환 단계에서는 공감 평가하고 적용하기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어포던스 기반 놀이 중심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신미영(2022)은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한 후 공감 상황에 관해 알아보는 연계활동을 실행하였다. 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명화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안미인(2022)은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명화를 활용한 교육 활동을 강조하며, 명화 속 공감요소 탐색 및 인지 단계에서는 명화를 감상하며 그림의 스토리나 시대적 배경을 상상하여 공감

적 요소를 인지하기, 공감적 사고 단계에서는 정서를 공유하여 공감대 형성하기, 공감적 소통 및 확장 단계에서는 나와 타인에 대한 인지와 공감적 소통 및 공감의 경험을 확장하기의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유아 공감교육을 위한 교수 매체로 그림책을 활용한(구이선, 2018; 권민정, 2019; 김은지, 2019; 박상희, 임영숙, 2019; 장문희, 2018; 조수연, 2017) 다수의 연구를 볼 수 있다. 이 중 구이선(2018)은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속 공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연관된 토의, 극놀이, 신체, 언어 및 미술활동 등의 연계활동을 실행한 결과 공감능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12주 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민정(2019) 역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감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를 한 후, 연관된 통합활동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배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2019)는 공감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동시 짓기 활동으로 공감 관련 그림책 반복적 읽기와 동시 짓기 두 단계로 구성된 공감교육 활동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감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유아들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 및 그림책을 교수 매체로 활용한 유아 공감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통합적 예술활동

본 절에서 통합적 예술활동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고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1) 통합적 예술활동의 개념 및 중요성

통합적 예술활동은 예술활동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교육 활동으로 통합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설명하는 입장(성순임, 2016; 임현희, 2018; 하정희, 조영진, 2018)과 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설명하는 입장(윤수진, 2010; 이경혜, 2019; 이미경, 2011), 그리고 예술활동 내의 통합, 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설명하는 입장(강은영, 2013; 김유진, 2022; 박순철, 2019; 백령, 2015)이 있다. 예술활동 내 통합은 예를 들어 음악활동에서 악기 다루기, 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이 음악활동 내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활동 간 통합은 공통의 주제에 따라 음악, 미술, 신체표현, 극놀이 등의 예술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 통합은 음악, 미술, 신체표현, 극놀이 등의 예술활동과 언어, 수, 과학 등의 비예술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유진, 2022).

한편, 임현희(2016)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음악, 미술, 신체표현, 문학, 극놀이 등의 예술활동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접근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성순임(2016)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예술활동을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접근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문학,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 극놀이, 사진, 동작 등 각 예술활동이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작품을 탐색하며, 유아가 느낀 생각과 감정을 문학, 신체표현, 극놀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래와 감상하며 소통하는 것을 뜻한다.

예술은 내면세계가 외부세계로 변형되어 표현되는 것으로 음악, 미술, 동작과 같은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활동은 언어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상징적 체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김규수, 2012). 이러한 예술은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 소리, 색, 선, 면, 움직임과 같은 질적인 성질 자체로 의미를 만들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나타난다(최진, 곽덕주, 2015). 이처럼 유아는 소리, 색, 선, 면, 움직임과 같은 예술언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술활동을 통하여 유아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예술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유아기 예술활동의 경험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은영, 2017). 이렇듯 유아는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 예술활동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문학, 신체표현, 미술, 음악 등 분절된 단위 활동을 떠올리며, 교사가 풍부한 자료로 도입을 진행하면 예술 표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 예술활동의 표현은 유아들이 스스로 느꼈던 수많은 미세한 감각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속된 신체 감각 속에서 그 순간 발현된다(손연주, 임부연, 2017). 이는 유아가 느끼는 작은 감각들이 하나로 모여 그 순간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기의 문학, 음악, 미술, 신체표현과 같은 예술활동은 유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다(김영연, 2002). 송진영과 임부연(2012) 역시 유아의 예술적 표현을 기술과 기예를 넘어 유아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표현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반응이 아닌 호기심을 가지

고 능동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유아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다(이수경, 1985).

통합은 21세기 유아교육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육 방법 중 하나로(김상겸, 2018),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데 있어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유진, 2022).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1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치는 중에도 통합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왔으며, 통합적 운영은 강조되고 있다(김상겸, 2018; 김현정 외, 2017). 또한,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유아가 감성을 지니고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통합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통합적 접근의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김민정, 2022). 아울러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교과영역을 나누어 교육하기보다 통합된 전체의 경험을 통해 배울 때 주변 세계에 관해 더욱 잘 인지할 수 있다(강은영, 최미숙, 2014).

이와 관련하여, 통합적 예술활동은 문학, 동작, 음악, 미술 등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며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술활동 간의 통합된 활동을 의미하며(박희경, 2015) 이러한 통합된 예술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표현활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이경혜, 김미애, 2019). 이처럼 통합적 예술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 즉 문학, 신체표현, 음악, 미술, 극놀이 등의 활동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박선민, 2016). 통합적 예술활동은 지식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인성 함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며(Winner et al., 2013), 기술 습득을 위주로 하는 초기의 예술활동을 뛰어넘어 전인적인 발달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박경주 외, 2018; 송순옥, 2016a).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하여 유아가 자신의 내적상태를 표출함으로써 유아 개인의 표현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또래 유아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극놀이, 신체표현, 음

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술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통합적 예술활동은 활동에 관한 관심, 흥미, 동기 유발을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 제시를 강조하고 있다(김유진, 2022). 매체 자료로 활용되는 예술작품에 관해 손지민(2023)은 예술작품이 예술가와 관객 간의 소통을 전제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이나 기억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구상된 이미지나 특정한 관념을 공표하는 등의 주관적인 의도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문, 뉴스, 광고, 영상은 넓은 의미에서 예술작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순아(2023)와 손지민(2023)은 예술작품이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므로 예술가와 관객 간의 소통이며 수많은 소통 방식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예술작품은 인간이나 어떠한 대상의 성격과 감정을 의미 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는 예술작품을 탐색, 표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가의 감정과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체험하게 된다(안진아, 2003). 세부적으로 보면 탐색은 예술가의 영감으로 탄생한 예술작품이 유아의 내면으로 흡수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언어를 초월한 깊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김혜원, 김은경, 2017). 이러한 내면적인 소통을 통해 예술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감정에 관해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국순아, 2023; 정웅, 2023). 표현은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이영자 외, 2000). 이러한 표현은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한다(최진, 2014; 신미영, 2022). 감상은 또래와 작품을 공유하며 서로 간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입장과 해석을 수용하여 공감과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이와 같이 유아들은 예술작품의 탐색, 표현, 감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타인을 배려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안진아, 2003). 이처럼 탐색, 표현, 감상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통합적 예술활동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통합적 예술활동은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여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유아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한다(한영지, 1998). 이경민(2014)은 통합적 예술활동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흥미 유발에 있음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예술활동이라는 매개체가 관심을 유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여 즐겁게 배우면서 습득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통합적 예술활동은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통합적 예술활동은 협동이 강조된 활동으로 유아들의 전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이은경, 2017b). 이윤희(2018)와 최정인(2013)은 유아기에 경험하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들의 정서 순화뿐만 아니라 탐구 성향과 창의적인 사고 발달을 통한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통합적 예술활동은 감정 이해와 공감능력을 향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권난주와 안재홍(2012), 성순임(2016)과 이은경(2017a)은 통합적 예술활동 경험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또래와 의견을 나누면서, 또래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유진(2022) 역시 통합적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표현하고 느낌을 공유하며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공감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통합적 예술활동은 협력과 소통능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전지연과 최은영(2011)은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들의 협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과는 다르지만, 타인과 의논하며 합의라는 협력을 동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소통능력이 자연스럽게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 강은영(2013)과 유세현(2019) 역시 공동 작품 제작을 위해 또래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며 협의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협동은 협력과 소통능력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섯째, 통합적 예술활동은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 이해는 서로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 언어를 제공하며, 이는 결국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소외를 해결하고 화합과 공존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선아 외, 2017).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하여 감수성을 증진하고 또래와 함께 나누는 감정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을 키우며, 유아 간의 소통으로 문화 다양성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백령, 2015). 박순철(2019)은 유아들이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인종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종 관련 다문화 감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섯째, 통합적 예술활동은 창의성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발현하고 드러냄으로써 창의성을 증진하게 된다(지성애 외, 2011). 김규수(2012)는 통합적 예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사고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독창적 사고 및 나와는 다른 의견에 대한 개방성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창의성이 증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개체가 되어 유아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협동이 강조되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협력을 경험하게 되고 소통능력이 자연스럽게 증진되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전인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며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공감을 키우며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표현해 봄으로써 창의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들의 흥미와 동기유발, 전인발달, 감정 이해와 공감능력, 협력과 소통능력, 문화적 이해, 창의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김영연(2008)은 통합적 예술활동이 단순히 이론적 학습이 아니라 유아들이 직접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며 이해와 존중,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통합적 예술활동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Nussbaum(2010/2011)은 통합적 예술활동이 공감능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Nussbaum은 문학을 비롯한 예술활동은 인간적인 성품 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술활동에서 인간의 감정, 생각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상력이며 이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여 있다면 어떠할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떠한 감정일지 이해하는 능력인 서사적 상상력” (Nussbaum, 2010/2011)이다. 즉,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활동의 경

힘을 통해 작품에 담긴 내용에 정서적으로 참여하며 상상력이 유발되어 공감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통합적 예술활동과 공감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정현주 외(2014)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협동활동과 소통을 요구하면서 배려와 공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아들은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됨으로써 공감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은경(2017a)은 유아의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또래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고 하였다. 송순임(2001)은 통합적 예술활동의 경험이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백령(2015) 또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 통합적 예술활동이 공감능력 함양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송민서(2018) 역시 유아들이 통합적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아 자신의 생각과 또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서로 간의 공감과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어 유아기의 통합적 예술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예술활동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그간 예술을 통한 교육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에 의해 끊임없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최진, 곽덕주, 201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래와 협동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어 공감능력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따라서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통합적 예술활동의 경험은 중요하다.

## 2)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예술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내적원리를 이용하여 교육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신승환, 2007). 즉, 예술활동의 방향은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강은영, 2013). 이는 예술활동의 방향성이 예술의 형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예술을 활용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은 통합의 특성을 강조하는 활동으로 교육적 효과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특징이 강하다(박순철, 2019). 즉,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것보다는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움과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유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논리적으로 경험을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음악, 미술, 극놀이, 신체표현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연계된 통합적인 활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loomfield, 2000). 이외에도 유아의 발달은 사회, 정서, 인지, 언어, 신체 영역 등이 통합하여 발달하기 때문에(Krough, 1995; 김여선, 2020 재인용) 어느 한 측면에 편중된 활동보다는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분리된 활동이 아닌, 통합된 활동을 제공하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은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지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활동을 활용한 유아 공감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문학, 극놀이, 미술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관련 선행연구

예술 활동	연구자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적용 효과
문학	김정섭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 기반 인성교육 활동 적용</li> <li>•8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상황 만나기(문제 상황 이해)-상황 속으로 들어가기(등장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여 내적으로 이해)-상황에 새롭게 적용(공감에 기초하여 친사회적 행동 실천)하기 과정으로 실시</li> <li>•조형, 요리, 동극, 언어, 음률, 게임, 쌓기,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조절</li> <li>•배려행동</li> </ul>
	조수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적용</li> <li>•1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주의 집중하기-수용하기(동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기)-공감의 표현(공감 교육 활동)하기-공감의 적용(공감교육 활동 평가 및 적용)하기 단계로 실시</li> <li>•신체, 게임, 언어, 토론, 동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정서지능</li> </ul>
	구이선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활동 적용</li> <li>•순환적 공감모형(Barret-Lennard, 1981)에 따라 공감적 주의 집중을 시작으로, 공감적 공명, 표현된 공감, 지각된 공감, 공감의 순환 단계 순으로 진행</li> <li>•10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책 속 공감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 속 공감 연계활동(극놀이, 신체, 언어, 미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ul>
	임영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를 활용한 공감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li> <li>•24권의 동화를 선정하여 인물 탐색하기-감정 공감하여 이해하기-인물의 정서 표현하기-역할 수행하기-또래와 상호작용하기-또래와 협력하고 실천하기 과정으로 실시</li> <li>•언어, 미술, 과학, 신체, 동극, 인형극, 역할극, 노래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지능</li> <li>•사회적 기술</li> </ul>
	장문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활동 적용</li> <li>•10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의사소통적 공감을 세분화하여 활동 전개 절차 구성하여 실시</li> <li>•인지적 공감: 이야기 듣기-상황 이야기 나누기-입장 이야기 나누기-감정 표현하기-등장인물 마음 상상하기</li> <li>•정서적 공감: 등장인물의 상황, 감정 회상하기-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하기-손인형 극놀이 하기-역할 바꾸기-극놀이 하기</li> <li>•의사소통적 공감: 이야기 회상하기-인상 깊었던 장면 선택하기-공감적 대화 나누기-빈말 물음표 활동지 하기-이야기 나누기</li> <li>•이야기 나누기, 손 인형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ul>

예술 활동	연구자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적용 효과
문학	강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li> <li>•순환적 공감모형(Barrette-Lennard, 1981)을 기반으로 공감적 주의집중-공감적 공명-표현적 공감-지각된 공감-공감의 순환 단계로 실시</li> <li>•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이야기 꾸미기, 극놀이,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또래유능성</li> </ul>
	권민정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활동 적용</li> <li>•7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책을 감상하고 공감 관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한 후, 그림책과 연관된 음률, 극놀이, 신체, 언어, 미술 등의 연계활동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조절력</li> <li>•배려행동</li> </ul>
	김정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에 기초하여 감정코칭중심의 공감교육 활동 적용</li> <li>•1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감정인식 및 발견하기-타인의 감정 이해 및 공감하기-자신의 감정 표현(극놀이, 신체표현, 미술)하기-감정 소통 및 해결하기 과정으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li>•정서지능</li> <li>•자아존중감</li> </ul>
	박상희, 임영숙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를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li> <li>•18권의 동화를 활용하여 인물 탐색하기-감정 공감하여 이해하기-또래와 정서 공유하기-인물의 정서 표현하기-역할 수행하기-공감 내면화하기 과정으로 실시</li> <li>•이야기 나누기, 신체, 미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인식</li> <li>•감성지능</li> </ul>
	손혜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을 활용한 공감활동 적용</li> <li>•순환적 공감모형(Barrette-Lennard, 1981)을 기초로 공감적 주의집중-공감적 공명-표현적 공감-지각된 공감-공감의 순환 단계로 실시</li> <li>•1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이야기 나누기, 극놀이,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li> </ul>
극놀이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화놀이를 통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li> <li>•5권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자아 공감 인식-대인 공감 조망-공감의 소통-공감의 순환의 단계로 극화놀이를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존중감</li> <li>•마음 이론</li> <li>•공감능력</li> </ul>
	문지영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화놀이를 중심으로 한 공감교육 적용</li> <li>•8권의 동화를 선정하여 공감적 이야기 나누기(동화감상)-공감적 극화놀이-공감 평가하기 과정으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 이론</li> </ul>
	양가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 중심 극화활동 적용</li> <li>•6권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공감을 위한 감정 인식하기-공감적 대본 작성하기-공감 중심 극화활동 준비하기-공감 중심 극화활동 실시하기-공감 중심 극화 활동 평가하기 단계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존중감</li> <li>•인성</li> </ul>

예술 활동	연구자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적용 효과
미술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명화 활용프로그램 적용</li> <li>•총 15점의 명화를 활용하여 명화 속 공감요소를 인식하고 정서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과정으로 프로그램 시행</li> <li>•이야기 나누기, 요리, 게임, 미술, 음악, 신체</li> </ul>	•공감능력

자료: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음

첫째, 문학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을 살펴보면, 강은희(2019)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손혜원(2020)은 유아들이 이야기 나누기, 극놀이, 그룹 토론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어 공감적 사고가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구이선(2018)은 유아가 그림책 속 인물의 여러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야기 나누며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아(2019)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접하고, 극놀이, 미술, 신체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장문희(2018)는 유아에게 정서적 요소가 풍부한 그림책을 제시하여 등장인물 되어보기, 손인형 극놀이 하기, 공감적 대화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유아들이 그림책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조수연(2017)은 동화를 활용한 게임, 미술, 역할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어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그림책이나 동화는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 그림책이나 동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유아들의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 긍정

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극놀이활동을 활용한 유아 공감교육을 분석한 결과, 정하나(2015)는 극화놀이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유아들이 함께 극놀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게 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는 능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문지영(2018)은 유아들이 극화놀이 전의 공감적 이야기 나누기와 극화놀이 후에 공감 평가하기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나와 타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 이론이 형성되었으며, 극화놀이를 준비하며 또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공감적 주의를 기울였던 점 역시 마음 이론 증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양가원(2022)은 유아가 동화 속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타인을 조망하는 경험을 가져 인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극놀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극 중 인물의 입장이나 상황을 생각하고 공감하게 된다. 또한,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극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능력이 증진되는 것이다.

셋째, 미술활동을 활용한 유아 공감교육을 고찰해 보면, 안미인(2022)은 유아들이 명화 속 공감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공감이 향상되었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 정서적 공감이 증진되었으며, 또래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발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공감과 예술활동의 통합 가능성 및 효과검증을 위하여 예술활동을 통한 공감교육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유아들의 공감능력, 또래 유능성, 정서조절력, 배려행동,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자기인식, 감성지능, 사회적 기술, 마음 이론, 인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

다. 이러한 개별 예술활동도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통합적 예술활동은 다양한 표현양식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최진, 2014). 또한, 통합적 예술활동은 대부분 협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또래 간의 소통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 공감능력 증진(권난주, 안재홍, 2012; 김유진, 2022; 성순임, 2016; 이은경, 2017a)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이경민, 2014)하는데 충분한 매개체가 되어 유아가 흥미롭게 배움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통합적 예술활동은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게 하고, 협동활동을 통해 또래와 소통하며, 흥미롭게 공감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통합적 예술활동의 경험은 필요하다.

### 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교육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두 가지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서로 간의 느낌, 생각, 감정, 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말한다(서봉연 외, 2001). 이러한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능력과 차이가 있다. 언어능력은 문장을 만들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면, 의사소통 능력은 이러한 언어능력을 토대로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이차숙, 2005). 김혜정(2017)은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Hymes(1972) 역시 의사소통 능력을 단순히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Wilson과 Sabee(2003; 김은하, 2017 재인용)는 여러 학자가 내린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에는 공통으로 효과성과 적절성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효과성이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적절성이란 사회적 특성, 대화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 다양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행동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타인과의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효과적이며 적절한 언행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황유선, 김주환, 2009).

이렇듯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또래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의 말에 경청하며 이해하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내용요소는 연구자의 입장과 대상, 성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김나현, 2013; 김혜정, 2017; 송옥진, 2017). 김영애(2004)는 성인 대상의 Satir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의 내용요

소로 자기표현, 공감적 표현, 적극적 경청, 타협하기를 제시하였다. 엄은나(2006)는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내용요소를 자기 마음 표현하기, 자기 마음 이해하기, 공감, 경청,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기를 제시하였다. 서지은(2009)은 유아 대상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내용요소로 자기 마음 표현하기, 자기 마음 이해하기, 공감, 경청, 나 전달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송수희(2006)는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반응하기, 말 순서 갖기, 비언어적 행동,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 반응을 요구하는 말 걸기를 내용요소로 제시하였다.

우혜진(2012)은 유아의 사회적 합의 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 능력 검사 도구 중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 리더십, 책임감, 정직 등 9가지로 의사소통 능력 검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서영(2016)은 구체적으로 채점할 수 없는 문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 리더십, 책임감, 정직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양서영(2016)이 수정·보완한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9가지 내용요소인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 리더십, 책임감, 정직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청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행위로 예를 들어 친구가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둘째,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예의를 갖추어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으로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배려는 타인을 도와주거나 마음을 다해 보살피 주려는 것이며 예를 들어 친구가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넷째, 인정은 자신과 다른 상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과 생각이 달

라도 상황에 적합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것으로 타인의 의견을 비웃거나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예를 들어 나와 친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다. 여섯째,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고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타인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일곱째, 리더십은 무리를 이끌어가거나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능력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표현하고 적절히 설명하여 설득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여덟째, 책임감은 맡은 임무나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며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아홉째,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으며, 상상과 진실을 구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내용요소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며, Vygotsky(1986; 김은하, 2017 재인용)는 만 2세부터 만 6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만 2세~만 3세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는 타인의 몸짓과 행동을 모방하는 형태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다가 점차 외적언어 단계가 발달하면서 사고와 언어가 통합됨에 따라 생각한 바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말도 논리성을 갖추어 가게 된다. 만 3세에 들어서면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성장하고, 인지력 발달에 따라 서술적 어휘 사용이 확대되어 유아가 활동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언어는 중요한 도구적 기능을 하게 된다. 만 5세부터는 내적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규제가 가능해진다. 즉,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이 길러져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만 6세경의 유

아들은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청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즉,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유아기를 시작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며,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단으로서 유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므로 또래와의 갈등은 완화되고 공격적 행동은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김은설 외, 2013; 우채영, 2016; 임승렬 외, 2014).

따라서 유아기 의사소통 능력 발달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아들이 또래 간의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관해 적절히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서봉연 외, 1994). 공감 화법 훈련 프로그램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복순(2020)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화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류은경(2018) 역시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은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유아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한 공감을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미라(2022)는 공감적 발문에 기초한 실시간 온라인 하브루타 토론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 역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

하는 경험이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임선숙(2017)과 최경순(2007), 박진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그중 박진영(2005)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됨으로써 화자의 말에 반응하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충현(2011)과 류승민(2010), 박학서(2006)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충현(2011)은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보다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류승민(2010)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의사소통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박학서(2006)는 김충현(2011)과는 달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며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능력은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또래와의 소통은 공감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모든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한다(박선영, 2010).

Bar-Tal(1976)은 친사회적 행동에 관해 외적인 보상은 기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최지선, 2018 재인용). Eisenberg와 Mussen(1989) 또한 보상은 기대하지 않고 타인이나 집단에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이타적 행동(altruistic behavior)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유하나, 2013; 이종향, 2007; 조영례, 2019).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적 행동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타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위자의 동기 혹은 의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Taylor et al., 2000; 신하람, 2019 재인용). 이타적 행동은 행위자가 어떤 이득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때로는 행위자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은 온전히 타인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진 이타적 행동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발현된 행동이나 보상을 고려한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한국심리학회, 2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느 집단이나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는 모든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 개념에 관해 학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여 주었던 것처럼 친사회적 행동 구성요소에 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제안하고 있었다. 김영옥(2003)은 친사회적 행동의 구성요소를 지도성, 돕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감정이입, 접근 시도, 나누기, 조절로 구분하였다. 구광현과 이희경(2002)은 나누기, 돕기, 협동, 위로, 이타행동, 도덕적 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종향(2007)은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학교 적응 능력으로 구분하였고, 이정화와 이수련(2008)은 관심, 감정이입, 돕기, 나누기, 위로, 협조, 보살피기로 구분하였다.

Beaty(1999/2001)는 자아존중감, 타인 존중감, 자기조절력, 우정, 배려, 협동, 돕기로 분류하였고, Walsh(1980/1984)는 돕기, 자선, 나누기, 관용, 감정이입, 협동, 동정, 위안, 우정, 바른 행동하기를 친사회적 행동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공통 요소로는 돕기, 나누기, 협동, 감정이입, 위로, 자기조절력, 우정, 배려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가 제안한 친사회적 행동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친사회적 행동의 구성요소

연구자	돕기	나누기	협동	감정이입	위로	자기 조절력	우정	배려	개인정서 조절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학교 적응능력
구광현,이희경 (2002)	○	○	○		○						
김영옥 (2003)	○	○		○		○					
이정화, 이수련 (2008), 이종향 (2007)	○	○	○	○	○				○	○	○
Beaty (1999/2001)	○		○			○	○	○			
Walsh (1980/1984)	○	○	○	○	○		○	○			

자료: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음

McGinnis와 Goldstein(1990)은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 학교와 관련된 기술, 우정을 만들어가는 기술, 감정 조절에 연관된 기술, 공격성에 대한 대안으로 방법 제시, 스트레스 조절하기 등 6가지로 구성된 ‘Skill Situation Measure’을 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원영 외(1993)는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학교 적응 능력으로 구성된 친사회적 검사 도구를 제시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의 3가지 구성요소인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학교 적응 능력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한영미, 2009). 즉,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정서에서 빨리 벗어나는 능력을 말한다(신미영, 2022).

둘째,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유아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능력을 말한다(김성민, 2009). 즉, 유아들이 또래와 만족할 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거나,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원영 외, 1993).

셋째, 학교 적응 능력은 교육기관의 규칙과 질서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능력을 뜻한다(김소은, 2017). 즉, 교육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약속과 개인의 욕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류형순, 2002),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규칙, 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은옥균, 2016).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 요소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며, Bar-Tal 외(1977)는 4세부터 15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 발달단계를 6 단계로 제시하였다(조강모, 1991 재인용). 1단계는 구체적 강화에 순응 단계로 유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 요구,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상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단계의 친사회적 행동은 구체적인 보상, 이득이나 처벌 행위가 주어질 때 나타난다. 2단계는 권위자에게 순응 단계로 유아는 자신보다 강한 권위를 가진 상대의 지시와 요청에 따르는 단계이다. 즉,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강한 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3단계는 구체적 보상에 스스로 도움행동의 단계로 유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 요구, 상황을 이해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받을 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단계는 규범적 행동 단계로 유아가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받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실천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규범적 행동 단계로 유아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사회적으로 수용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친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5단계는 보편화된 상호성 단계로 상보성 원리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대에게 도움을 주면, 자신도 보답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단계이다. 6단계는 이타적 행동 단계로 유아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행하는 단계이다. 이상의 단계별 친사회적 행동을 고려해 볼 때,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은 개념적 차이보다는 발달상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조강모, 1991; 나혜선, 2016). 조강모(1991)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혜선(2016)이 정리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친사회적 행동 발달단계

단계	특성
1 구체적 강화에 순응	구체적 보상에 대한 약속이나 벌의 위협으로 인한 도움행동 수행
2 권위자에 순응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도움행동 수행
3 구체적 보상에 스스로 도움행동	명백하고 구체적인 보상을 바라며 도움행동 수행
4 규범적 행동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움행동 수행
5 보편화된 상호성	상호 이익을 위하여 도움행동 수행
6 이타적 행동	도덕적 확신에 따라 외적 보상에 관한 기대 없이 도움행동 수행

출처: 나혜선(2016),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배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p. 58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면적이기 때문에 단일 변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중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나

혜선, 2016; 양성은, 정문자, 1995; 우자영, 2015; 장범관, 2000).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를 살펴보면, 양성은(1995)의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가 공감이 유발되는 때에는 성별이나 사회적 평가와 관계 없이 공감이 유발되지 않는 때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범관(2000) 역시 공감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즉, 공감 정서가 높게 각성되었을 때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수가 증가한 반면, 공감 정서가 낮게 각성하였을 때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 역시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정하나와 지성애(2015) 역시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유아들의 공감능력을 증진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세나(1999)의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협동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 경험은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공감능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Miller와 Eisenberg(1988)는 친사회적 행동이 자주 발현되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자주 발현되지 않는 유아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과 공감능력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경험은 또래관계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공감능력과 함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Ⅲ.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개발하였다.

####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 절차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은 ADDIE 모형에 따라 구성 절차가 이루어졌다(이성흠, 2008).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고,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인 ‘분석’ 단계에서는 2023년 4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선행연구 고찰을 위해 ‘유아 공감’, ‘유아 공감능력’, ‘유아 공감모형’, ‘유아 공감교육’, ‘유아 공감 기반’, ‘유아 예술’, ‘유아 예술경험’, ‘유아 예술통합’, ‘유아 통합예술’, ‘유아 문화예술 기반’, ‘유아 통합문화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아교육기관의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실태 및 요구조사를 통해 유아 공감교육의 실재를 파악하고 유아교사의 인식 및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단계	연구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 (Analys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행연구 분석</li> <li>-공감교육 관련 문헌분석</li> <li>-예술교육 관련 문헌분석</li> <li>•요구조사 분석</li> <li>-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문항 구성 및 요구조사</li> <li>-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및 요구분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설계 (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 요구분석에 따른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시안 개발</li> <li>•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내용 추출</li> <li>-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선정</li> <li>-프로그램 내용: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li> <li>-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선정</li> <li>-프로그램 평가: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 선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개발 (Develo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활동안,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등 개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실행 (Implement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 (Evaluation)</p>	<p>&lt;형성 평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유아 평가</li> </ul> <hr/> <p>&lt;효과 검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능력 검사 분석</li> <li>•친사회적 행동 검사 분석</li> </ul>

[그림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 절차

2단계인 ‘설계’ 단계에서는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시안 개발 단계로 1단계를 토대로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구안하고 시안을 구성하였다.

3단계인 ‘개발’ 단계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를 통해 선정된 내용에 따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안, 학습 활동,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1차 전문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예비연구를 시행하여 현장 적용의 가능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추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2차 전문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4단계인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13주 동안 만 5세 유아들에게 적용하였다.

5단계인 ‘평가’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유아 평가를 위해 유아들을 대상으로 매 활동을 마친 후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검사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석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감 교육 및 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문헌을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참고문헌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 부합하는 문헌의 경우에는

역추적하여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문헌분석과 함께 유아교육기관의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와 요구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에 적용할 점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분석

### (1) 공감교육 프로그램 관련 문헌분석

공감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유찬기와 남기범(2018)의 사회과학의 공감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공감 연구 중에서 학문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학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공감의 교육적 활용 방법 또는 공감능력 형성을 위한 교육적 방안 등의 실용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는 공감능력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아 대상의 공감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교육 활동 및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공감활동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김견미(2014), 우지연(2017), 최선향(2018)은 유아들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회차마다 활동에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

를 활용하여 활동 주제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즉, 다양한 매체(동영상, PPT 자료, 사진, 명화, 그림책, 동시)를 통하여 여러 상황을 소개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공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가원(2022)은 유아들이 그림책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예측해 보거나 그림책을 읽고 난 후 회상하며 관련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통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재경(2020)은 유아들에게 공감 관련 상황을 그림카드로 제시하고 유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의 흥미 유발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로 동영상, PPT, 사진, 명화, 그림책, 동시, 그림카드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공감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은 협동활동을 교수-학습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하나(2015)는 유아들이 협동활동을 통해 또래와 역할을 분담하고 하나의 활동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른 또래의 감정이나 의견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혜선(2016)은 유아가 협동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은 양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김은주 외(2011)는 유아가 또래와 관계 맺기를 통해 서로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협동활동의 기회는 유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협동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감교육 활동 및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소통의 단계를 공감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김건미(2014)는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공감대상의 어려움에 관해 해결하는 방법을 나누며 공감에 대한 의미가 깊어진다고 하였다. 임영숙(2018)은 유아들이 또래와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유하고 공감한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하나(2015)는 유아가 공감한 내용을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공감한 것에 관해 타인과 공유하는 단계로, 선생님 및 또래와 공유하며 또래의 공감적 표현에 유아들은 다시 한번 공감적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미영(2022)은 유아들이 공감놀이에서 인식한 공감의 내용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단계로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안미인(2022)은 유아들이 자신과 타인에 관해 인식한 내용과 공감한 내용에 관해 소통하며 공감의 경험을 확장하는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공감한 경험 나누기 과정은 다시 한번 공감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견고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공감교육 활동 및 공감교육 프로그램은 유아 공감교육에 적합한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을 다양하고 폭넓게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김나원외(2014)는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에 기초한 인성교육 활동 연구에서 아기와 의 만남을 통한 배려, 존중, 협력, 효, 나눔, 질서의 내용으로 고안하였다. 5개월 된 여아가 2주 단위로 총 7회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들이 아기와 만나기, 만남 후 활동, 다음 만남 준비하기 과정의 인성교육 활동을 실행하였다. 김연희(2015)는 감정이입, 자기조절, 이해, 배려, 협력, 돕기, 존중, 나눔, 효의 내용으로 공감대상을 부모님, 동생, 친구, 지역사회 어른, 아프리카 친구들, 장애인, 다문화, 북극곰, 공룡, 동물보호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강경희(2019)와 김정아(2019)는 나, 가족, 친구, 이웃, 동·식물을 공감대상으로 제시하였고, 강은희(2019)는 친구, 가족, 아프리카 친구를 공감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신미영(2022)은 친구, 가족, 동·식물, 환경보호, 장애인, 다문화로

구성하였으며 공감대상을 유아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친구와 가족으로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동·식물, 장애, 다문화 역시 공감교육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공감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세계시민, 다문화, 인권, 다양성 존중 및 이해 등 좀 더 확장된 영역들이 반영되고 있다 (유희수, 윤수진, 2022).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분석에 따르면, 공감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은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었고, 이는 유아들을 공감교육 활동에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또래와 함께하는 협동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는 등 공감교육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교수-학습 과정에 소통의 단계를 포함하여 유아들이 공감 주제 및 공감 대상에 관해 공감한 내용 및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공감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면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감의 대상을 유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친구와 가족부터 좀 더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 다양성, 인권, 세계시민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감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유아의 흥미 유발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동활동을 선정하였다. 셋째, 공감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통의 단계를 포함하였다. 넷째, 폭넓은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감 주제와 공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2)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문헌분석

유아 예술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할 때 다양한 연구에서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김유진, 2022). 그러나 이는 예술이 교육에서 단순한 매개체를 넘어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오세준, 2018). 예술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 통합예술교육, 통합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예술통합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 통합문화예술교육, 통합예술교육, 예술통합교육은 예술을 활용해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김유진, 2022)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의 형태는 예술활동 내 통합, 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은영, 2013; 김유진, 2022; 박순철, 2019; 백령, 2015). 이러한 통합은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거나 두 가지의 통합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활동 간의 통합을 적용하고자 하므로, 이에 관한 통합 프로그램 관련 문헌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적 체험을 강조한 유아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고영미 외(2016)는 미술, 음악, 춤, 극놀이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매개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연 친화를 통한 유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박선영(2013)은 음악, 미술, 신체표현, 문학 등을 통합하여 총 4단계의 교수-학습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제 인식하기, 2단계는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3단계는 음악, 미술, 신체표현, 문학 등의 예술활동으로 표현하기, 4단계는 통합예술활동으로 표현하기 단계로 3단계에서 경험한 다양한 예술활동들을 통합하여 음악극, 동극, 무용극, 그림자극

등 통합적 예술활동을 실행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성순임(2016)은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 문학, 극놀이, 사진 등 예술활동 간 통합뿐만 아니라 탐색, 표현, 감상의 각 요소가 순차적 진행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심미적 경험을 탐구한 연구에서 임현희(2018)는 음악, 미술, 문학, 극놀이, 신체표현 등 예술활동을 통합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언급하였다. 첫째, 통합예술교육은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몰두하며 자기주도적으로 감성을 활성화해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는 자신이 표현한 것을 또래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통합적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나누는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통합적 예술활동은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아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래와 공유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다채롭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예술활동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탐색, 표현, 감상의 요소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허경숙(2021)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문화예술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이 시기에는 ‘문화예술교육’ 과 ‘프로그램’ 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화예술

교육이 ‘경험’ 과 ‘참여’ 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화예술 교육이 경험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현정과 김지영(2023)의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동향에서 통합예술교육이 유아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른 대상에 비해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예술활동별(음악, 미술, 연극, 무용, 통합)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 교육방식이 분절된 방식보다는 다양한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권장하고 있는 교육과정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곽영미, 2016; 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박선영, 2013; 윤덕순, 2009; 이경혜, 2019; 이은경, 2019; 이은영, 이수경, 2019; 임현희, 2018),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김남연, 2012; 남기원, 2013; 박예원, 2015; 박은주, 2012; 안지영, 2013; 정효은, 2009), 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박순철, 2019; 이진 2017), 예술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양승희, 2017; 이시영, 2022), 미술교육 프로그램(김선월, 2012)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의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창의성, 정서지능, 민주 시민의식, 놀이 확장 경험, 자연 친화적 태도, 공감 능력, 자아존중감, 다문화 감수성, 언어능력, 친사회적 행동 능력 등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실행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예술활동과 관련한 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흥미는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로, 교수-학습 원리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은영(2013)과 안지영(2013)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흥미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유아

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활동 내용이 흥미로운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시영(2022)은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직접 체험 가능한 놀이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지속된다고 언급하였다. 백인경(2017)은 유아들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다양한 그룹 형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대그룹 활동, 소그룹 활동, 짝 활동, 개별 활동 등 그룹 유형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유아들의 흥미와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룹 형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유아들이 활동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로 흥미 유발자와 동기 유발자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에 관해 강은영(2013)과 안지영(2013)은 유아들이 활동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각의 유아들이 갖고 있는 사전 경험 및 지식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유아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유나(2023)와 백인경(2017)은 유아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교사는 활동을 구상하고 계획해야 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순철(2019)은 교사가 제시한 활동에 유아는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사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놀이 또는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평가 방법으로 활동에 대한 참여도, 흥미,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장은희(2007)는 유아에 대한 평가로 유아들의 참여 태

도, 만족도 등을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박순철(2019)은 자기평가를 통해 본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누고 또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활동에 대한 흥미, 참여도 및 만족도에 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통합적 예술교육이 과정 중심을 추구하고(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통합적 예술활동은 교수-학습 원리, 교사의 역할, 평가에 이르기까지 유아 흥미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흥미 및 동기 유발이 통합적 예술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 요소임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교수-학습 원리로 흥미 중심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둘째, 교사의 역할로 흥미 유발자, 동기 유발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평가 방법으로 유아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 흥미,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 **2) 설문조사를 통한 교사의 요구분석**

### **(1) 조사대상**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조사의 대상은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험이나 관점을 조사하고자 목적 표집(김영천, 2016)으로 선정되었다. 이 조사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였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URL을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온라인 설문 방식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21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유아반 담임교사의 응답이 아닌 자료이거나 누락 및 중복표기로

인해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0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7과 같다.

<표 7>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배경 (N=207)

구분		n(%)	구분		n(%)
기관 유형	국·공립유치원	40(19.3)	최종 학력	2~3년제 대졸	66(31.9)
	사립유치원	13(6.3)		4년제 대졸	77(37.2)
	국·공립어린이집	95(45.9)		대학원 이상	55(26.6)
	민간어린이집	46(22.2)		학점제 원격	5(2.4)
	법인·직장어린이집	13(6.3)		평생교육원	4(1.9)
교육 경력	3년 이하	26(12.6)	담당 학급	만 3세	76(36.7)
	4~6년	51(24.6)		만 4세	51(24.6)
	7~10년	56(27.1)		만 5세	57(27.5)
	11~15년	37(17.9)		혼합연령 (만 3세~만 4세)	9(4.3)
	16년 이상	37(17.9)		혼합연령 (만 4세~만 5세)	12(5.8)
교사 연령	25세 이하	6(2.9)	혼합연령 (만 3세~만 5세)	2(1.0)	
	26~30세	47(22.7)			
	31~35세	50(24.2)			
	36~40세	23(11.1)			
	41세 이상	81(39.1)			
전체			207(100)		

## (2) 요구도 조사 설문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운영 실태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공감과 관련된 문항들은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강은희, 2019; 김연희, 2015;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이선영, 2016; 정하나 2015)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공감과 연관성이 있는 유아 정서 및 인성 관련 선행연구(권미혜 2017; 조연경 2016; 이운영, 2020)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배경 5문항,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8문항 및 유아 공감교육 운영 실태 9문항,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요구 7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된 1차 설문 문항은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1차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 2인과 유치원 원장 1인 및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과 어휘 및 문장의 적절성, 누락된 내용의 여부,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도 조사에 관한 내용 타당도 등에 관해 검토 받았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 문항 중 개념이 비슷한 유형의 문항은 수정하였으며, 교사가 생각하는 공감교육 및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항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각 문항 당 교사의 생각과 부합하는 문항이 없을 수 있으므로 기타 문항을 구성하여 교사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 유형은 선택형이며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 8> 요구도 분석을 위한 설문지 내용구성

구분	문항	문항수
일반적 배경	기관 유형, 경력, 연령, 학력, 담당학급	5
유아 공감교육 인식 및 운영 실태	교사의 인식, 필요성, 운영 실태, 어려움	17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유아교사의 요구	교육시기, 교수 방법, 운영방법, 교육 목표, 기대하는 효과	7
	전체	29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Windows 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운영 실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요구, 운영방법 등과 관련된 자료는 빈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유아 공감교육을 시행할 때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및 교육 내용과 관련한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은 다중응답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타 응답에 관한 서술은 별도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 (4) 요구분석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 공감교육 운영 실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은 ‘유아 공감교육의 이해도’, ‘유아 공감교육의 필요성’, ‘유아 공감교육이 필요한 이유’, ‘유아 공감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공감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았다.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 관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유아교사가 70명(33.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 69명(33.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3명(25.6%), ‘매우 잘 알고 있다.’ 8명(3.9%), ‘전혀 모른다.’ 7명(3.4%)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표 9>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N=207)

문항	내용	n	%
유아 공감교육의 이해도	전혀 모른다.	7	3.4
	잘 모른다.	69	33.3
	보통이다.	70	33.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3	25.6
	매우 잘 알고 있다.	8	3.9
유아 공감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0.5
	보통이다.	16	7.7
	조금 필요하다.	41	19.8
	매우 필요하다.	149	72.0
전체		207	100

유아 공감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관해 ‘매우 필요하다.’ 149명(72.0%), ‘조금 필요하다.’ 41명(19.8%), ‘보통이다.’ 16명(7.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명(0.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과반수의 유아교사가 유아 공감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유아 공감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유아교사의 중복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유아 공감교육이 필요한 이유 (N=207, 다중응답)

내용	n	%
유아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168	29.2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80	13.9
문제 상황 발생 시 원만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71	12.3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7	11.6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의 공감능력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62	10.8
시대적으로 타인에 관해 공감하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61	10.6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38	6.6
유아의 공감능력이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29	5.0
전체	576	100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문항의 중복응답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유아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로 168명(29.2%)의 유아교사들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80명(13.9%), ‘문제 상황 발생 시 원만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71명(12.3%),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7명(11.6%),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의 공감 능력 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62명(10.8%), ‘시대적으로 타인에 관해 공감하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61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할 공감 주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중복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유아 공감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공감 주제 (N=207, 다중응답)

내용	n	%
친구	182	33.1
가족	178	32.4
동·식물	77	14.0
장애인	49	8.9
다문화	41	7.5
한 부모 가족	17	3.1
조손 가족	4	0.7
기타	2	0.4
전체	550	100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할 공감 주제를 묻는 문항의 중복응답 결과 ‘친구’ 182명(33.1%), ‘가족’ 178명(32.4%), ‘동·식물’ 77명(14.0%), ‘장애인’ 49명(8.9%), ‘다문화’ 41명(7.5%), ‘한 부모 가족’ 17명(3.1%), ‘조손 가족’ 4명(0.7%), ‘기타’ 2명(0.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2명(0.4%) 의견으로는 ‘환경’이 공감 주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② 유아 공감교육 운영 실태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는 ‘유아 공감교육 활동 횟수’, ‘유아 공감교육 활동 시간’, ‘유아 공감교육 그룹 형태’, ‘유아 공감교육 참고 자료’,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았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유아 공감교육 운영 실태 (N=207)

문항	내용	n	%
활동 횟수	수시로(상황에 따라)	154	74.4
	한 달에 1~2회	21	10.1
	일주일에 1~2회	17	8.2
	한 학기에 1~2회	11	5.3
	가끔(상황에 따라)	4	1.9
활동 시간	수시로(상황에 따라)	94	45.4
	자유놀이시간	57	27.5
	이야기 나누기 시간	42	20.3
	대집단 시간	14	6.8
그룹 형태	개인별로 운영	114	55.1
	대그룹으로 운영	50	24.2
	소그룹으로 운영	34	16.4
	상황에 따라 운영(대그룹, 소그룹, 개인별)	9	4.3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감교육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86	41.5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공감교육 관련 내용을 활용	65	31.4
	공감교육 관련된 참고 서적	31	15.0
	기관에 구비된 공감교육 교재·교구	9	4.3
	장학자료(예: 교육부의 공감교육 자료집 활용)	9	4.3
	상품화된 공감교육 프로그램	6	2.9
	기타	1	0.5
전체		207	100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교육의 활동 횟수를 묻는 문항에 관해 가장 높은 응답은 ‘수시로(상황에 따라)’로 154명(74.4%)의 유아교사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한 달에 1~2회’ 21명(10.1%), ‘일주일에 1~2회’ 17명(8.2%), ‘한 학기에 1~2회’ 11명(5.3%), ‘가끔(상황에 따라)’ 4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교육의 활동 시간을 묻는 문항에 관해 ‘수시로(상황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4명(4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유놀이시간’ 57명(27.5%), ‘이야기 나누기 시간’ 42명(20.3%), ‘대집단 시간’ 14명(6.8%)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교육의 그룹 형태를 묻는 문항에 관해 과반수의 유아교사가 응답한 ‘개인별로 운영’이 114명(5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대그룹으로 운영’ 50명(24.2%), ‘소그룹으로 운영’ 34명(16.4%), ‘상황에 따라 운영(대그룹, 소그룹, 개인별)’ 9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교육의 활동을 계획할 때 주로 참고하는 자료를 묻는 문항에 관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감교육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6명(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공감교육 관련 내용을 활용’ 65명(31.4%), ‘공감교육 관련된 참고 서적’ 31명(15.0%), ‘기관에 구비된 공감교육 교재·교구’와 ‘장학자료(예: 교육부의 공감교육 자료집 활용)’가 각각 9명(4.3%), ‘상품화된 공감교육 프로그램’ 6명(2.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명(0.5%) 의견으로는 ‘교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동화책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유아교사의 중복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N=207, 다중응답)

내용	n	%
공감교육에 대한 정보 및 재교육이 부족	78	16.7
안내 지침서 및 체계적인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가 부족	77	16.5
유아들의 발달 및 개인 경험 차이의 어려움	70	15.0
효과적인 공감교육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부족	51	10.9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유아 공감교육을 연계하기 어려움	50	10.7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	47	10.0
다른 프로그램 진행 및 업무 과다로 시간이 부족	46	9.8
다른 활동에 비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움	27	5.8
공감교육 활동 및 관련 놀이를 위한 지원의 어려움	21	4.5
활동 내용을 선정하기 어려움	1	0.2
전체	468	100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중복응답 결과 ‘공감교육에 대한 정보 및 재교육이 부족하다’에 78명(16.7%)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안내 지침서 및 체계적인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가 부족하다.’ 77명(16.5%), ‘유아들의 발달 및 개인 경험 차이로 어렵다.’ 70명(15.0%), ‘효과적인 공감교육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다.’ 51명(10.9%),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유아 공감교육을 연계하기 어렵다.’ 50명(10.7%), ‘교사 대 유아의 높은 비율’ 47명(10.0%), ‘다른 프로그램 진행 및 업무 과다로 시간이 부족하다.’ 46명(9.8%), ‘다른 활동에 비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27명(5.8%), ‘공감교육 활동 및 관련 놀이를 위한 지원이 어렵다.’ 2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유아교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유아교사의 요구사항 (N=207, 다중응답)

내용	n	%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2	22.8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연수 진행	87	17.7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자료 및 교재·교구 제공	79	16.1
다른 업무들로 인한 유아 공감교육을 준비하는데 시간 부족	75	15.2
유아 공감교육 가정연계를 위한 부모교육 진행	68	13.8
유아들의 공감능력 평가 도구	45	9.1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감 관련 연수 진행	26	5.3
전체	492	100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유아교사의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의 중복응답 결과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원하는 유아교사가 112명(22.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연수 진행’ 87명(17.7%),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 자료 및 교재·교구 제공’ 79명(16.1%), ‘다른 업무들로 인한 유아 공감교육을 준비하는데 시간 부족’ 75명(15.2%), ‘유아 공감교육 가정연계를 위한 부모교육 진행’ 68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③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요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유아교사들의 요구사항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연령’,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 ‘프로그램에 적합한 활동 시간’, ‘프로그램에 적합한 집단 유형’,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수 방법’,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았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방법

(N=207)

문항	내용	n	%
프로그램에 적합한 연령	유아기(만 3세~만 5세)	132	63.8
	영아기(0세~만 2세)	72	34.8
	아동기(초등학교 시기)	3	1.4
	청소년기(중·고등학교 시기)	0	0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	주 2회	106	51.2
	주 1회	54	26.1
	주 3회 이상	36	17.4
	수시로(상황에 따라)	10	4.8
	기타	1	0.5
프로그램에 적합한 활동 시간	이야기 나누기 시간	102	49.3
	자유놀이시간	52	25.1
	수시로(상황에 따라)	27	13.0
	대집단 시간	26	12.6
프로그램에 적합한 집단 유형	대그룹으로 운영	92	44.4
	소그룹으로 운영	62	30.0
	개인별로 운영	50	24.2
	상황에 따라 운영(대그룹, 소그룹, 개인별)	3	1.4
전체		207	100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시기로 적합한 연령을 묻는 문항에 관해 ‘유아기(만 3세~만 5세)’ 라는 응답이 132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아기(0세~만 2세)’ 72명(34.8%), ‘아동기(초등학교 시기)’ 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를 묻는 문항에 관해 ‘주 2회’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106명(51.2%)으로 과반수의 유아교사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 1회’ 54명(26.1%), ‘주 3회 이상’ 36명(17.4%), ‘수시로(상황에 따라)’ 10명(4.8%), ‘기타’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한 달에 2회’ 정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합한 활동 시간을 묻는 문항에 관해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라는 응답이 102명(49.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유놀이시간’ 52명(25.1%), ‘수시로(상황에 따라)’ 27명(13.0%), ‘대집단 시간’ 26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합한 집단 유형을 묻는 문항에 관해 ‘대그룹으로 운영’이 92명(4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그룹으로 운영’ 62명(30.0%), ‘개인별로 운영’ 50명(24.2%), ‘상황에 따라 운영(대그룹, 소그룹, 개인별)’ 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한 유아교사의 중복응답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묻는 문항의 중복응답 결과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04명(17.6%)이었으며, 다음으로 ‘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교육’ 99명(16.8%), ‘대화를 통한 공감교육’ 80명(13.5%), ‘극놀이활동을 활용한 공감교육’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3명(10.7%)이었다. 이러한 4가지 교수 방법에 대한 응답이 58.6%로 과반수의 유아교사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한 공감교육’ 47명(8.0%), ‘배려교육을 통한 공감교육’ 40명(6.8%), ‘협동활동을 통한 공감교육’ 36명(6.1%), ‘교사의 솔선수범’ 28명(4.7%), ‘동·식물 기르기를 통한 공감교육’ 27명(4.6%), ‘토의 활동을 통한 공감교육’ 21명(3.6%), ‘신체표현을 통한 공감교육’ 15명(2.5%),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교육’ 14명(2.4%), ‘미술을 통한 공감교육’ 10명(1.7%), ‘음악을 통한 공감교육’ 4명(0.7%), ‘영화를 통한 공감교육’ 2명(0.3%), ‘사진을 통한 공감교육’ 1명(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0.2%~8.0%로 응답률 간 비슷한 수치의 차이로 응답 간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수 방법 (N=207, 다중응답)

내용	n	%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104	17.6
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교육	99	16.8
대화를 통한 공감교육	80	13.5
극놀이활동을 활용한 공감교육	63	10.7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통한 공감교육	47	8.0
배려교육을 통한 공감교육	40	6.8
협동활동을 통한 공감교육	36	6.1
교사의 솔선수범	28	4.7
동·식물 기르기를 통한 공감교육	27	4.6
토의 활동을 통한 공감교육	21	3.6
신체표현을 통한 공감교육	15	2.5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교육	14	2.4
미술을 통한 공감교육	10	1.7
음악을 통한 공감교육	4	0.7
영화를 통한 공감교육	2	0.3
사진을 통한 공감교육	1	0.2
전체	591	100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대한 유아교사의 중복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N=207, 다중응답)

내용	n	%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능력 발달	148	26.4
공감능력 향상	130	23.2
상호존중과 배려심 향상	120	21.4
갈등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향상	73	13.0
자아존중감 향상	68	12.1
따돌림 등의 사회적 폭력 예방	22	3.9
전체	561	100

표 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묻는 문항의 중복응답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능력 발달’로 148명(26.4%)의 유아교사들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공감능력 향상’ 130명(23.2%), ‘상호존중과 배려심 향상’ 120명 (21.4%), ‘갈등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향상’ 73명(13.0%), ‘자아존중감 향상’ 68명(12.1%), ‘따돌림 등의 사회적 폭력 예방’ 22명(3.9%) 순으로 나타났다.

#### (5)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시사점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운영 실태와 요구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과 이를 반영한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 공감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아 공감교육 활동 선정 기준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선정한다는 응답과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하다가 관련 활동으로 선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미루어볼 때, 체계적인 유아 공감교육이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유아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안내 지침서 및 체계적인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현장 적용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현장 적용이 용이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아교사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유아교사들은 공감 주제로 친구와 가족뿐만 아니라 동·식물, 장애인, 다문화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시 공감 주제로 친구, 가족, 동·식물, 장애인, 다문화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적합한 시기로 만 3세~만 5세 유아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주 2회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대그룹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유아교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들은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 방법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통합적 예술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교육, 대화를 통한 공감교육, 극놀이활동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 시 교사의 요구를 바탕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 방법을 설정하고 그림책 및 대화 그리고 극놀이를 포함한 통합적 예술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주 2회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대그룹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유아교사들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발달 및 공감능력 향상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사의 기대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사들의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와

요구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시안 개발

#### 1) 목적 및 목표 설정

유아 공감교육은 유아의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감의 개념과 방법을 배우고 이해하며 경험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하며(박성희, 이동렬, 2003), 유아의 발달적 변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활동을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이기숙, 강숙현, 2012).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기분과 경험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임을(Ehrlich & Ornstein, 2010) 감안하여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목적 및 목표로는 감정 조절 및 감정 이해, 이해한 내용 표현하기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을 위하여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 Gordon, 2005/2010), 공감 기반 사회성·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김견미, 2014; 김나원, 2014; 김연희, 2015; 임영숙, 2018),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나혜선, 2016),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순철, 2019)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적용점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목적 및 목표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목적 및 목표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강경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불어 사는 능력과 태도 증진하기</li> <li>-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기</li> <li>-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li> <li>-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소통 능력 기르기</li> <li>-더불어 사는 능력과 협력하는 태도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중하기</li> <li>▶ 타인 이해하기</li> <li>▶ 감정 조절하기</li> <li>▶ 소통 능력 기르기</li> <li>▶ 협력 태도 기르기</li> </ul>
	장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고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또래 유능성 증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이해하기</li> <li>▶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 또래 유능성 증진하기</li> </ul>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증진시켜 사회적 관계 기초 형성하기</li> <li>-자신의 감정 조절하기</li> <li>-타인의 감정 이해를 통해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공감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신장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조절하기</li> <li>▶ 감정 이해하기</li> <li>▶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 공감 표현하기</li> <li>▶ 소통 능력 기르기</li> </ul>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불어 사는 능력 함양 및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증진하기</li> <li>-타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태도 증진하기</li> <li>-더불어 사는 능력과 핵심적인 가치, 덕목 증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 존중하는 태도 증진하기</li> <li>▶ 소통 능력 기르기</li> </ul>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증진을 통한 사회성 발달하기</li> <li>-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및 자아존중감 증진하기</li> <li>-자신과 타인의 마음현상 이해와 조망능력 증진하기</li> <li>-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증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성 발달하기</li> <li>▶ 자아존중감 기르기</li> <li>▶ 조망능력 증진하기</li> <li>▶ 공감 표현하기</li> <li>▶ 소통 능력 기르기</li> </ul>
	Gordon (2005/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을 증진시켜 감성적 능력 증가시키기</li> <li>-감성적 이해 개발하기</li> <li>-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적 능력 기르기</li> <li>▶ 감성적 이해 기르기</li> <li>▶ 친사회적 행동 증진하기</li> </ul>
공감 기반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김건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향상하기</li> <li>-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li> <li>-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 기르기</li> <li>▶ 감정 이해하기</li> <li>▶ 존중하기</li> </ul>
	김나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증진하기</li> <li>-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정서지능 증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 증진하기</li> <li>▶ 친사회적 행동 증진하기</li> <li>▶ 정서지능 증진하기</li> </ul>
	김연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태도 기르기</li> <li>-자신의 감정 조절하고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li> <li>-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기</li> <li>-타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조절하기</li> <li>▶ 타인 이해하기</li> <li>▶ 존중하기</li> <li>▶ 이타적으로 표현하기</li> </ul>

구분	연구자	목적 및 목표	적용점
공감 기반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임영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 기르기</li> <li>-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 기르기</li> <li>-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소통하는 능력 기르기</li> <li>-협력하는 태도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 이해하기</li> <li>▶ 감정 조절하기</li> <li>▶ 소통 능력 기르기</li> <li>▶ 협력 태도 기르기</li> </ul>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나혜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려적 지식, 기술, 태도 증진하기</li> <li>-타인을 이해하며 이해한 바를 표현하기</li> <li>-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기</li> <li>-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 태도 기르기</li> <li>▶ 타인 이해하기</li> <li>▶ 정서 조절하기</li> </ul>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김유나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 증진하기</li> <li>-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 증진하기</li> <li>-공감하는 능력 형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지능 증진하기</li> <li>▶ 공감능력 증진하기</li> </ul>
예술 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박순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소통 능력 촉진하여 미래사회 인재 소양 갖추기</li> <li>-예술통합활동으로 표현하고 결과 공유하며 소통하기</li> <li>-감정을 이해하고 공감능력 증진시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 능력 증진하기</li> <li>▶ 통합예술활동 표현하기</li> <li>▶ 감정 이해하기</li> <li>▶ 공감능력 증진하기</li> </ul>
예술 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박순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기본 태도 갖추기</li> <li>-다문화 감수성 기르기</li> <li>-자아존중감과 친사회성 증진하기</li> <li>-문화다양성의 보호와 공존을 위하여 소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중하기</li> <li>▶ 친사회성 증진하기</li> <li>▶ 소통하기</li> </ul>



도출된 목적 및 목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li> <li>■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li> <li>■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li> </ul>

공감교육과 관련된 문헌에서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면, 강경희(2019)는 더불어 사는 능력과 태도 증진을 목적으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

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소통 능력 기르기’, ‘더불어 사는 능력과 협력하는 태도 기르기’ 라는 교육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2015)가 개발한 순환적 공감모형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태도 기르기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기’,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표현하기’ 를 교육 목표로 개발하였다. 임영숙(2018)의 공감적 이해에 기초한 유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도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 기르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소통하는 능력 기르기’, ‘협력하는 태도 기르기’ 를 교육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나혜선(2016)이 개발한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배려교육 프로그램은 배려적 지식, 기술, 태도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며 이해한 바를 표현하기’,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기’,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하기’ 를 교육 목표로 개발하였다. 이처럼 강경희(2019), 김연희(2015), 임영숙(2018)의 연구 모두 더불어 사는 능력과 태도 기르기를 교육 목적에 포함하고 있으며, 나혜선(2016)의 연구를 포함한 네 연구 모두 교육 목표로 감정 조절, 타인이해 등의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술 발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미영(2022)의 어포던스 기반 놀이 중심 유아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은 공감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적 관계 기초를 형성하기이며, 교육 목표는 ‘자신의 감정 조절하기’, ‘타인의 감정 이해를 통해 공감능력 증진하기’, ‘공감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신장하기’ 다. 강은희(2019)의 프로그램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능력 증진하기를 교육 목표로 포함하고 있어 감정 이해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견미(2014) 역시 감정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Gordon(2005/2010)과 김나

원(2014)은 교육 목적 또는 교육 목표로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미영(2022)을 포함한 그 외 선행연구들(안미인, 2022, 정하나, 2015)에서도 연구의 교육 목표로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헌에서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면, 김유나(2023)가 개발한 전통놀이를 활용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정서지능과 창의적 인성 증진하기’, ‘공감하는 능력 형성하기’ 라는 교육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김유진(2022)의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예술통합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사회적 소통 능력을 촉진하여 미래사회 인재 소양 갖추기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예술통합활동으로 표현하고 결과 공유하며 소통하기’,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능력 증진시키기’ 를 교육 목표로 개발하였다. 박순철(2019)의 통합문화예술놀이에 기반한 유아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은 타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기본 태도 갖추기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다문화 감수성 기르기’,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성 증진하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공존을 위하여 소통하기’ 를 교육 목표로 개발하였다. 이처럼 김유나(2023), 김유진(2022), 박순철(2019)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 목적 또는 교육 목표에 공감능력, 사회적 소통 능력, 친사회성 증진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기술 발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유나(2023), 김유진(2022)의 연구에서 교육 목적으로 예술통합활동으로 표현하기를 포함하고 있어 예술통합활동의 경험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출된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면 공감교육 관련 문헌에서 공통으로 감정 조절, 타인이해, 감

정 이해,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기, 공감능력, 사회적 소통 능력, 친사회성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합적 예술교육 관련 문헌에서는 사회적 기술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 목적 및 목표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주(2002)와 홍화진(1987)은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김연희(2015)와 신미영(2022)은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고, 이영석, 이세나(2000)는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아울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대두되고 있으며(김은하, 2017),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의 질적 수준과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이유진, 2016), 이 같은 공감 및 의사소통, 친사회적 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은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교육 목적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공감자가 상대방의 감정, 상황을 인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공감으로 무시, 증폭, 왜곡 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박성희, 2004) 정확하고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려면 타인의 감정이 어떠한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 속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현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며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 형성에 목적을 두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아울러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도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보았다(인성교육진흥법, 2020). 이처럼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는 유아교육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필요하다.

세 번째 목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유아들이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허애수, 2003). 즉,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경험은 유아들 간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주어 친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강상 외, 2013; 박은영 외, 2012; 지민경, 2011). 따라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 2) 교육 내용 설정

교육 내용은 유아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적 가치가 내포되도록 선정해야 한다(정진화, 2017).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하여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김미정, 2011; 김창순, 2013;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우지연, 2017; 정하나, 2015; 조수연, 2017; Gordon, 2005/2010; Howe, 2012/2013), 공감 기반 사회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임영숙, 2018)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적용점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육 내용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강경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적 공감: 자기조절, 자아존중, 타인 인식</li> <li>•정서적 공감: 감정이입, 정서 공유, 타인 감정 이해</li> <li>•표현적 공감: 관계 형성, 의사소통, 존중</li> <li>•사회·문화적 공감: 공감대 형성, 사회적 규칙 및 협력, 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자기조절, 자아존중, 타인 인식</li> <li>▶정서-감정이입, 정서공유, 감정 이해</li> <li>▶표현-관계 형성, 의사소통, 존중</li> <li>▶사회-공감대 형성, 문제 해결, 협력</li> </ul>
	강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적 공감능력 인식하고 공감하기</li> <li>•정서적 공감능력 느끼고 공감하기</li> <li>•의사소통적 공감 표현하고 공감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자인식</li> <li>▶정서-느낌</li> <li>▶소통-표현</li> </ul>
	김미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감정 이해하기</li> <li>•타인 감정 이해하기</li> <li>•돌봄과 배려하기</li> <li>•협력과 소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이해</li> <li>▶배려</li> <li>▶협력</li> <li>▶소통하기</li> </ul>
	김창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감정, 상황 이해하기</li> <li>•협력, 도움, 안전</li> <li>•자기 감정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이해</li> <li>▶협력, 도움</li> <li>▶감정표현</li> </ul>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적 공감: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li> <li>•정서적 공감: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li> <li>•표현·소통적 공감: 자신과 타인의 감정 표현 및 공유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인식, 이해</li> <li>▶정서</li> <li>▶소통-표현</li> </ul>

구분	연구자	교육 내용	적용점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적 공감: 공감적 주의 집중, 나를 알고 존중하기, 타인 수용, 타인 인식</li> <li>•정서적 공감: 타인 감정 이해, 감정이입, 정서 공유, 공감대 형성</li> <li>•사회적 공감: 존중·공감, 의사소통, 더불어 생활하기, 배려·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존중, 타인 인식, 타인 수용</li> <li>▶정서-감정이해, 정서 공유, 감정이입, 공감대 형성</li> <li>▶사회-존중, 공감, 배려, 협력, 의사소통</li> </ul>
	우지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표현: 자신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여 표현하기</li> <li>•경청: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며 소통을 촉진하기</li> <li>•반응: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전하기</li> <li>•문제해결: 상대방을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 교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인식</li> <li>▶소통</li> <li>▶감정이해</li> <li>▶공감</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적 공감: 자신과 타인의 마음 현상 인식하고 공감하기</li> <li>•정서적 공감: 자신과 타인의 마음 현상 느끼고 공감하기</li> <li>•소통적 공감: 자신과 타인의 마음 현상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인식</li> <li>▶정서-느낌</li> <li>▶소통-표현</li> </ul>
	조수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적 요소: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li> <li>•정서적 요소: 자신과 타인의 감정 느끼기</li> <li>•소통적 요소: 자신과 타인의 감정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감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인식</li> <li>▶정서-느낌</li> <li>▶소통-표현</li> </ul>
	Gordon (2005/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li> <li>•존중</li> <li>•관계 형성</li> <li>•공감대 형성</li> <li>•의견 조율</li> <li>•자신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li> <li>▶존중</li> <li>▶관계 형성</li> <li>▶공감대 형성</li> <li>▶의견 조율</li> <li>▶자신 인식</li> </ul>
	Howe (2012/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기</li> <li>•타인의 감정 인식하기</li> <li>•타인의 감정과 동기에 대한 인지적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인식</li> <li>▶인지적 이해</li> </ul>

구분	연구자	교육 내용	적용점
공감 기반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	임영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존중하기: 자아인식하기, 자신의 소중함 알기, 동기화하기</li> <li>• 타인 감정 이해하기: 조망 수용하기, 타인 정서 인식하기, 타인 감정 식별하기, 타인 정서 추론하기, 정서 대리 경험하기</li> <li>• 또래와 소통하기: 정서조절하기,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또래와 상호작용하기</li> <li>• 더불어 생활하기: 관계 형성하기, 협력하기, 사회적 규칙 지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존중, 자아인식</li> <li>▶ 감정이해, 조망수용, 타인인식, 정서 대리 경험</li> <li>▶ 소통, 정서조절, 언어·비언어적 표현</li> <li>▶ 관계 형성, 협력</li> </ul>
↓			
도출된 공감교육 내용			
		■ 인지적 공감	-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 상황 인식하고 이해하기
		■ 정서적 공감	-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공유하기
		■ 소통적 공감	-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

공감교육과 관련된 문헌에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공감의 구성요소는 학자들의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인지·정서가 복합된 복합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사회적 요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신미영, 2022). 그러나 공감의 구성요소를 크게 세 개의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감정을 이해하는 의미로 인지적 공감, 감정을 느끼는 의미로 정서적 공감, 언어와 비언어로 표현하는 의미로 소통적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선경, 2016; 허순향, 남승규, 2019). 공감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이 교육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선행연구(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정하나, 2015; 조수연, 2017)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공감의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육 내용으로는 공감의 구성요소 및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수연(2017)은 인지적

요소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정서적 요소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 느끼기, 소통적 요소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감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하나(2015)는 인지적 공감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 현상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정서적 공감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 현상을 느끼고 공감하기, 소통적 공감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 현상을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강은희(2019)는 인지적 공감능력에서는 인식하고 공감하기, 정서적 공감능력에서는 느끼고 공감하기,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에서는 표현하고 공감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조수연(2017), 정하나(2015), 강은희(2019) 모두 인지적 공감은 인식, 정서적 공감은 느낌, 소통적 공감은 표현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미인(2022)은 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명화 활용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공감에서는 공감적 주의 집중, 나를 알고 존중하기, 타인 수용, 타인 인식하기, 정서적 공감에서는 타인 감정 이해, 감정이입, 정서 공유, 공감대 형성하기, 사회적 공감에서는 존중·공감, 의사소통, 더불어 생활하기 배려·협력을 포함하였다. 또한, 강경희(2019)는 인지적 공감에서는 자기조절, 자아존중, 타인 인식하기, 정서적 공감에서는 감정이입, 정서 공유, 타인 감정 이해하기, 표현적 공감에서는 관계 형성, 의사소통, 존중하기, 사회·문화적 공감에서는 공감대 형성, 사회적 규칙 및 협력, 문제 해결하기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안미인(2022)과 강경희(2019) 모두 인지적 공감에서 타인 인식, 정서적 공감에서는 감정이입, 정서 공유, 소통적 공감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선행연구들(김미정, 2011; 김창순, 2014; 우지연, 2017; 임영숙, 2018)에서 인지적 공감으로 감정 이해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의 선행연구(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김미정, 2011; 김창순,

2013;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우지연, 2017; 정하나, 2015; 조수연, 2017; Gordon, 2005/2010; 임영숙, 2018)에서 소통적 공감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공감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며 이는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성희, 2014; Howe, 2012/2013). 따라서 자기 공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역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문헌분석 결과 교육 내용으로 설정된 것을 종합하면 ‘인지적 공감’은 타인 인식, 자신 인식, 감정 이해하기, ‘정서적 공감’은 감정입, 정서 공유, 정서 대리 경험하기, ‘소통적 공감’은 의사소통, 감정 표현하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공감’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 상황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선정하였으며, 유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여러 상황을 탐색하고 유아 자신이 인지하는 상황과 더불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정서적 공감’에서는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공유하기’를 선정하였으며, 유아 자신이 느끼는 감정 및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감정이입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감정을 공유하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소통적 공감’의 내용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를 선정하였으며, 유아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관해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아가 인식하고 느끼며 이해하게 된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또래와 함께 감상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또래가 공감한 내용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3) 교수-학습 방법 설정

교수-학습 방법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교육 내용을 유아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의미한다(나정숙, 2017).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공감교육’,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유아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적용점을 추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전략, 교사의 역할, 교수-학습 자료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1)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원리는 본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교육 내용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아들의 배움을 증진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말한다(조수연, 2008). 따라서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 원리로는 유아들의 흥미와 공감능력 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 설정을 위해서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반신환, 2010; 신

미영, 2022; 안미인, 2022; 윤석미, 2011; 이은진, 2021),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박선영, 2013; 이경혜, 2019),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안지영, 2013), 예술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시영, 2022)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적용점은 표 20과 같다.

<표 20> 교수-학습 원리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원리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반신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상의 원리</li> <li>•모방의 원리</li> <li>•정황수용의 원리</li> <li>•탈중심화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상의 원리</li> <li>▶상황수용의 원리</li> <li>▶탈중심화의 원리</li> </ul>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및 상황이해의 원리</li> <li>•감정인식의 원리</li> <li>•협력적 소통의 원리</li> <li>•공감실천의 원리</li> <li>•놀이 중심의 원리</li> <li>•흥미 중심의 원리</li> <li>•상호작용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수용의 원리</li> <li>▶감정인식의 원리</li> <li>▶협력적 소통의 원리</li> <li>▶공감실천의 원리</li> <li>▶놀이 중심의 원리</li> <li>▶흥미 중심의 원리</li> <li>▶상호작용의 원리</li> </ul>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흥미 중심의 원리</li> <li>•동기유발의 원리</li> <li>•공감적 소통의 원리</li> <li>•상호작용의 원리</li> <li>•확장·실천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흥미 중심의 원리</li> <li>▶동기유발의 원리</li> <li>▶공감적 소통의 원리</li> <li>▶상호작용의 원리</li> <li>▶실천의 원리</li> </ul>
	윤석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지향적 원리</li> <li>•지·정·행 통합의 원리</li> <li>•공감대상 확대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 대상 확대의 원리</li> </ul>
	이은진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방을 통한 이해의 원리</li> <li>•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li> <li>•실천을 통한 내면화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li> <li>▶실천을 통한 내면화의 원리</li> </ul>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원리	적용점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성의 원리</li> <li>•통합의 원리</li> <li>-지·덕·체</li> <li>-예술활동 내의 통합, 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생활주제 중심의 통합)</li> <li>•흥미의 원리</li> <li>•직접 경험의 원리</li> <li>•예술성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의 원리(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 흥미의 원리</li> <li>▶ 직접 경험의 원리</li> <li>▶ 예술성의 원리</li> </ul>
	고영미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의 원리</li> <li>-예술활동과 장르 간의 통합</li> <li>-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주제와의 통합</li> <li>•놀이 중심의 원리</li> <li>•협동 중심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의 원리(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 놀이 중심의 원리</li> <li>▶ 협력의 원리</li> </ul>
	박선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성의 원리</li> <li>•통합의 원리</li> <li>-자연의 예술적 요소를 예술활동과 통합</li> <li>-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예술매체 간의 통합</li> <li>•다양성의 원리</li> <li>•집단 역동성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의 원리(예술활동 간의 통합)</li> </ul>
	이경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 통합의 원리</li> <li>-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 활동과의 통합</li> <li>•창작 중심의 원리</li> <li>•협력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의 원리(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 협력의 원리</li> </ul>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안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의 원리</li> <li>-과학과 예술활동 간의 통합</li> <li>•흥미의 원리</li> <li>•자발성의 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의 원리</li> </ul>
예술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	이시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 중심의 원리</li> <li>•흥미 중심의 원리</li> <li>•예술체험의 원리</li> <li>•상호작용의 원리</li> <li>•통합의 원리</li> <li>-과거-현재-미래 경험의 통합</li> <li>-통일교육과 예술활동간의 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 중심의 원리</li> <li>▶ 흥미 중심의 원리</li> <li>▶ 예술체험의 원리</li> <li>▶ 상호작용의 원리</li> </ul>



도출된 교수-학습 원리		
공감교육		
▶ 상황수용의 원리	▶ 협력적 소통의 원리	⇒
▶ 흥미 중심의 원리	▶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통합적 예술교육		
▶ 통합의 원리	▶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반신환(2010)의 거울뉴런에 근거한 공감훈련의 원리는 공감대상에게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의 이해를 위한 상상의 원리, 공감대상의 행동을 모방하여 공감대상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모방의 원리, 공감대상의 정황을 알고 공감대상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정황수용의 원리, 유아가 자신과 공감대상의 감정을 구별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탈중심화 원리를 제시하였다. 신미영(2022)의 어포던스 기반 놀이 중심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는 대상 및 상황이해의 원리, 감정인식의 원리, 협력적 소통의 원리, 공감실천의 원리, 놀이 중심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안미인(2022)의 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명화 활용프로그램에서는 흥미 중심의 원리, 동기유발의 원리, 공감적 소통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확장·실천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윤석미(2011)는 초등 도덕과에서 공감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교수-학습 원리로 올바른 관계 증진을 위한 관계 지향적 원리, 사고를 바탕으로 감정을 느끼고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지·정·행 통합의 원리, 공감대상이 자신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장 가까운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인류, 지구촌으로 확대하여 공감교육에 포함하는 공감대상 확대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이은진(2021)의 뇌 기반 교육원리를 적용한 가정과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는 모방을 통한 이해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실천을 통한 내면화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박선영, 2013; 안지영, 2013; 이경혜, 2019; 이시영, 2022)를 분석하면, 자발성의 원리, 통합의 원리, 흥미의 원리, 직접 경험의 원리, 예술체험의 원리, 놀이 중심의 원리, 협동 중심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집단 역동성의 원리, 창작 중심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교수-학습 원리로서 공감교육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상황수용의 원리, 협력적 소통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가 도출되었고,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통합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는 표 21과 같다.

<표 21>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원리

구분	내용	특징
교수-학습 원리	상황수용의 원리	유아들이 공감대상의 상황을 수용하여 공감대상의 감정, 생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이해를 증진하도록 함
	협력적 소통의 원리	유아들이 공감대상에 관해 공감한 내용을 또래와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하여 공감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감대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과 비전에 관해 또래와 소통함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유아들이 공감대상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상을 바탕으로 유추하거나 판단하는 추론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흥미 중심의 원리	유아들이 흥미롭게 공감활동에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고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통합의 원리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예술활동 간의 통합적 예술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탐색, 표현, 감상의 경험을 포함함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주제를 유아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이웃·장애·다문화), 지구촌, 동물·환경으로 확장하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

자료: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음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선정된 교수-학습 원리는 상황수용의 원리, 협력적 소통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통합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수용의 원리는 적절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감대상의 상황을 알고 공감대상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강송희, 2024; 반신환, 2010; 신미영, 2022). 공감대상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감대상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공감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공감대상의 상황을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질문하기를 통해 공감대상의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적 소통의 원리는 공감대상에 관해 유아들이 공감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또래들과 공감한 내용에 관해 함께 나누는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하여 또래가 공감한 내용에 관해 생각해 보고 공감의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공감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신미영, 2022). 아울러 공감대상에 대한 유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공감대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과 비전에 관해 또래와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며(박순철, 2019), 이외에도 문제 상황의 극복을 위한 여러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염연정, 2009). 따라서 교사는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충분한 소통이 유아 상호 간에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는 진정한 공감을 위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마치~인 것처럼(as if)’ 상상하며 추론하는 경험을 의미한다(박은

경, 2017; 이은진, 최새은, 2021). 사람은 상상을 통해 타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관해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능력을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다(김향숙, 2007).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을 바탕으로 유추하거나 판단하는 추론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박은경, 2017). 시각 자료는 유아들의 상상력을 통한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매체로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권헌숙, 2016).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공감대상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그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 영상, 사진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상상을 통한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흥미 중심의 원리는 활동의 시작부터 마무리의 과정까지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흥미는 유아가 어떠한 활동에 몰입하게 하는데 근원이 되어 유아들이 무언가 알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곽향림, 2015). 교사는 유아들에게 주제와 연계된 그림책 및 그림책 관련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여 활동에 대한 관심, 흥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김유진, 2022). 따라서 유아들이 흥미롭게 공감활동에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고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흥미 중심의 원리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통합의 원리는 문학, 영화, 극놀이영상 제작, 신체표현, 사진, 미술, 음악 등의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예술활동 간의 통합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박선영, 2013; 이경혜, 2019).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을 탐색하며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고, 표현된 작품은 또래와 감상하며 소통하는 탐색, 표현, 감상의 경험을 포함한다(김혜원, 김은경, 2017; 손지민, 2023; 안진아,

2003). 유아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취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이 같은 통합의 경험은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넓혀 나갈 수 있다(박형신, 2020). 따라서 유아기 공감능력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통합의 원리를 포함하여 공감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유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유의미하게 확장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는 공감 주제나 공감대상을 유아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자신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 국가, 세계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로 대상을 확대하여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윤석미, 2011; Gordon, 2005/2010). 또한, 공감 교육 활동을 구성할 때는 학습자가 익숙하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며, 낯설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일상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차윤아, 2022). 본 연구에서 유아 공감교육 실태와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아 공감교육에 적합한 공감 주제가 유아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장애인, 동·식물, 다문화까지 모든 대상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이웃, 지역사회, 국가, 지구촌의 문제에 관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 주제를 유아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이웃·장애·다문화), 지구촌, 동물·환경으로 확장하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를 포함하였다.

## (2) 교수-학습 과정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배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발달적 특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이정애, 2016). 따라서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으로는 유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강경희, 2019;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 Barrett-Lennard, 1981), 공감 기반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김견미, 2014; 김연희, 2015; 임영숙, 2018),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나혜선, 2016),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강은영, 2013; 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이은영, 이수경, 2019; 임현희, 2018), 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진, 2017)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선월, 2012)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교수-학습 과정과 적용점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교수-학습 과정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과정	적용점
	강경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상황 분석하기</li> <li>•전개: 생각 열기, 감정 표현하기, 나누기</li> <li>•마무리: 정리 및 평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상황 분석</li> <li>▶전개: 감정 표현</li> <li>▶마무리: 평가</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김정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감정인식 및 발견하기</li> <li>•2단계: 타인의 감정 이해 및 공감하기</li> <li>•3단계: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li> <li>•4단계: 감정 소통 및 해결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감정인식, 발견</li> <li>▶2단계: 감정 이해, 공감</li> <li>▶3단계: 감정 표현</li> <li>▶4단계: 소통, 해결</li> </ul>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공감놀이와 상황 경험하기</li> <li>•2단계: 경험 나누기</li> <li>•3단계: 공감대상의 감정 들여다보기</li> <li>•4단계: 공감의 가치 실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공감 상황 경험</li> <li>▶2단계: 감정 관찰, 경험 나눔</li> <li>▶4단계: 공감 실천</li> </ul>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과정	적용점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공감요소 인식</li> <li>•2단계: 공감적 사고</li> <li>•3단계: 공감적 소통·확장</li> <li>•4단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공감 인식</li> <li>▶2단계: 공감적 사고</li> <li>▶4단계: 소통, 평가</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자아 공감 인식</li> <li>•2단계: 대인 공감 조망</li> <li>•3단계: 공감의 소통</li> <li>•4단계: 공감의 순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공감 인식</li> <li>▶2단계: 공감 조망</li> <li>▶4단계: 공감 소통, 순환</li> </ul>
	Barrett - Lennard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공감적 주의 집중</li> <li>•2단계: 공감적 공명</li> <li>•3단계: 표현적 공감</li> <li>•4단계: 지각된 공감</li> <li>•5단계: 공감의 순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주의 집중</li> <li>▶2단계: 공감적 공명</li> <li>▶3단계: 표현적 공감</li> <li>▶4단계: 지각된 공감, 순환</li> </ul>
	김견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공감 이야기로 열기</li> <li>•전개: 공감 나누기</li> <li>•마무리: 공감 들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공감 이야기</li> <li>▶전개: 공감 나눔</li> <li>▶마무리: 소통</li> </ul>
공감 기반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김연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타인에게 관심 갖기</li> <li>•2단계: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li> <li>•3단계: 공감 표현하기</li> <li>•4단계: 표현된 공감 알아차리기</li> <li>•5단계: 공감 주고받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타인 관심</li> <li>▶2단계: 감정 이해</li> <li>▶3단계: 공감 표현</li> <li>▶4단계: 공감 소통</li> </ul>
	임영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인물 탐색하기</li> <li>•2단계: 감정 공감하여 이해하기</li> <li>•3단계: 인물의 정서 표현하기</li> <li>•4단계: 역할 수행하기</li> <li>•5단계: 또래와 상호작용하기</li> <li>•6단계: 또래와 협력하고 실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탐색</li> <li>▶2단계: 감정 이해</li> <li>▶3단계: 역할 수행, 정서표현, 협력</li> <li>▶4단계: 소통, 실천</li> </ul>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나혜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배려상황 인식하기</li> <li>•2단계: 배려요소 탐색하기</li> <li>•3단계: 배려방법 탐구하기</li> <li>•4단계: 배려실천 가정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상황 인식</li> <li>▶2단계: 요소 탐색</li> <li>▶3단계: 방법 탐구</li> </ul>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문화 예술적 재료에 대한 탐색</li> <li>•전개: 통합적 예술 표현</li> <li>•마무리: 소통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개: 통합적 예술 표현</li> <li>▶마무리: 소통, 평가</li> </ul>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과정	적용점
	김유나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동기부여</li> <li>•2단계: 중심내용</li> <li>•3단계: 심리적 긴장풀기</li> <li>•4단계: 창의적 표현하기</li> <li>•5단계: 마무리 및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동기부여</li> <li>▶3단계: 창의적 표현하기</li> <li>▶4단계: 평가</li> </ul>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김유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탐색하고 발견하기</li> <li>•2단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li> <li>•3단계: 예술적, 창의적 표현하기</li> <li>•4단계: 공유하기와 소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탐색, 발견</li> <li>▶3단계: 예술적, 창의적 표현</li> <li>▶4단계: 공유, 소통</li> </ul>
	이은영, 이수경,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탐색하기</li> <li>•전개: 몰입하기 및 표현하기</li> <li>•마무리: 공유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탐색</li> <li>▶전개: 표현</li> <li>▶마무리: 공유</li> </ul>
	임현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관찰과 탐색하기</li> <li>•전개: 통합적 예술 표현하기</li> <li>•마무리: 소통과 평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관찰, 탐색</li> <li>▶전개: 통합적 예술 표현</li> <li>▶마무리: 소통, 평가</li> </ul>
예술 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지각하기</li> <li>•2단계: 공유하기</li> <li>•3단계: 표현하기</li> <li>•4단계: 회상 및 평가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지각</li> <li>▶3단계: 표현</li> <li>▶4단계: 공유, 평가</li> </ul>
미술교육 프로그램	김선월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인식하기</li> <li>•2단계: 탐색하기</li> <li>•3단계: 표현하기</li> <li>•4단계: 감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인식</li> <li>▶2단계: 탐색</li> <li>▶3단계: 표현</li> <li>▶4단계: 감상</li> </ul>



도출된 교수-학습 과정			
공감교육		통합적 예술교육	
단계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단계별 활동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요소 탐색하기</li> <li>▶공감대상 탐색하기</li> </ul>	1단계	▶동기부여하기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 인식하기</li> <li>▶감정 인식하기</li> <li>▶감정 이해하기</li> </ul>	2단계	▶탐색하기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 표현하기</li> <li>▶공감적 소통하기</li> </ul>	3단계	▶통합적 예술 표현하기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 평가하기</li> <li>▶공감 실천하기</li> </ul>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상하기</li> <li>▶소통하고 공유하기</li> <li>▶회상 및 평가하기</li> </ul>



단계	교수-학습 과정	단계별 활동 내용
1단계	공감요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부여하기</li> <li>■ 공감 관련 요소 탐색하기</li> </ul>
2단계	공감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대상의 감정과 상황 인식하기</li> </ul>
3단계	공감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 표현하기</li> </ul>
4단계	공감적 감상·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한 내용을 감상하고 소통하며 실천하기</li> </ul>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정아(2019)는 그림책에 기초한 감정 코칭 중심의 공감교육 활동에서 공감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그림책을 교수 매체로 활용하여 1단계에서 그림책을 감상하고, 2단계에서는 등장인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3단계에서 신체표현, 극놀이, 미술, 음악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4단계에서 또래와 공유하며 평가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교수-학습 과정을 실시하였다. 신미영(2022)은 그림책, 뉴스, 공익광고 포스터, 영상, 사진 자료, 인터뷰 기사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상의 상황과 마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책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뉴스 제작하기, 캠페인 참여하기, 인형극 공연하기, 캠페인 송 만들기 활동을 통해 공감대상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공감의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을 거쳐 생각을 정리하고 연관 활동을 계획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들(강경희, 2019; 김견미, 2014; 김연희, 2015; 나혜선, 2016; 안미인, 2022; 임영숙, 2018)의 교수-학습 과정을 분석해 보면 유아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매체(그림책, 영상, 가상의 이야기, 영화)를 유아에게 제시하여 공감 관련 경험 및 주제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연관된 공감·사회성·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활동에 대한 공유 및 평가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단계별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1단계에서는 상황 인식하기, 감정 인식하기, 공감대상 탐색하기, 2단계에서는 공감요소 탐색하기,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3단계에서는 공감 표현하기, 4단계에서는 공

감적 소통하기, 공감 평가하기, 공감 실천하기로 구성하고 있었다.

강은영(2013)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도입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활동에 관해 관심과 흥미,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었고, 문화예술 영역(문학, 미술, 음악, 신체표현, 동극, 영화, 사진)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유아들이 즐기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실행했으며, 표현한 결과물을 또래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평가하는 교수-학습 과정을 실시하였다. 김유진(2022)은 상호작용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예술적, 지적 요소를 탐색하고, 통합적 예술활동을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본 후, 자신과 또래의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소통하며 타인을 공감하는 교수-학습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진(2017)은 문학(그림책), 음악, 미술, 영상, 사진 등 매체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활동에 관한 관심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매체를 통해 느낀 유아 자신의 여러 생각이나 감정을 동시 짓기, 음악 창작하기, 미술 활동, 악기 연주 등으로 표현해 보는 단계를 거쳐 활동을 회상하며 평가하는 교수-학습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들(김유나, 2023; 김선월, 2012; 이은영, 이수경, 2019; 임현희, 2018)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유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 매체(영화, 그림책)를 활용하거나 탐색하기 및 이야기 나누기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통합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활동에 관해 소통하고 공유하며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단계별 활동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1단계에서는 동기부여하기, 2단계에서는 탐색하기, 3단계에서는 통합적 예술 표현하기, 4단계에서는 감상하기, 소통하고 공유하기, 회상 및 평가하기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찾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하였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김정아(2019)는 1단계 그림책 감상하기, 2단계 이야기 나누기, 3단계 감정 표현하기, 4단계 공유하고 평가하기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양한 매체 자료를 탐색하고 공감대상을 들여다보며 공감대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본 후, 또래와 감상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하였다.

둘째, 1단계로 공감요소 탐색 단계이다. 1단계는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유아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김유진, 2022)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감요소 탐색 단계에서 교사는 공감요소가 포함된 여러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유아들은 이 자료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탐색하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공감요소 탐색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유아들이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공감요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2단계로 공감상황 인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매체 자료로 제시된 상황과 관련된 경험이나 느낌을 나누며 유아들이 공감대상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유아들은 공감대상에 관해 이야기하며,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공감상황 인식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유아 자신 및 공감대상의 감정과 상황을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3단계로 공감표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공감대상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경험을 포함하였다. 특히, 공감표현 단계에서는 유아가 자신 및 공감대상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4단계로 공감적 감상·소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공감을 표현한 자신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포함하였다. 유아들은 각각의 공감활동을 마친 후, 또래에게 공감한 내용이 담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활동에 대한 평가로 활동을 수행해 본 느낌과 활동하기 전과 후의 달라진 점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다른 또래의 생각을 함께 나눔으로써 또래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험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와는 다른 또래의 공감표현 방법도 알아볼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은 지속적으로 감상하며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감적 감상·소통 단계는 유아들이 공감을 표현한 자신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공감한 내용에 관해 소통·공유하고 이를 평가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가 실행하는 효과적인 수업 행동을 포함하여(강혜경, 2017), 유아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하며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 공감요소와 연계될 수 있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활동 구성을 위하여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권유선, 최혜진, 2013; 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김은아, 2014; 민경훈, 2007; 박선영, 2013; 변윤희, 2004; 성순임, 2016; 윤혜정, 2020; 이경혜, 2019; 이슬, 2015; 이은경, 2017a; 이은영 외, 2016; 이은영, 이수경, 2019; 임

현희, 2018),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예원, 2015; 안지영, 2013), 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진, 2017)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활동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활동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적용점 및 시사점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교수-학습 활동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활동	적용점 및 시사점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은영 (2013)	•문학, 미술, 음악, 신체표현, 동극, 영화, 사진	▶극놀이 경험은 동화 속 인물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 타인 인식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극놀이 구상하기 ▶영화, 사진
	고영미 외 (2016)	•미술, 음악, 춤, 극놀이	▶미술, 음악, 신체, 극놀이
	권유선, 최혜진 (2013)	•음악, 미술, 동작	▶협동활동을 통해 또래와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협동활동 계획하기
	김유나 (2023)	•언어, 신체, 미술, 음악, 조형, 문학, 극놀이, 사진	▶다양한 예술활동의 경험을 위하여 사진 활동 구상하기
	김유진 (2022)	•음악, 미술, 신체표현, 극놀이, 문학, 언어, 과학, 수학, 영상, 사진	▶음악, 미술, 신체표현, 극놀이, 문학, 영상, 사진
	김은아 (2014)	•언어, 음악, 미술, 신체	▶명화 속 등장인물의 정서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유아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서 인식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므로 명화 관련 활동 구상하기
	민경훈 (2007)	•음악, 미술, 무용, 미디어, 독서, 애니메이션, 연극	▶다채로운 예술활동의 경험을 위하여 애니메이션 관련 활동 구상하기
	박선영 (2013)	•음악, 미술, 문학(동시, 동화), 신체표현, 극놀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풍부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활동 실행하기
	변윤희 (2004)	•문학, 언어, 미술, 음악, 신체표현	▶문학, 미술, 음악, 신체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활동	적용점 및 시사점
	성순임 (2016)	•음악, 문학, 미술, 신체 표현, 극놀이	▶ 문학적 상상력의 맥락에서 동화, 영화, 사진, 그림 속 등장하는 주인공은 유아들의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므로 감수성 발전에 자극이 되는 동화, 영화, 영상, 사진, 그림 관련 활동 구상하기
	윤혜정 (2020)	•문학, 미술, 신체표현, 요리, 동극, 인형극	▶ 문학, 미술, 신체, 극놀이, 인형극
	이경혜 (2019)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문학	▶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진, 영상을 통한 관련 활동 계획하기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 슬 (2015)	•미술, 문학, 극놀이, 음악	▶ 다양한 예술활동의 경험을 위하여 노래를 개사해 보는 활동 구상하기
	이은경 (2017a)	•미술, 음악, 신체, 극놀이	▶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게 되면서 공감능력이 향상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문학 및 예술작품 관련 활동 구상하기
	이은영 외 (2016)	•미술, 음악, 신체표현, 극놀이	▶ 작가 또는 작품 속 상황 및 인물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화 관련 활동 계획하기
	이은영, 이수경 (2019)	명화, 그림책, 이야기 나누기, 표현활동	
	임현희 (2018)	•음악, 문학, 미술, 극놀이, 신체표현	▶ 폭넓은 공감대상을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사진을 활용한 활동 구상하기
예술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박예원 (2015)	•음악, 미술, 신체표현, 극놀이, 과학	▶ 유아들이 실제와 유사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료를 통한 예술활동 실행하기
	안지영 (2013)	•과학, 미술, 신체표현, 음악, 극놀이	▶ 또래와 협력하는 협동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협동활동 기회 제공하기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활동	적용점 및 시사점
예술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진 (2017)	•동화, 동시, 음악(악기· 감상·창작), 영상 제작, 미술, 이야기 나누기	▶다양한 예술활동의 경험을 위하 여 동시 짓기 및 영상 제작 활동 구상하기
↓			
도출된 교수-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그림책, 동시)활동</li> <li>■ 영화(애니메이션)활동</li> <li>■ 극놀이영상 제작 및 인형극활동</li> <li>■ 신체표현활동</li> <li>■ 사진활동</li> <li>■ 미술(명화)활동</li> <li>■ 음악활동</li> </ul>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강은영(2013)의 유아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활동은 문학, 미술, 음악, 신체표현, 동극, 영화,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유진(2022)의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통합교육활동에서는 음악, 미술, 신체표현, 극놀이, 문학, 언어, 과학, 수학, 영상,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이은영, 이수경(2019)의 명화감상과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예술활동에서는 명화, 그림책, 이야기 나누기, 표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진(2017)의 예술 기반 다문화 교육 활동에서는 동화, 동시, 음악(악기·감상·창작), 영상 제작, 미술, 이야기 나누기로 구성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들(고영미 외, 2016; 권유선, 최혜진, 2013; 김유나, 2023; 김은아, 2014; 민경훈, 2007; 박선영, 2013; 박예원, 2015; 변윤희, 2004; 성순임, 2016; 안지영, 2013; 윤혜정, 2020; 이경혜, 2019; 이슬, 2015; 이은경, 2017a; 이은영 외, 2016; 임현희, 2018)에서도 미술, 음악, 동작, 극놀이, 조형, 언어, 신체, 문학, 사진, 애니메이션, 이야기 나누기, 산책, 조작, 음률, 요리, 인형극, 과학 등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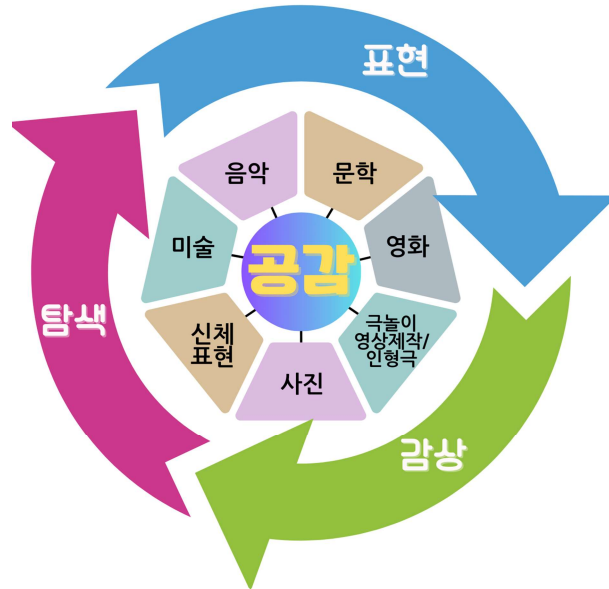
이외에도 선행연구(김은아, 2014; 박선영, 2013; 박예원, 2015; 성순임,

2016; 이은경, 2017a)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유아들이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간접 경험들을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타인의 관점과 상황에 관해 생각해 보며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책 뿐만 아니라 영화, 영상, 사진, 명화를 제시하고 관련 활동의 기회를 계획하였다. 권유선과 최혜진(2013) 및 안지영(2013)은 유아들이 협동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경험은 사회성이나 정서 수용능력에 효과적임을 밝혀, 또래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이 공감능력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점 또한 반영하여 협동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교수-학습 활동은 문학, 동화, 동시, 그림책,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극놀이, 인형극, 신체표현, 사진, 영상, 미술, 명화, 음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유아반 담임교사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교육, 대화를 통한 공감교육, 극놀이활동을 활용한 공감교육 등 4가지 교수 방법에 대한 과반수의 유아교사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 및 인형극활동, 신체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과 같은 예술활동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선정하였으며, 공감요소와 연계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에 대한 감정과 공감을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최종 선정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활동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활동

### ① 문학활동

문학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표현된 언어 양상의 한 분야이며, 문학활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적 활동을 말한다(서정숙, 남규, 2005). 본 연구에서의 문학은 그림책을 감상하고, 그림책 내용에 대한 유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다채로운 간접 경험을 제공해 주며, 그림책 속 공감대상의 감정을 예측하기도 하고 공감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상상해 보게 하거나 공감대상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는 등 유아에게 풍부한 상상과 표현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Mages, 2008).

활동유형으로는 그림책 감상하기, 그림책 듣고 난 후 내용 회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 나누기, 공감대상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공감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 짓기, 동시 낭송하

기, 공감대상의 어려움을 전하는 뉴스 제작하기, 공감대상을 생각하며 병풍책 만들기와 같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문학활동은 유아가 해당 주제의 그림책을 감상하고 공감대상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적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공감의 내용을 또래와 감상하며 공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영화활동

영화는 의미가 있게 움직이는 어떠한 대상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재현해 내는 종합 예술이며(국립국어원, 2023b),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이 없는 만화나 인형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 연속 촬영 또는 기타 영상 기법으로 만든 영화를 뜻한다(국립국어원, 2023a; 허재은, 2018). 본 연구에서의 영화는 해당 주제와 관련 영화(애니메이션)를 감상하고, 감상 이후에 연관된 후속 활동을 수행한다. 현대사회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과 같은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서 폭넓은 소재를 담고 있어(강은영, 최미숙, 2014), 이를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공감의 상황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활동유형으로는 영화 감상하기, 영화 감상 후 내용 회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 나누기, 영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 및 감정 카드 속 인물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또래가 표현하는 감정 알아맞히기, 공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기사에 포함할 적절한 사진을 계획하고 촬영하기, 사진에 어울리는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 제작하기, 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영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과 감정 카드 속 인물들의 다양

한 감정을 표현하며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있음을 깨닫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극놀이영상 제작 및 인형극활동

극놀이는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특정 역할을 맡아 마치 자신이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감정이입하여 표현해 보는 놀이를 말하며(김보라, 2018), 체험 중심적인 특성을 가진다(김지영, 2013). 인형극은 무대에 사람이 아닌 인형이 등장하여 연기하는 극놀이의 한 형태를 뜻한다(안정의, 1985). 본 연구에서 극놀이는 그림책을 감상하고 유아가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 이야기를 재현하는 활동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극놀이영상 제작활동과, 유아들이 그림책을 감상하고 미술활동을 통해 만든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재현하는 종이 인형극 공연하기 활동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림책 속 공감대상의 역할을 수행해 보는 경험은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박소영, 이미나, 2018).

활동유형으로는 먼저 극놀이영상 제작활동의 경우에는 유아들이 영상을 제작할 그림책 감상하기, 그림책 감상 후 내용 회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 나누기, 극놀이영상 제작 계획하기, 역할 정하기(연기자팀, 음향팀, 소품팀, 의상팀, 촬영팀, 광고팀, 작가팀 등), 대본 작성하기, 의상 준비하기, 소품 만들기, 극놀이 하기,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 유아들이 제작한 극놀이영상 감상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인형극 활동의 경우에는 인형극 할 그림책 감상하기, 그림책 감상 후 내용 회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 나누기, 종이 인형극 공연하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림책에 기초한 극놀이영상 제작활동은 기획, 연출, 촬영, 배우, 세트, 의

상, 대본, 편집 등 여러 영역의 작업이 함께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며, 종인 인형극 공연하기 활동 역시 서로 역할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또래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조절하고 배려하는 등 사회적 기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명화, 류혜숙, 2010; 정아림 외, 2017). 이외에도 유아들이 그림책 속 인물들의 여러 상황을 표현하면서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대상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탈중심화를 촉진(김세정, 2016; 이승희, 2021)하는 것은 물론 공감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④ 신체표현활동

신체표현이란 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을 표현적 동작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표현에서 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포함하는 활동을 말한다(윤지은, 2020). 본 연구에서 신체표현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 및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창의적 신체표현을 의미한다. 신체표현은 유아로 하여금 공감대상에 대한 유아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신체표현을 통해 유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도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다(송순옥, 2016b).

활동유형으로는 그림책 및 주제 관련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회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나눈 후, 공감대상의 상황을 인식하고 신체로 표현하기,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신체표현에 참여하는 유아뿐만 아니라 신체표현을 감상하는 또래에게까지 감성을 자극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통한 정서적 공감을 가능하게 하여 공감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사진활동

사진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듯이 재현해 낸 이미지를 말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나 느낌을 나타내는 평면적인 시각예술을 뜻한다(김보연, 2018; 김은정, 2013). 본 연구에서의 사진은 해당 주제에 관해 유아가 직접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은 후, 인화한 사진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과 기록의 매체로서 디지털카메라는 유아들에게 친숙하고 보편적인 매체로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미디어 매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각적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다(전수옥, 2004).

활동유형으로는 공감대상과 관련된 이미지 촬영을 위해 사진 촬영 계획하기, 계획을 바탕으로 사진 촬영하기, 사진 감상하기, 사진을 촬영하게 된 동기를 또래에게 소개하기, 감상 후 사진에 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 사진 전시회 준비하기, 사진 전시회 열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또래에게 이야기하는 활동은 유아들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이정, 2018). 이렇게 풍부하게 전달된 공감의 표현은 함께 감상한 또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 ⑥ 미술활동

미술은 선, 색, 모양을 바탕으로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는 언어적 표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고 꾸미는 등 다양한 형태로 표상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김선월, 2012; 이옥희, 2018; 최재은, 2019). 본 연구에서의 미술은 유아가 그림책 및 주제 관련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그리기와 만들기로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주제

관련 명화를 감상한 후 작품이 전하는 느낌과 상황을 이해하며 공감한 내용을 색깔 또는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지성애 외(2010)는 유아가 미술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활동이 아닌 세상과 소통함은 물론 전인 발달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유형으로는 또래의 작품 감상하기, 종이 인형 만들기, 상상화 그리기(만약 내가 공감대상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극놀이영상 제작활동(소품 만들기, 배경 준비하기, 광고 포스터 만들기), 사진 전시회(초대장 만들기, 전시장 꾸미기, 광고 포스터 만들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작품의 느낌을 이해하고 색깔로 표현하는 명화 채색하기 및 작품 속 인물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 보는 말풍선 만들기, 뉴스 제작활동(스튜디오 꾸미기, 뉴스 자막 만들기)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공감대상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상상화를 그리거나 만들기 활동은 공감대상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유아들이 또래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감상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들의 공감능력은 내면화될 수 있다.

#### ⑦ 음악활동

음악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음(音)이라는 재료로 표현하는 예술을 말하며(남기원 외, 2019), 음악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표현 활동하기, 음악 창작 활동하기와 같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뜻한다(김지운, 2015). 본 연구에서의 음악활동은 유아가 그림책 및 주제 관련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소리 및 노랫말로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리와 노랫말을 만드는 활동은 협동의 하나로, 이은경(2019)은 협동음악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소통하고 표현하며 감정을 교류하

게 되어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활동유형으로는 유아들이 공감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림책 및 주제 관련 이야기를 감상하고 내용을 회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나눈 후, 공감대상의 상황을 인식하고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노래 만들기(노래 재구성) 활동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가 소그룹으로 악기 연주하기 또는 노래 만들기(노래 재구성)와 같은 협동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래 유아들과 소통하고 또래의 표현을 존중하게 되며 서로 배려하는 등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 (4) 교수 전략

교수 전략은 교사가 자신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말한다(Lay-Dopyera & Dopyer, 1987; 김명정, 2015 재인용).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수 전략으로는 유아들이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강은희, 2019; 김은주 외, 2011; 신미영, 2022; 정하나, 2015; Gordon, 2005/2010),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이사임, 2018),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유진, 2022; 박선영, 2013)과 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순철, 2019) 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교수 전략 적용점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교수 전략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수 전략	적용점
	강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하기</li> <li>•발표하기</li> <li>•협동활동하기</li> <li>•확장하기</li> <li>•공감표현 촉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하기</li>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li>▶ 공감표현 촉진하기</li> </ul>
	김은주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찰하기</li> <li>•설명하기</li> <li>•모델링</li> <li>•협동활동하기</li> <li>•토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기</li>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놀이 환경 조성하기</li> <li>•공감표현과 공유 촉진하기</li> <li>•놀이연계활동 지원하기</li> <li>•자유놀이 지원하기</li> <li>•토의참여 격려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표현과 공유 촉진하기</li> </ul>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의하기</li> <li>•협동 학습하기</li> <li>•자기표현 촉진하기</li> <li>•모델링</li> <li>•설명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li>▶ 자기표현 촉진하기</li> <li>▶ 설명하기</li> </ul>
	Gordon (2005/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찰하기</li> <li>•모델링</li> <li>•자기표현 촉진하기</li> <li>•문제해결하기</li> <li>•협동 학습하기</li> <li>•토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표현 촉진하기</li>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ul>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사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하기</li> <li>•문제해결하기</li> <li>•추론하기</li> <li>•표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론활동 제시하기</li> </ul>

구분	연구자	교수 전략	적용점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김유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li> <li>• 대화하기</li> <li>• 협동활동하기</li> <li>• 경험과 생각나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li>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ul>
	박선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링</li> <li>•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li> <li>• 다양한 표현 격려하기</li> <li>• 언어적 표상 유도하기</li> <li>• 활동인원 조정하기</li> <li>• 예술 장르 간 통합 격려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li> </ul>
예술 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박순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링</li> <li>• 자기표현하기</li> <li>• 토의하기</li> <li>• 협력학습하기</li> <li>• 추론하기</li> <li>• 설명하기</li> <li>• 질문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표현하기</li>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li>▶ 추론활동 제시하기</li> <li>▶ 설명하기</li> <li>▶ 질문하기</li> </ul>
↓			
도출된 교수 전략			
공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li>▶ 추론활동 제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표현 촉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li>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li>■ 공감표현 촉진하기</li> <li>■ 추론활동 제시하기</li> </ul>
통합적 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li> <li>▶ 추론활동 제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활동 제공하기</li> </ul>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미영(2022)은 어포던스 기반 놀이 중심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교수 전략으로 5가지를 설정하였다. 공감놀이 환경 조성하기, 공감표현과 공유 촉진하기, 놀이연계활동 지원하기, 자유놀이 지원하기, 토의 참여 격려하기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의 선행연구(강은희, 2019; 김은주 외, 2011; 정하나, 2015; Gordon,

2005/2010)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수 전략으로 협동활동 제공하기 전략이다. 협동활동 제공하기 전략은 또래와 함께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협동활동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유아는 또래와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활동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며(박진주, 2016; 이나영, 2008; 천혜빈, 2022), 또래의 의견을 존중하는(오혜정, 2018) 등 대인관계 형성(전세연, 2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공감표현 촉진하기 전략이다. 공감표현 촉진하기는 유아들이 공감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타인에 관해 공감하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유아들이 적극적인 표현을 독려하는 교수 전략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김유진(2022)은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통합교육활동의 교수 전략으로 4가지를 설정하였다.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대화하기, 협동활동하기, 경험과 생각나누기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박순철(2019)은 모델링, 자기표현하기, 토의하기, 협력학습하기, 추론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로 교수 전략을 구성하였다.

그 외의 선행연구(박선영, 2013; 이사임, 2018)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전략이다. 유아들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사진, 영상, 문학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추론활동 제시하기 전략이다. 유아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추론 전략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백인경, 2017). 추론하기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유아 자신의 사전 지식으로 미루어 생각해 봄으로써 비록 직접 경험해 본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교수 전략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교수 전략으로서 공감교육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협동활동 제공하기, 공감표현 촉진하기, 추론활동 제시하기 전략이 도출되었고,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협동활동 제공하기, 추론활동 제시하기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수 전략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전략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유아들이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에 관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하는 1단계에 그림책, 영상, 신문·뉴스·광고, 영화, 사진, PPT 자료와 같은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아가 공감대상을 이해하는데 효과적(김연희, 2015; 신미영, 2022)일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수단(김유진, 2022)이 되어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협동활동 제공하기 전략이다. 협동활동은 유아들이 또래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수 전략으로(홍순정, 김희태, 2009),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또래와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또래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염연정, 2009; 최은주, 2016). 본 프로그램에서는 유아가 극놀이영상 제작, 신문 제작, 사진 전시회 열기, 뉴스 제작 등의 협동활동에 참여하며 또래와 역할을 나누고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의견을 양보하며 타인의 생각을 고려해 협동하는 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셋째, 공감표현 촉진하기 전략이다.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 유아들이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가 공감대상에게 공감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공감표현은 언어적 방식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공감대상에 대한 공감표현 방식으로 편지 쓰기, 대화 나누기, 그림 그리기, 신문 제작하기, 책 만들기, 동시 짓기, 사진 촬영하기, 신체 표현하기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표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교수 전략을 포함하였다.

넷째, 추론활동 제시하기 전략이다. 추론하기는 제시된 내용과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으로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새로운 상황에서 추가되는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뜻한다(노미란, 2000). 일반적으로 정서 추론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 생각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서 추론 능력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정덕희, 2009).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추론활동 제시하기는 유아가 공감대상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 전략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5) 교사 역할

본 연구에서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하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공감능력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사의 역할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공감

능력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사역할 구성을 위해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 Gordon, 2005/2010),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강은영, 2013; 김유나, 2023; 임현희, 2018),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예원, 2015; 박은주, 2012; 안지영, 2013; 정효은, 2009) 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교사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교사의 역할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사의 역할	적용점
	강경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표현 촉진자</li> <li>•공감적 지지자</li> <li>•모델링</li> <li>•민주적 교실 운영자</li> <li>•소통적 참여자</li> <li>•인적·물리적 환경 제공자</li> <li>•평가자</li> <li>•흥미 유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표현 촉진자</li> <li>▶공감적 지지자</li> <li>▶모델링</li> <li>▶소통적 참여자</li> <li>▶환경 제공자</li> <li>▶평가자</li> <li>▶흥미 유발자</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강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li> <li>•공감적 태도에 대한 역할 모델링</li> <li>•공감표현의 촉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조성자</li> <li>▶모델링</li> <li>▶공감표현 촉진자</li> </ul>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적 지지자</li> <li>•감정표현 촉진자</li> <li>•소통적 참여자</li> <li>•환경 조성자</li> <li>•놀이 및 활동 지원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적 지지자</li> <li>▶감정표현 촉진자</li> <li>▶소통적 참여자</li> <li>▶환경 조성자</li> <li>▶활동 지원자</li> </ul>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촉진자</li> <li>•공감적 지지자</li> <li>•상호작용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촉진자</li> <li>▶공감적 지지자</li> <li>▶상호작용자</li> <li>▶평가자</li> </ul>

구분	연구자	교사의 역할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적 지지자</li> <li>•역동적 환경 조성자</li> <li>•소통적 참여자</li> <li>•마음표현 촉진자</li> <li>•간주관성 형성 촉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적 지지자</li> <li>▶환경 조성자</li> <li>▶소통적 참여자</li> <li>▶마음표현 촉진자</li> </ul>
	Gordon (2005/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지지자</li> <li>•모델링</li> <li>•관찰자</li> <li>•환경 제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의 지지자</li> <li>▶모델링</li> <li>▶환경 제공자</li> </ul>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자 및 실천자</li> <li>•동기 유발자</li> <li>•참여자</li> <li>•비계설정자</li> <li>•환경 준비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자</li> <li>▶동기 유발자</li> <li>▶환경 준비자</li> <li>▶평가자</li> </ul>
	김유나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자</li> <li>•흥미 유발자</li> <li>•상호작용자</li> <li>•격려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자</li> <li>▶흥미 유발자</li> <li>▶상호작용자</li> <li>▶격려자</li> <li>▶평가자</li> </ul>
	임현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제공자</li> <li>•촉진자</li> <li>•지지자</li> <li>•환경 구성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제공자</li> <li>▶촉진자</li> <li>▶지지자</li> <li>▶환경 구성자</li> <li>▶평가자</li> </ul>
	박예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조성자</li> <li>•상호작용 촉진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조성자</li> <li>▶상호작용 촉진자</li> <li>▶평가자</li> </ul>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박은주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리적 환경 구성자</li> <li>•상호작용 지원자</li> <li>•촉진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구성자</li> <li>▶상호작용 지원자</li> <li>▶촉진자</li> <li>▶평가자</li> </ul>
	안지영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자</li> <li>•실천자</li> <li>•동기 유발자</li> <li>•참여자</li> <li>•환경 준비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자</li> <li>▶동기 유발자</li> <li>▶환경 준비자</li> <li>▶평가자</li> </ul>
	정효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리적 환경 구성자</li> <li>•상호작용자 및 지원자</li> <li>•평가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구성자</li> <li>▶상호작용자, 지원자</li> <li>▶평가자</li> </ul>



도출된 교사의 역할

공감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자</li> <li>■ 환경 제공자</li> <li>■ 동기 유발자</li> <li>■ 감정표현 촉진자</li> <li>■ 공감적 지지자</li> <li>■ 평가자</li> </ul>
▶ 감정표현 촉진자	▶ 공감적 지지자		
▶ 환경 제공자	▶ 평가자		
통합적 예술교육			
▶ 계획자	▶ 환경 준비자		
▶ 동기 유발자	▶ 평가자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역할에 관해 공통으로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아가 표현하는 여러 감정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 과 흥미를 반영한 환경 제공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역할에 관해 공통으로 유아의 발달 특성 및 생활주제를 고려하여 교육 활동의 목표와 교육 내용을 계획하고, 유아가 다양한 예술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더불어 유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유아들의 이해와 반응, 태도, 변화를 평가하는 평가자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사의 역할을 기초로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교사의 역할은 감정표현 촉진자, 공감적 지지자, 환경 제공자, 평가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교사의 역할은 계획자, 동기 유발자, 환경 준비자, 평가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는 계획자, 환경 제공자, 동기 유발자, 감정표현 촉진자, 공감적 지지자, 평가자를 선정하였다. 역할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자로서 역할을 한다. 교사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유아들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으로서 활동 내용 및 방법, 교육적 환경 등을 계획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유아들이 자신 및 공감대상의 생각과 느낌을 예술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하고 계획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감정 및 공감대상에 관해 공감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나와는 다른 또래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 제공자로서 역할을 한다. 교사는 공감교육을 위하여 교육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가 관심을 두고 공감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요구된다면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아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역시 교사의 역할이다.

셋째,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한다. 동기 유발자로서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 및 공감대상에 관해 공감하는 내용을 다양한 통합적 예술활동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감정표현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다. 유아가 자신의 감정과 공감대상의 감정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감정 어휘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정확한 감정 표현을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 관련 활동을 구성할 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어휘를 소

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외에도 감정 표현의 방법으로 언어적인 방법을 비롯하여 신체표현, 그림, 사진과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포함한 폭넓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감적 지지자로서 역할을 한다. 유아가 표현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사의 공감적 지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의 공감적 지지의 표현 방식으로는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인 방식과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유아들에게 공감적 지지를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자로서 역할을 한다. 교사는 공감교육 활동 전반에 관해 회상해 보며 순조롭게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활동에 따라 보완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교사는 적극 반영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본 프로그램의 활동에 관해 평가하는 경험을 유아들에게 제공하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및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점 등을 평가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유아들이 평가한 내용은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 **(6)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 활동을 위한 매체, 배움을 촉진해 줄 교구, 구체물, 시청각 자료 등의 모든 활동 자료를(이명숙, 2000) 말하며, 본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든 자원을 뜻한다. 따라서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 자료로는 공감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공감주제와 관련한 교수-학습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자료 선정을 위해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강은희, 2019; 김정아, 2019; 신미영, 2022; 정하나, 2015), 공감 기반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김견미, 2014; 김연희, 2015; 임영숙, 2018),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나혜선, 2016; 남윤희, 2019; 문예은, 2017; 신남주, 2017; 이은영, 우민정, 2013),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고영미 외, 2016; 김유나, 2023; 윤덕순, 2009),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남기원, 2013), 예술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진, 2017) 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교수-학습 자료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자료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강은희 (2019)	•그림책(4권) •극놀이 소품	▶그림책, 사진, 그림, 표현 자료, 실물, 모형, 광고, 뉴스 기사, 극놀이 소품, 신체표현 소품
	김정아 (2019)	•그림책 •극놀이 소품, 신체표현 소품, 미술 및 언어활동 자료	
	신미영 (2022)	•공감놀이 경험 사진, 그림, 실물, 모형, 미디어 기기 •연계활동: 동화, 뉴스기사, 광고 등	
	정하나 (2015)	•동화자료: 동화책, 동화 배경판, 등장인물 막대 인형, 주요장면 그림카드 •예술적 표현 자료: 미술표상 자료, 음향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실물 자료, 모형 자료	
공감 기반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	김견미 (2014)	•동영상 자료(동화, 공연, 패션쇼) •PPT 자료, 사진 자료, •관련 활동 자료(이야기 나누기, 동화, 음률, 요리, 미술, 신체, 언어)	▶그림책, 사진, 극놀이 소품, 신호악기, 동영상, PPT 자료
	김연희 (2015)	•동화책 •동극용 머리띠, 동극 소품, 주제 관련 동영상, 사진 자료, 미술도구, 도움천사 목걸이, 유니바, 신호악기, 요리재료, 손인형, 포스터 등	
	임영숙 (2018)	•동화 •언어, 미술, 과학, 신체, 동극, 인형극, 역할극, 노래극 연계 자료	

구분	연구자	교수-학습 자료	적용점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나혜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자료(사진, 동영상, 그림)</li> <li>•활동 자료(음률활동, 조형활동, 언어활동)</li> <li>•가정연계활동: ‘배려노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동영상, 그림, 그림책, 동시, 광고, 신문, 영화, 극놀이 소품</li> </ul>
	남윤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동시 자료, 그림 자료</li> </ul>	
	문예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광고</li> <li>•활동 자료(이야기 나누기, 게임, 미술, 과학, 동화, 신체, 음악, NIE, 요리, 동시)</li> </ul>	
	신남주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리텔링 전달 시 소품(블록, 이름표, 딱지, 트레이, 컵 등)</li> <li>•역할극 소품(등장인물 이름 목걸이, 놀잇감, 딱지, 블록, 풀, 색연필, 활동지, 카프라, 양치컵, 칫솔, 활동지 등)</li> </ul>	
	이은영, 우민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매체: 도서, 신문, 영화, 광고</li> </ul>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고영미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물 및 구체물</li> <li>•그림 및 사진 자료</li> <li>•전자 및 멀티미디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실물, 영상, 명화, 다양한 미술 도구, 음악CD</li> </ul>
	김유나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사진 자료, 영상 자료, 음원 자료</li> </ul>	
	윤덕순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CD</li> <li>•다양한 미술도구</li> <li>•실물 자료</li> <li>•OHP, 사진, 슬라이드</li> </ul>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남기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물 자료</li> <li>•사진·그림</li> <li>•동영상 자료</li> <li>•표현 도구(신체표현소품, 일상생활용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 그림, 사진, 동영상, 표현 도구</li> </ul>
예술 기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그림책)</li> <li>•음악</li> <li>•미술</li> <li>•영상</li> <li>•사진</li> <li>•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 영상, 사진, 광고</li> </ul>



자료유형	도출된 교수-학습 자료
매체 자료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 및 뉴스, 광고, 명화, 사진, 그림(감정카드), PPT 자료
실물 자료	•다양한 악기류(피아노,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핸드벨, 마라카스 등) •재활용품(음료수 캔, 우유곽, 종이컵, 휴지심, 과자봉지, 요구르트 병 등) •모래시계, 인형극 틀, 분리수거함, 신문, 마이크
모형 자료	•동물모형(코끼리, 강아지, 북극곰, 바다 동물)
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재활용품(PET병, 종이상자, 휴지심, 플라스틱 통, 비닐, 캔 등)
표현 도구	•종이류(다양한 색깔과 모양 종이, 편지지, 4절 색지, 8절 흰 도화지, 색종이, 8절 스케치북, 무지스크랩북) •신문 만들기 재료(신문이름, 발행일, 특종, 담당자 서명란) •극놀이 소품(앞치마, 가방, 유아자동차, 의자, 신문, 음식모형, 그릇, 이불, 청소도구)
소리 및 영상기기	•신체표현 소품(전지, 흰전지로 포장된 블록, 하드보드지로 제작한 빙하, 대형 파란색 비닐봉지)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CD플레이어, 음악CD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영(2022)은 유아들의 활동 참여와 공감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공감놀이 경험을 위해서는 사진, 그림, 실물, 모형,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였고, 공감놀이 후 연계활동에서는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의 감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동화, 뉴스 기사, 광고 등의 매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였다. 정하나(2015)는 유아들이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한 표현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화자료와 예술적 표현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동화 자료로는 동화책, 동화 배경판, 등장인물 막대 인형, 주요장면 그림카드 등을 제시하였고, 예술적 표현 자료로는 미술표상 자료, 음향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실물 자료, 모형 자료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김연희(2015)는 유아들 및 활동의 특성, 교사와 유아들의 교수 매체에 대한 경험을 고려하여 도서, 영상, 실물 및 이미지 자료 등을 선정하였으며, 나혜선(2016)은 배려해야 할 상황을 이해할 수 있

도록 그림 자료, 용판 자료, 언어 활동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육적인 효과가 높고, 효율적인 활동 진행을 위하여 강은희(2019), 김정아(2019), 임영숙(2018)은 그림책을 활용하였으며, 남윤희(2019)는 그림책, 동시 자료, 그림 자료의 3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은영, 우민정(2013)은 대중매체(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제시하였으며, 문예은(2017)은 공익광고를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하였다. 신남주(2017)는 유아가 활동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흥미를 지속하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 스토리텔링’ 단계 및 ‘역할극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매체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두고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매체를 선정하였다. 목표 달성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김유나(2023)는 그림 및 사진 자료, 영상 및 음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윤덕순(2009)은 유아들의 흥미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한 미술도구, 실물 자료 및 사진 자료로 구성하였다. 남기원(2013)은 유아들이 관심을 두고, 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물 자료, 사진 및 그림 자료, 동영상 자료, 표현 도구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를 느끼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진(2017)은 그림책, 영상, 사진, 광고를 교수-학습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교수-학습 자료는 동화, 동시, 사진, 그림, 소품(극놀이, 신체표현), 실물, PPT 자료, 모형, 광고, 뉴스 기사, 표현 자료, 영화, 동영상, 신문 등을 제시하였고,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교수-학습 자료는 사진, 실물, 영상, 명화, 미술재료와 도구, 소품, 그림책, 사진기, 광고, 음악CD, 표현 도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을 종합하여 도출된 본 프로그램

의 교수-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에는 매체 자료, 실물 자료, 모형 자료, 미술 재료와 도구를 포함하는 표현 자료, 신체표현 및 극놀이 소품으로 활용할 표현 도구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리 및 영상기기 등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활동 진행을 위하여 만 5세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는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의 감정 표현이 구체적이고 유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반영된 자료로서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 그림책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가 담긴 영상, 그림책과 연관되는 뉴스와 광고, 그림책과는 별개로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신문 및 뉴스와 같은 자료들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공감 관련 영화, 사진, 명화, 그림(감정카드), PPT 자료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매체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그림책

그림책은 주인공의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대리 경험하게 되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주인공의 정서적 경험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정서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이경우 외, 1997).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공감 및 인성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가 제시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만 5세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공감 및 인성 내용에 적합성을 두고 선정하였다. 그림책 선정 기준은 유아에게 적절한 이야기책 선정 기준(이경우 외, 1997), 유아 사회·정서 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노민자, 2014), 유아예술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김유진, 2022), 유아 공감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김정아, 2019), 유아의 정서 및 인성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김정원 외, 2014;

송순옥, 2012)을 수정·보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그림책 선정 기준과 적용점 및 구체적인 그림책 선정 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프로그램을 위한 그림책 선정 기준

연구자	그림책 선정 기준	적용점
이경우 외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 주변의 이야기인가?</li> <li>•유아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인가?</li> <li>•유아가 쉽게 공감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내용인가?</li> <li>•유아에게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li> <li>•그림의 크기가 유아의 연령이나 책의 특성에 적합한가?</li> <li>•그림책이 유아의 생각, 가치관, 분별력, 세계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현재 그림책을 보게 될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적인 특성에 적합한가?</li> <li>•책을 통하여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가?</li> <li>•그림책에 공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의 적합성</li> <li>▶ 흥미의 적합성</li> <li>▶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li> <li>▶ 발달의 적합성</li> </ul>
노민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의 주제와 내용이 교육 내용에 적합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li> <li>•후속 활동이 교육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의 적합성</li> <li>▶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li> </ul>
김유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과 그림에서 음악, 움직임, 미술, 심미감 등의 요소가 드러나는가?</li> <li>•그림책의 내용이 미술, 음악, 신체표현, 극놀이와 같은 활동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활동과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li> </ul>
김정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장인물의 기쁨, 슬픔, 공포, 분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가?</li> <li>•등장인물이 유아와 친숙한 사람들 또는 등장인물인가?</li> <li>•정서적 갈등 상황이 유아에게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내용인가?</li> <li>•그림책의 주제 및 내용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내용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의 적합성</li> <li>▶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li> </ul>
김정원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속에 유아에게 적합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포함하고 있는가?</li> <li>•그림책에 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조절, 그리고 타인의 감정과 상황과 같은 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li> <li>•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li> </ul>

연구자	그림책 선정 기준	적용점
송순옥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정서적 경험 상황을 유아가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li> <li>•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정서적 경험을 다루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li> <li>▶ 발달의 적합성</li> </ul>
↓		
추출된 그림책 선정 기준		
주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 주변의 이야기인가?</li> <li>■ 유아에게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li> <li>■ 그림책의 주제와 내용이 교육 내용에 적합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li> </ul>	
발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와 친숙한 사람들 또는 등장인물인가?</li> <li>■ 그림의 크기가 유아의 연령이나 책의 특성에 적합한가?</li> <li>■ 현재 그림책을 보게 될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적인 특성에 적합한가?</li> <li>■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가?</li> </ul>	
흥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인가?</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을 통하여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가?</li> <li>■ 그림책에 공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li> <li>■ 그림책의 내용이 미술, 음악, 신체표현, 극놀이와 같은 활동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활동과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가?</li> <li>■ 등장인물의 기쁨, 슬픔, 공포, 분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가?</li> <li>■ 정서적 갈등 상황이 유아가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내용인가?</li> <li>■ 그림책에 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조절, 그리고 타인의 감정과 상황과 같은 인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li> <li>■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li> <li>■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정서적 경험 상황을 유아가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li> </ul>	

1차 선정된 18권 그림책 중에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적합한 도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경력 10년 이상의 유아교사 2인, 원장 4인,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과 협의하여 그림책 6권이 선정되었다. 만 5세 유아의 발달 및 흥미와 프로그램에 적합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 6권의 그림책은 표 28과 같다.

<표 28>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림책

회차	공감 주제	도서명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이야기
2 ~ 5 회차	가족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6)	가정 내에서의 모든 일을 엄마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가족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11 ~ 14 회차	다문화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임희옥 아이코리아 (2008)	베트남에서 온 예술이 엄마,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예술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예술이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15 ~ 16 회차	세계 여러 나라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2011)	거짓말 같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17 ~ 19 회차	전쟁	시냇물 저쪽	엘즈비에타 마루별 (2001)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동화로 접하면서 전쟁을 겪고 있는 그림책 속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20 ~ 23 회차	동물 · 환경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김현태 휴먼어린이 (2011)	북극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북극곰 아이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으로 북극곰 아이스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24 ~ 26 회차	동물 · 환경	플라스틱 섬	이명애 상 (2020)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다니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생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바다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 ② 영상

영상 자료에는 영화와 그림책과 관련하여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 먼저 영화는 본질적으로 조형성과 음악성 그리고 서술성이 상보적으로 융합하여 제공됨으로써 유아들이 수동적인 경험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박기수, 2004). 또한, 영화는 만 5세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매체 중 하나으로써 교사가 말로 하는 설명보다 좀 더 명확하게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 영화 선정 기준은 아동 발달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작품 선정 기준으로 선미정(2009)이 제시한 서사 양식(플롯, 등장인물, 배경, 주제)과 영상 언어(영상성, 음악성)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영화는 주제, 발달, 흥미 그리고 프로그램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영화 선정 기준은 표 29와 같다.

<표 29> 프로그램을 위한 영화 선정 기준

영화 선정 기준	
주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이 유아에게 익숙한 사람들 또는 등장인물인가?</li> <li>■ 유아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li> <li>■ 주제와 내용이 등장인물의 사건,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가?</li> <li>■ 영상에 음악을 포함하여 주제와 내용을 강조하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li> <li>■ 영상 속 시각적 요소들이 주제와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li> <li>■ 영상 속 배경음악은 장면에 몰입함은 물론 유아가 주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하기에 충분한가?</li> </ul>
발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가?</li> </ul>
흥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가?</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와 문화에 대한 구별 없이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가?</li> </ul>

표 2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화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공감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가 제시된 영화를 총 3편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총 3편의 영화는 표 30과 같다.

<표 30>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영화

회차	공감 주제	영화 제목	시간	이야기
1회차	나	인사이드 아웃	4분	주인공 머릿속에는 기쁨이, 슬픔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소심이, 맛있는 음식이나 나쁜 아이들로부터 지켜주는 까칠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못 참는 버럭이 등 감정친구들이 있음을 소개하는 이야기
6~7회차	이웃	사뿐 사뿐 쿵	4분 19초	층간 소음 방지 캠페인 ‘사뿐 사뿐 쿵!’이라는 제목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윗집과 아랫집이 싸우는 건 이제 멈추고,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
8~9회차	장애	모두의 놀이터	7분 58초	장애이해 애니메이션 ‘모두의 놀이터’라는 제목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훈이, 인공와우를 착용한 담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영희와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

다음으로 영상 매체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TV나 컴퓨터와 같은 기기로 보여주는 것(김택환, 1997)으로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시 그림책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상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그림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해 실제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며 좀 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영상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선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기에 효과적인 교수 매체이다.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영상을 검색 엔진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도출된 영상 중에서 표 27에 제시한 그림책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유아 대상의 영상이며, 해당 주제가 공감과 관련된 주제의 내용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관해 숙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공감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가 제시된 영상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영상으로 선정된 총 2편의 영상은 표 31과 같다.

<표 31>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영상

회차	공감 주제	영상 제목	시간	이야기
11 ~ 14 회차	다문화 검은색이 제일 싫어		1분 2초	검은색 피부가 싫어 엄마 화장품을 바르는 금쪽이, 어떤 아이들은 검은색이 싫어서 나랑 안 놀고 싶어 한다고 피부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표현하는 이야기
11 ~ 14 회차	다문화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		1분 30 초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로 캐나다 엄마와 대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가 표현하자, 엄마가 말하길 한국인이 아니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







③ 신문 · 뉴스 · 광고

신문·뉴스·광고자료들은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로 현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공감하기에 충분한 교수 매체이다(신미영, 2022; 이은영, 우민정, 2013). 교수-학습 자료로 적용할 수 있는 신문·뉴스·광고를 검색 엔진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도출된 신문·뉴스·광고 중에서 양운숙(2004)의 신문 선정 기준, 서한나(2023)의 뉴스 선정 기준, 전형길(2008)의 광고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적절한 신문·뉴스·광고는 주제, 발달, 흥미, 프로그램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공감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책 및 영화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문·뉴스·광고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신문·뉴스·광고 선정 기준은 표 32와 같고, 프로그램에 적합한 신문 자료로 선정된 1편과 뉴스 자료로 선정된 2편, 광고 자료로 선정된 4편, 총 7편의 자료는 표 33과 같다.

〈표 32〉 프로그램을 위한 신문·뉴스·광고 선정 기준

신문·뉴스·광고 선정 기준	
주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li> <li>■ 가치판단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가?</li> <li>■ 주제나 자료의 구성이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가?</li> <li>■ 영상과 언어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li> <li>■ 지나치게 함축적이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li> <li>■ 비논리적이거나 극단적인 논리의 내용은 아닌가?</li> </ul>
발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되는 어휘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가?</li> <li>■ 발화 속도와 발음은 적절한가?</li> <li>■ 사용 언어가 표준어인가?</li> <li>■ 내레이션의 길이가 적당한가?</li> </ul>
흥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가?</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에 포함된 정서적 가치들이 유아의 정서에 유익한 것들인가?</li> </ul>

<표 33>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신문·뉴스·광고

회차	공감 주제	신문 제목	이야기	
8 ~ 10 회차	장애	무장애 통합 놀이터 태부족 	경기지역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수원 2곳, 광명 1곳 총 3곳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	
회차	공감 주제	뉴스 제목	시간	이야기
8 ~ 10 회차	장애	우리도 놀고 싶어요 	3분 50초	놀면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흔히 가는 놀이터, 그런 놀이터에서조차 놀기 어려운 장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가 전국에 23곳뿐이라는 이야기
24 ~ 26 회차	동물 · 환경	해양생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 	3분 40초	얇은 밧줄에 걸려 꼼짝 못 하는 무게 50톤 고래, 입속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 죽은 고래, 비닐을 먹이로 착각해 씹어 삼키는 바다거북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
회차	공감 주제	광고 제목	시간	이야기
15 ~ 16 회차	세계 여러 나라	담배공장 미나의 포기할 수 없는 꿈 	6분 38초	미세한 담뱃가루가 온종일 날리는 방글라데시의 한 담배공장에서 하루 8시간 담배를 포장하고 나르는 일을 하는 9살 소녀 미나의 이야기
15 ~ 16 회차	세계 여러 나라	물 한 모금 얻기 위해 걷는 12시간 	1분 20초	부모님이 안 계신 11살 릴리안, 신발도 없이 30km 거리를 왕복 12시간이 걸려 물을 얻어오는 릴리안의 이야기
17 ~ 19 회차	전쟁	전쟁에 맞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눈물 	3분 33초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참전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빠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이야기

회차	공감 주제	광고 제목	시간	이야기
20 ~ 23 회차	동물 · 환경	기후변화를 막고 녹아내리는 북극에서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57초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환경오염, 가속화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빙하가 무너져 내리고 북극곰들의 서식지는 파괴되고 있어 살아갈 서식지를 빼앗긴 북극곰들은 갈 곳을 잃은 채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 ④ 명화

명화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상황 또는 작품 속 인물들의 표정, 행동 등을 관찰하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작품 안의 다양한 정서적인 부분을 유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이운영, 2020)해 보며 작품 속 상황을 오롯이 느끼고 공감해 보는데 적절한 교수 매체이다. 명화 선정 기준은 유아의 감정 조망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김정순, 2012), 유아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김우영, 2014),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정도진, 2018), 유아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이은영, 이수경, 2019), 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최은주, 2016)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타당한 명화는 주제, 발달, 흥미, 프로그램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공감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가 제시된 명화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명화 선정 기준은 표 34와 같고, 프로그램에 적합한 명화로 선정된 총 1편의 명화는 표 35와 같다.

<표 34> 프로그램을 위한 명화 선정 기준

명화 선정 기준	
주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적합한 명화인가?</li> <li>■ 주제와 관련하여 감상할 수 있는 명화인가?</li> </ul>
발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명화인가?</li> </ul>
흥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화인가?</li> <li>■ 학습자에게 흥미로우며 친근감이 있는 명화인가?</li> </ul>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화 속 주인공의 감정이 주인공의 표정 속에 잘 드러나 있고 유아가 명화 속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이 될 수 있는 명화인가?</li> <li>■ 다양한 감정표현이 가능한 명화인가?</li> <li>■ 공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명화인가?</li> <li>■ 유아들이 공감 내용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명화인가?</li> <li>■ 명화 감상 활동 후 공감과 연결된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화인가?</li> <li>■ 명화의 스토리텔링이 공감적 요소(인지, 정서, 의사소통)를 포함하고 있는가?</li> <li>■ 유아들이 공감하기에 적합한 명화인가?</li> <li>■ 유아가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 경험을 다룰 수 있는 명화인가?</li> <li>■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유아가 자연스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화인가?</li> <li>■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명화인가?</li> </ul>

<표 35>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명화

회차	공감 주제	명화 제목	이야기
17 ~ 19 회차	전쟁	피카소의 게르니카	 <p>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한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전쟁의 무서움, 분노, 슬픔을 흰색, 검은색, 황토색 등 단색화에 가까운 표현으로 처절한 비극성을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p>

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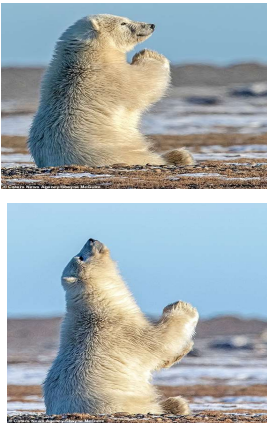

사진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지는 않지만, 사진을 통해 유아들에게 공감대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예측해 보며 공감해 보는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 매체이다. 사진 선정 기준은 Dale(1969;

이용준, 2006 재인용)의 효과적인 사진 자료의 선정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사진 선정 기준은 표 36과 같다. 표 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진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공감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가 제시된 사진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진으로 선정된 총 3장의 사진은 표 37과 같다.

<표 36> 프로그램을 위한 사진 선정 기준

연구자	사진 선정 기준
Dale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의 목적에 적합한가?</li> <li>•주제가 명확히 나타난 사진인가?</li> <li>•상상력을 자극하고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가?</li> <li>•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li> <li>•내용이 정확하고 예술적, 기술적 관점에서 적절한가?</li> </ul>

<표 37>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사진

회차	공감 주제	사진 제목	이야기
20 ~ 23 회차	동물 · 환경	지구온난화에 고통받는 북극곰의 눈물!	 <p>한 북극곰이 하늘을 바라보며 두발을 모아, 마치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극곰들의 터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극곰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진</p> <p>-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사진작가: 세인 맥기어 (Shayne McGuire) 알래스카에서 촬영한 사진</p>
24 ~ 26 회차	동물 · 환경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p>해양 쓰레기, 특히 해파리로 오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그들이 뒤엉킬 수 있는 버려진 어망 역시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p>

⑥ 그림(감정카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감정(어휘) 카드를 선정하였다. 감정(어휘) 카드는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해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 유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어휘) 카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좀 더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감정(어휘) 카드는 표 38과 같다.

<표 38>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림 감정(어휘) 카드

감정 카드	카드 구성
<p>그림 감정(어휘) 카드</p>	<p>총 60장의 감정(어휘)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란색은 유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 흰색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드 속 얼굴 표정들이 중복됨이 없이 다양하게 단어와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p>

⑦ PPT 자료

PPT 자료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감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림책의 내용을 PPT로 제작하여 유아들에게 제시한다. 또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상이나 표, 사진, 감정(어휘) 카드 등을 PPT로 준비하여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수 매체로 유아들이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 평가 방법 설정

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유아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였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과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황해익, 2000), 교사는 교육 활동을 실행한 후에 활동 과정을 돌아보며 활동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및 유아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다음의 활동에 반영할 부분을 적용하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평가 방법은 유아평가로는 자기평가, 교사평가로는 활동 계획 및 실행에 관한 평가, 프로그램 평가로는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적용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을 구성하기 위해 공감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와 사회성·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이사임, 2018),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유진, 2022; 이경혜, 2019),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김남연, 2012; 박예원, 2015), 예술 기반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강은희, 2007)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프로그램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표 39> 평가 방법 설정을 위한 문헌분석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평가 방법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강은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평가: 공감능력, 또래 유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활동회상</li> <li>-교사에 의한 평가: 사진 및 영상, 활동 결과물 분석</li> <li>▶ 교사평가:</li> <li>활동안,</li> <li>활동실행 평가</li> <li>교사저널 평가</li> <li>▶ 프로그램 평가:</li> <li>프로그램 효과</li> </ul>
	신미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놀이 및 활동 회상</li> <li>-교사에 의한 평가: 일화기록, 사진 및 영상, 놀이 결과물 분석</li> <li>•교사평가</li> <li>-활동안 및 활동실행 평가, 교사저널 평가</li> <li>•프로그램평가</li> <li>-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li> <li>-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공감능력,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li> </ul>	

구분	연구자	평가 방법	적용점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안미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교사에 의한 활동 과정 관찰기록, 활동 결과물, 검사 도구 평가</li> <li>•교사평가</li> <li>-활동 계획안 평가, 반성적 저널(자기평가)</li> <li>•프로그램평가</li> <li>-활동 계획안 분석, 계획, 실행과정, 결과 체크리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활동회상</li> <li>-교사에 의한 평가: 활동 결과물 분석</li> <li>▶ 교사평가:</li> <li>활동안, 반성적 저널</li> </ul>
	정하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활동 회상하기(이야기 이해, 감정이입, 간주관성 평가)</li> <li>-교사에 의한 평가 활동 관찰기록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li> <li>•교사평가</li> <li>-활동 계획안, 반성적 저널, 활동 관찰 자료 분석</li> </ul>	
사회성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사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평가</li> <li>-활동 과정 및 결과, 유아의 작품에 대한 자기평가</li> <li>•교사 평가</li> <li>-유아의 반응 평가, 활동 계획안 및 수업 분석 평가</li> <li>•프로그램 평가</li> <li>-수학적 개념, 수학적 과정 및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통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활동 과정, 작품에 대한 자기평가</li> <li>▶ 교사평가:</li> <li>활동 계획안, 유아 반응 평가</li> <li>▶ 프로그램 평가:</li> <li>프로그램 효과</li> </ul>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김유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관찰기록, 영상 및 사진, 놀이결과물, 놀이저널</li> <li>•교사평가</li> <li>-교사의 반성적 저널, 교사면담, 교사협의, 교사와 연구자 노트를 통해 교육 활동 적절성 평가, 교육 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li> <li>•프로그램평가</li> <li>-창의적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표준화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만족도, 결과물 평가</li> <li>▶ 교사평가:</li> <li>반성적 저널, 교육 활동 적절성 평가, 교육 활동 운영 전반 평가, 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 계획안,</li> <li>▶ 프로그램 평가:</li> <li>프로그램 효과</li> </ul>
	이경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만족도 평가, 작품이나 결과물 평가, 수업 영상 전사 자료, 관찰일지, 일화기록, 유아 자신의 평가 및 또래 상호 간의 평가</li> <li>•교사평가</li> <li>-반성적 평가, 교육 목적 및 목표 달성 여부 평가,</li> </ul>	

구분	연구자	평가 방법	적용점
예술 기반 과학교육 프로그램	김남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포트폴리오, 회상하기, 평정척도</li> <li>•교사평가</li> <li>-활동 일지, 평정척도</li> <li>•프로그램평가</li> <li>-활동 운영의 적절성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 회상하기, 포트폴리오</li> </ul>
	박예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회상하기, 교사에 의한 관찰기록, 포트폴리오</li> <li>•교사평가</li> <li>-활동 일지, 반성적 저널</li> <li>•프로그램평가</li> <li>-프로그램의 효과 평가</li> <li>-교사와 유아의 반응, 관찰일지, 포트폴리오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평가: 활동 일지, 반성적 저널</li> <li>▶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효과</li> </ul>
예술 기반 음악교육 프로그램	장은희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평가</li> <li>-교사에 의한 평가: 음악극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도, 참여 태도, 만족도 평가</li> <li>•교사평가</li> <li>-자기평가: 활동 및 교수 방법에 대한 평가: 관찰 및 수업에 대한 반성과 협의, 수업 관찰 자료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 활동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li> <li>▶ 교사평가: 활동 일지, 수업 관찰 자료 분석</li> </ul>
↓			
도출된 평가 방법			
공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활동 회상 및 과정 평가</li> <li>-교사에 의한 평가: 유아 반응 평가, 활동 결과물 분석</li> <li>▶ 교사평가</li> <li>-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li> <li>▶ 프로그램평가</li> <li>-프로그램의 효과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활동 회상 및 과정 평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li> <li>-교사에 의한 평가: 유아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결과물 분석</li> <li>■ 교사평가</li> <li>-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li> <li>■ 프로그램평가</li> <li>-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li> </ul>	
통합적 예술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평가</li> <li>-자기평가: 회상하기, 활동에 대한 만족도,</li> <li>-교사에 의한 평가: 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포트폴리오 분석</li> <li>▶ 교사평가</li> <li>-활동 계획안, 활동 일지</li> <li>▶ 프로그램 평가</li> <li>-프로그램의 효과 평가</li> </ul>			

공감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강은희(2019)의 순환적 공감 모형 기반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결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평가 방법으로 구성하였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구성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방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이사임, 2018). 또한, 신미영(2022)과 정하나(2015)의 경우에는 유아평가를 자기평가와 교사에 의한 평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다른 프로그램 개발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프로그램 평가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 회상하기와 같은 유아평가와 활동실행 평가, 교사저널 평가하기와 같은 교사평가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통합적 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아평가와 교사평가(이경혜, 2019; 장은희, 2007), 또는 유아평가와 교사평가, 프로그램 평가(김유진, 2022; 김남연, 2012; 박예원, 2015)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었다. 아울러 관찰기록, 포트폴리오 분석, 영상 및 사진 분석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유아들이 변화되는 과정에만 관심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도까지 평가에 반영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을 기초로 공감교육 관련 프로그램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방법은 먼저 유아평가는 자기평가로 활동 회상 및 과정 평가, 교사에 의한 평가로 유아의 반응 평가, 활동 결과물 분석이 있으며, 교사평가는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가 있고, 프로그램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이다. 통합적 예술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방법은 먼저 유아평가는 자기평가로 회상하기, 활동에 대한 만족도, 교사에 의한 평가로 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으며 교사평가는 활동 계획안 및 활동 일지가 있고, 프로그램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을 기초로 도출된 평가 방법은 먼저 유아평가는 자기평가로 활동 회상 및 과정 평가, 활동 만족도, 교사에 의한 평가로 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결과물 분석이 있으며 교사평가는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가 있고, 프로그램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프로그램 적용 후 나타나는 효과의 일치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 평가로 구성하였다.

첫째, 유아평가는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유아 스스로 그날의 활동을 회상하며 과정에 관해 돌아보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관해 유아 자신이 자기평가를 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평가는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과 태도를 관찰하여 분석하고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은 적절하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양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양적 분석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행 전·후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평가를 표준화된 평정척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세웠던 목적 및 목표 달성 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합성 등을 평정하는 것이다.

#### 4.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최종안

유아 공감교육을 위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최종안은 1차 전문가 협의에서 프로그램 시안의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예비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시안을 수정 및 보완점을 검토하였으며, 2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 1) 프로그램 타당성 검증 및 수정

###### (1) 1차 전문가 협의

공감교육과 예술교육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유아를 위한 활동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2023년 10월 1차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협의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1인,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2인이 참여하였으며, 현장전문가 협의는 유아 공감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육경력 22년 어린이집 원장 1인, 교육경력 14년 유치원 원장 1인, 박사과정 및 교육경력 13년 현장교사 1인이 참여하였다. 우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들의 요구도 조사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타당도 및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유아 공감교육을 위한 본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교육 내용은 적합한가? 교수-학습 방법은 효과적인가?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능성은 어떠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프로그램 시안에 대한 협의 및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시안은 전문

가의 의견을 통해서 유아들에게 공감교육 활동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다양한 공감상황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매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여러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공감상황들은 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매체 활용을 제안하였다.

둘째, 극놀이영상 제작하기, 사진 전시회 열기, 뉴스 제작하기 등 일부 몇몇 공감교육 활동이 하나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풍부하여 유아들이 공감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 활동 분량을 참고하여 2회차로 계획한 활동을 2개 활동에서 3개 활동으로 확대하여 활동별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공감 주제 및 사례의 내용이 맥락상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1차에 전체 19회차로 선정된 활동 중에서 2개의 활동을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에서 구성된 활동을 살펴보면 협동활동으로 실행되는 활동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활동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 대그룹 활동과 2명 또는 3명의 유아가 함께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 그리고 1명의 유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별 활동 등 다양한 그룹 형태를 제시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 형태 제시에 관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 형태를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해서는 유아들의 생각을 묻고 반영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전문가 협의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반영 사항은 표 40과 같다.

<표 40> 1차 전문가 협의 후 전문가 의견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OT 내 안에 있는 감정 친구들은 누구 누구?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 프로그램 소개하기</li> <li>•영화 인사이드아웃 감상하기</li> <li>•또래 유아의 감정 알아맞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통해 유아들이 활동에 관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li>•또래의 감정을 유추해 보고 알아맞히는 게임 활동은 공감교육에 있어 의미 있어 보임. 그러나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관해 어려워하는 유아들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몸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포함하였음</li> </ul>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 남편과 아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아내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놀이영상 제작하기</li> <li>•나의 마음을 그림 및 언어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 기관에서 경험하는 극놀이활동이 영상으로 제작되는 경험은 유아들에게 흥미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2회차 안에 극놀이영상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아들이 공감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차를 조정하여 수정하였음</li> </ul>
아빠와 함께하는 나들이를 꿈꾸며... [항상 바쁜 아빠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한나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 인형극</li> <li>•아빠에게 편지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들을 배려하여 영상편지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제시하는 등 표현의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글로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포함하였음</li> </ul>
양보를 할까? 말까? [동생의 탄생으로 변화하는 가족을 보며 힘들어하는 피터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만의 책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활동의 목표에 맞게 책을 전시하기보다는 완성된 책을 동생에게 선물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지 활동의 마무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의 중요도를 고려해 제외하였음</li> </ul>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그림책으로 보는 다양한 가족 구성 이야기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놀이</li> <li>•나의 감정 또는 또래의 감정에 관해 그림 및 글자로 일기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가족 구성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라 다소 조심스러우며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유아가 있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li> <li>•한 부모나 조손가정 유아들은 측은하다는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li> </ul>
내가 하는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또래로부터 속상했던 경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래로부터 속상했던 경험 나누기</li> <li>•공감했던 내용 그림 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선정이 적절하며 동화 내용이 만 5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제시라 익숙한 내용인 만큼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li> <li>•또래로부터 속상했던 경험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자료로 그림책의 내용이 매우 적절해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의 중요도를 고려해 제외하였음</li> </ul>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충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 기사 작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의 일상과 가까운 소재와 내용인 만큼 공감활동으로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임.</li> <li>•유아들이 공감으로 이어지기 좋은 내용으로 생각됨. 충간 소음에 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선정하였음</li> </ul>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좋아하는 애완동물 조사하기</li> <li>•포스터 제작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공감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li> <li>•유아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감을 끌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는 소재로 구성하기 위해 제외하였음</li> </ul>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p>동물들에게 권리를 선물해요! [동물복지에 관해 생각해 보는 이야기]</p>	<p>•오디오북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고래와 코끼리 두 종류의 동물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li> <li>•코끼리는 그림책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동물원에서도 만날 수 있는 동물로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물인 만큼 유아들의 감정이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li> <li>• ‘동물들에게 권리를 선물해요’와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li> </ul>	<p>•활동의 중요도를 고려해 제외하였음</p>
<p>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유기견에 관해 생각해 보는 이야기]</p>	<p>•공익 광고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이 공감하기 좋은 소재로 유아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li> <li>•유아들의 일상생활 속 실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감대상이라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 </ul>	<p>•활동의 중요도를 고려해 제외하였음</p>
<p>항상 우리는 너의 옆에 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p>	<p>•동시 짓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들에게 저장버스의 개념은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li> <li>•활동 진행 시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li> </ul>	<p>•유아들에게 좀 더 친숙한 소재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음</p>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p>다 같은 친구 [검은색 피부로 인한 속상함을 표현하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p>	<p>•노래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며, 노래 만들기로 공감표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활동 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감교육은 필요해 보임. 그러나 두 개의 다문화 관련 활동은 내용이나 흐름 상 통합하여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 같은 친구!’와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두 활동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 같은 친구’와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두 활동은 통합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li> </ul>
<p>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p>	<p>•사진 촬영하기 •사진 전시회 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족에 관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내용으로 현시대를 반영했을 때 필요한 활동으로 보임. 다만 활동의 내용으로 엄마의 어려움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이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의 엄마에 대한 편견이 심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li> <li>•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언어로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흥미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유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행 방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일회용 사진기를 활용한 사진 촬영은 파인더(finder)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로 익숙하게 사진을 찍어온 유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촬영 도구에 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족 모두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음</li> <li>• 파 인 더 (finder)의 크기를 고려하여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li> </ul>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p>믿어지지 않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p>	<p>•상상화 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여러 나라 아이까지 폭넓게 공감대상을 선정하여 이웃 나라 아이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음. 이 과정에서 유아들의 다양한 반응이 공감에 대한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책, 광고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감상황 제시가 유아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상상화를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공감대상의 상황을 유추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의미 있어 보임. 다만 공감대상의 현재 상황적인 측면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공감대상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 그려보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대상의 현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의 상황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대상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선물하고 싶은 것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수정하였음</li> </ul>
<p>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전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의 이야기]</p>	<p>•상상화 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광고자료는 유아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자료로 적절해 보임</li> <li>•유아들이 전쟁이라는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고자료는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임</li> <li>•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 혹은 형님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감대상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li> <li>•전쟁이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공감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의미 있어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선정하였음</li> </ul>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통받는 북극곰의 이야기]	•북극곰 신체표현하기 •뉴스 제작하기	•북극곰 사진을 통해 만 5세 유아들 에게 북극곰에 대한 충분한 감정이 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 감대상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 하도록 하는 자료로 매우 적절해 보임 •뉴스 진행자가 북극 현장을 연결하 여 북극곰들의 상황을 전하는 뉴스 제작활동은 여러 명의 유아가 흥미 롭게 진행할 수 있는 놀이라 유아 들의 참여와 흥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본 프로그램 의 활동으로 선정하였음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바다오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바다생물들의 이야기]	•바다생물 신체표현하기 •바다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바다 오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바 다생물들을 표현해 봄으로써, 바다 생물들에 대한 미안함을 경험할 기 회가 될 것으로 보임 •사진 속 거북이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경험은 공감활동에서 매우 의 미 있어 보임.	•본 프로그램 의 활동으로 선정하였음

이와 같은 전문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시안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9개의 활동은 표 41과 같다.

<표 4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활동 최종선정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교수-학습 자료
OT 내 안에 있는 감정 친구들은 누구 누구?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소개하기]	•안내- 프로그램 소개하기 •영화 ‘인사이드아웃’ 감상하기 •또래 유아의 감정 알아맞히기	•매체 자료: 영화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 소개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e_uhs0ejNE">https://www.youtube.com/watch?v=Le_uhs0ejNE</a> ), PPT 자료- ‘공감이란?’,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소개’,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 •실물 자료: 신호악기, 모래시계 •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기타: 점수판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교수-학습 자료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 남편과 아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아내의 이야기]	•극놀이 영상제작하기 •엄마에 관해 공감하는 마음 담아 편지쓰기 (기록 또는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돼지책’, PPT 자료- ‘돼지책’,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하트모양 종이</li> <li>•표현 도구: 극놀이 소품(앞치마, 가방, 유아용 자동차, 의자, 여러 옷, 신문, 음식모형, 그릇, 수세미, 유아용 키친세트, 이불, 청소도구)</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CD플레이어, 음악 CD,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휴대전화</li> </ul>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충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	•신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영화- ‘사뿐사뿐 콩’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Wqe0aV2HxM">https://www.youtube.com/watch?v=uWqe0aV2HxM</a>),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4절 색지, 신문을 꾸미는 모양 종이(신문 이름, 발행일, 특종, 담당자 서명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li> </ul>
노는 게 제일 좋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시 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영화- ‘모두의 놀이터’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gUEBKmDzNY">https://www.youtube.com/watch?v=igUEBKmDzNY</a>). 뉴스- ‘우리도 놀고 싶어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전국 23곳뿐’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N7h1cZCG3D">https://www.youtube.com/watch?v=bN7h1cZCG3D</a>), 신문- 경기일보 ‘무장애 애통합놀이터 태부족’ (5부), PPT 자료- ‘우리도 놀고 싶어요!’,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다양한 색깔의 4절 색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li> </ul>
어떤 마을일까? [검은색 피부로 인한 속상함을 표현하는 아이와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	•사진 촬영하기 •포스터 제작하기 •사진 전시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PPT 자료-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포토보이스 활동 방법 소개, 영상-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L_6pzPK9KM">https://www.youtube.com/watch?v=iL_6pzPK9KM</a>), ‘검은색이 제일 싫어’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M-JNX6bEU">https://www.youtube.com/watch?v=IM-JNX6bEU</a>), 사진- ‘다문화가정의 아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떠올라요’,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색종이, 4절 색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음악 CD, CD플레이어</li> </ul>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교수-학습 자료
<p>믿어지지 않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p>	<p>•상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 PPT 자료- ‘거짓말 같은 이야기’, 광고- ‘담배공장 미나의 포기할 수 없는 꿈’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9Y71K03ZG0">https://www.youtube.com/watch?v=v9Y71K03ZG0</a>),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걷는 12시간’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fzKWHe-nw">https://www.youtube.com/watch?v=JfzKWHe-nw</a>),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8절 흰도화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li> </ul>
<p>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전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의 이야기]</p>	<p>•상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사냥물 저쪽’, PPT 자료 ‘사냥물 저쪽’, 영상- ‘전쟁에 맞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눈물’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jR4oXYGmcw">https://www.youtube.com/watch?v=NjR4oXYGmcw</a>),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8절 흰도화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li> </ul>
<p>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통받는 북극곰의 이야기]</p>	<p>•북극곰 신체표현하기 •뉴스 제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PPT 자료-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사진- ‘지구온난화에 고통받는 북극곰, 북극곰의 눈물!’ (출처: <a href="https://blog.naver.com/hooxicreative/221723395560">https://blog.naver.com/hooxicreative/221723395560</a>), 광고- ‘기후변화를 막고 녹아내리는 북극에서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9V5MBqhLRc">https://www.youtube.com/watch?v=u9V5MBqhLRc</a>),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모형 자료: 동물 모형(북극곰), 마이크</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다양한 색깔의 4절 색지, 8절 스케치북</li> <li>•표현 도구: 신체표현 소품(전지, 흰 종이로 포장한 과자 상자, 하드보드지로 제작된 빙하,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CD플레이어, 음악 CD,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휴대전화</li> </ul>

활동명 [내용]	활동방법	교수-학습 자료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바다오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바다생물들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다생물 신체표현하기</li> <li>•바다쓰레기 분리수거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플라스틱 섬’, PPT 자료 - ‘ ‘플라스틱 섬’, 사진-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출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091&amp;cid=47309&amp;categoryId=47309">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091&amp;cid=47309&amp;categoryId=47309</a>), 뉴스 - ‘해양생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실태 어떻게래’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ANRNdkEAAk">https://www.youtube.com/watch?ANRNdkEAAk</a>), 그림- ‘감정 그림(어휘) 카드’</li> <li>•실물 자료: 신호악기, 재활용품(음료수 캔, 우유갑, 종이컵, 과자상자, 휴지심, 과자봉지, 요구르트 병, 생수통, 플라스틱 컵 등), 분리수거함</li> <li>•모형 자료: 동물 모형(바다 동물)</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 도구</li> <li>•표현 도구: 신체표현 소품,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CD플레이어, 음악CD</li> <li>•기타: 점수판</li> </ul>

## (2)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기관이 아닌 동일한 지역의 국공립 S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총 12명(남아 6명, 여아 6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6일, 10월 13일 이틀간 예비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활동별 소요 시간은 40~60분이었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자가 실행하였으며 담임교사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비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의 내용, 교사의 역할, 프로그램 전개 방법 등 유아 공감교육 진행에 관해 전반적인 안내를 하였다.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실행 후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정·보완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예비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 9개의 활동 중 2개의 활동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감요소 탐색 단계에서 그림책 및 관련 영상을 감상하고 유아가 공감대상의 감정 및 그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감정 어휘가 제한적임이 관찰되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는 유아들이 느낀 감정을 좀 더 다양하면서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그림(어휘) 카드를 제시하여 유아들이 감정에 관해 폭넓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총 60장의 감정그림(어휘) 카드에는 중복됨이 없이 다양한 표정과 그에 적합한 어휘로 표현되어 있어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도 감정그림(어휘) 카드를 살펴보며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에 실험 처치 과정에서 해당 활동과 관련 있는 감정그림(어휘) 카드를 준비하여 화이트보드에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공감상황 인식 단계인 그림책 감상 활동 시 그림책을 활용하여 감상 활동을 진행하기보다 모든 유아가 그림책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PPT로 제작하여 들려주어 유아들의 집중과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PPT로 제작 시 빛이 반사되어 등장인물의 표정이 불분명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 PPT로 제작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감요소 탐색 단계와 공감상황 인식 단계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해 공감대상의 상황을 살펴보며 유아들과 관련 경험이나 느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수줍어하거나 주저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활동의 내용은 이해하고 있으나 표

현하는데 좀 더 확신을 갖고 표현하고자 하는 유아들을 위해 교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경험한 관련 사례나 느낀 감정을 들려주어 유아들이 교사를 모델링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감표현 단계에서 활동의 내용에 따라 유아들이 그림책을 직접 살펴보려 하거나 참고하기 위하여 그림책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는 언제나 그림책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의 그림책을 넉넉하게 여러 권 준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감요소 탐색 단계 및 공감상황 인식 단계에서 교사는 충분한 상호작용으로 유아들의 공감상황 및 공감대상에 관해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며 공감표현 단계에서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단계마다 필요한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질문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감표현 단계에서 활동에 따라 유아들이 공감을 표현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들이 공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충분히 몰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아들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당일 활동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하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다음 활동 시간에 여유를 갖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감표현 단계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내향적인 유아들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반면 소그룹 또는 개인별로 역할을 나누어 참여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의욕적인 모습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또래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하며 참여를 이끌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 형태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보조교사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담임교사는 본 프로그램에 포함된 각각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그날의 일과를 마친 후 담임교사와 활동 내용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며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원활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예비연구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 교수 전략, 교수-학습 자료, 교사의 역할 등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시안에 반영하였다.

### (3) 2차 전문가 협의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2차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였다. 2차 전문가 협의에서는 1차 전문가 협의 시 참여했던 전문가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를 포함하였다.

1차 전문가 협의 후 수정된 상황과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정·보완되었는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종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재점검하였고, 재점검 과정에서 특별한 제안이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2) 프로그램 최종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목적 및 목표	목적	•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			
	목표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			
교육 내용	공감교육 내용	인지적 공감	•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 상황 인식하고 이해하기		
		정서적 공감	•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공유하기		
		소통적 공감	•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		
교수 학습 방법	교수-학습 원리	•상황수용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협력적 소통의 원리 •통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교수-학습 과정	공감요소 탐색	•동기부여 및 공감요소 탐색하기 -그림책(영화, 신문, 뉴스, 광고, 영상)을 보고 경험 나누며 동기 유발하기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요소 발견하기		
		공감상황 인식	•공감대상의 감정과 상황 인식하기 -그림책(영화, 신문, 뉴스, 광고, 영상) 속 공감대상 상황 인식하기 -공감대상 및 나의 감정 인식하기 -공감대상에게 감정이입한 후, 나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기 -공감대상에서 하고 싶은 말, 이야기해 보기		
		공감표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 표현하기 -문학, 극놀이, 신체표현, 사진, 미술, 음악 등으로 표현하기		
		공감적 감상·소통	•공감 작품 감상 후 소통하고 평가하며 실천하기 -공감요소에 기초하여 공감을 표현한 유아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소통하고 공유하기 -작품 전시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적절히 전시·감상하며 내면화하기		
	교수-학습 활동	•통합적 예술활동: 문학, 영화, 극놀이영상 제작, 신체표현, 사진, 미술, 음악			
	교수 전략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협동활동 제공하기	•공감표현 촉진하기 •추론활동 제시하기		
	교사 역할	•계획자 •감정표현 촉진자	•환경 제공자 •공감적 지지자	•동기 유발자 •평가자	
교수-학습 자료	•매체 자료, 실물 및 모형 자료, 표현 자료 및 표현 도구, 소리 및 영상기기				
평가	유아	•자기평가: 활동 회상 및 과정 평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 •교사에 의한 평가: 유아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결과물 분석			
	교사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그림 3]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최종안

## (1) 교육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셋째,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

## (2) 교육 내용

본 연구의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공감의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 상황 인식하고 이해하기이다. 정서적 공감의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공유하기이다. 소통적 공감의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활동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공감교육 활동으로 19회기를 계획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 계획은 표 42에서 제시하였다.

<표 4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활동계획 및 내용

차시	공감 주제	공감 교육 내용	활동명	활동 내용
1	나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친구들은 누구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엔테이션- ‘공감’ 의미 알아보기</li> <li>•19회차 프로그램 소개하기</li> <li>•영화 ‘인사이드 아웃’ 주요 장면 감상하기</li> <li>•감정 카드 확인 후 몸으로 표현해 보기</li> <li>•또래가 표현하는 감정 알아맞히기</li> </ul>
2 3 4	가족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감상하기</li> <li>•극놀이영상 제작활동에 참여하기(신체 및 악기 활용하여 효과음 만들기, 영화 제작에 활용되는 소품 만들기, 극놀이영상 제작하기)</li> <li>•회사일과 집안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림책 속 공감대상인 엄마 또는 우리 엄마에 관해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기록 또는 영상)</li> <li>•완성된 영상은 다 함께 감상하기</li> <li>•편지 쓴 내용 함께 공유하기</li> </ul>
5 6	이웃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사뿐사뿐 콩’ 감상하기</li> <li>•충간소음에 관한 경험을 나누기</li> <li>•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신문 기사 작성하기</li> <li>•충간소음 발생하는 사진 촬영하기</li> <li>•신문 꾸미기(광고, 날씨, 정보)</li> <li>•완성된 신문 기사를 소개하고 전시하기</li> </ul>
7 8	장애	소통적 공감	노는 게 제일 좋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모두의 놀이터’ 및 관련 뉴스 감상하기</li> <li>•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의 이용이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는 책 만들기</li> <li>•이야기에 어울리는 삽화 그리기</li> <li>•완성된 책을 감상하며 소개하고 전시하기</li> </ul>
9 10 11	다문화		어떤 마음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감상 후 관련 영상 감상하기</li> <li>•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 및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기</li> <li>•사진 전시회 준비하기(초대장, 포스터)</li> <li>•사진 전시회 열기(작품 감상하기)</li> <li>•사진 촬영하게 된 동기를 또래에게 소개하기</li> </ul>

차시	공감 주제	공감 교육 내용	활동명	활동 내용
12 13	세계 여러 나라		믿어지지 않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및 관련 광고 감상하기</li> <li>•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 아이들의 상황 살펴보고, 그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을 그려보기</li> <li>•완성된 그림을 감상하며 또래에게 소개하고 전시하기</li> </ul>
14 15	전쟁	인지적 공감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및 관련 광고 감상하기</li> <li>•전쟁으로 인해 아빠와 떨어져 지내며 고충을 토로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느낌 나누기</li> <li>•전쟁의 비극성을 무채색으로만 표현한 명화(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한 후, 내가 만약 명화 속 인물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지 상상하면서 게르니카 작품에 채색 활동 및 말풍선을 활용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해 보기</li> <li>•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또래에게 소개하고 전시하기</li> </ul>
16 17	동물 · 환경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극곰 사진 감상하기</li> <li>•그림책 및 관련 광고 감상하기</li> <li>•뉴스 제작 활동에 필요한 소품 제작하기 (마이크, 자막 뉴스, 뉴스룸 꾸미기)</li> <li>•신체 및 악기 활용하여 효과음 만들기</li> <li>•지구온난화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극곰을 몸으로 표현하기</li> <li>•북극곰을 공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극곰 소식을 전하는 뉴스 제작하기</li> <li>•완성된 뉴스를 다 함께 감상하고 생각 나누기</li> </ul>
18 19	동물 · 환경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다거북 사진 감상하기</li> <li>•그림책 및 관련 뉴스 감상하기</li> <li>•바다 오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바다생물들을 몸으로 표현하기</li> <li>•바다생물들을 위해 오염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하기</li> <li>•바다생물들을 몸으로 표현해 본 느낌 공유하기</li> </ul>

### (3) 교수-학습 방법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전략, 교사 역할, 교수-학습 자료로 제시하였다.

#### ① 교수-학습 원리

본 연구에서 기초로 하는 교수-학습 원리는 상황수용의 원리, 협력적 소통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흥미 중심의 원리, 통합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이다.

#### ② 교수-학습 과정

본 연구의 교수-학습 과정은 1단계 공감요소 탐색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유아들이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공감요소를 탐색한다. 2단계 공감상황 인식은 유아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분석하고 인식한다. 3단계 공감표현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을 표현해 본다. 4단계 공감적 감상·소통은 공감 작품을 감상하고 공감한 내용을 소통·공유하며, 이를 평가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③ 교수-학습 활동

본 연구의 교수-학습 활동은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신체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등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 ④ 교수 전략

본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전략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협동활동 제공하기, 공감표현 촉진하기, 추론활동 제시하기이다. 이외에도 유아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와 충분히 공감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 ⑤ 교사 역할

본 연구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 공감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동을 구성·계획하는 계획자, 유아들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및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 제공자, 유아가 공감교육 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기 유발자, 유아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정표현 촉진자, 유아 공감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유아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공감하며 지지해 주는 공감적 지지자,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 방법에 관해 보완하고 개선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 ⑥ 교수-학습 자료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는 매체 자료, 실물 자료, 모형 자료, 표현 자료, 표현 도구, 소리 및 영상기기 등이 있다.

### (4) 평가

본 연구의 평가는 대상에 따라 유아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평가로 나누

어 실행한다.

첫째, 유아평가는 자기평가와 교사에 의한 평가로 구분된다. 자기평가로서 활동 회상 및 과정 평가하기, 활동에 대한 만족도 이야기 나누기가 있다. 교사에 의한 평가로는 유아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결과물 분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교사평가는 연구자 스스로 하는 평가로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를 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양적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 IV.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3주간 총 26회 활동을 실행하였다.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실행하였다. 본 활동의 연구 대상 및 진행 과정과 자료수집, 분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

##### (1) 유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국공립 G 어린이집 만 5세 18명은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동일한 지역의 국공립 B 어린이집 만 5세 18명은 비교집단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 5세로 연구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교육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발달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김희영, 홍지명, 2017), 특히 만 5세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따른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로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상

황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바른 언어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박성희, 2012). 따라서 건강한 인성을 토대로 타인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도를 기르는데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만 5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타인을 인식하는 조망 확대가 발달하는 시기이다(양가원, 2022; 이윤경, 박경애, 2023).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입장과 생각에 관심을 두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관계 기술 습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만 5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Lane et al., 2010).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표현임을 고려해 볼 때 감정인식과 조절능력이 발달 중인 만 5세 유아들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시기이다. 넷째,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가정하여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인 공감능력이 학령기 직전이 되어야 나타난다고 하였다(박성희, 2004).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을 만 5세 유아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만 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본 연구 목적을 안내하였으며,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두 어린이집은 교육 수준 및 사회문화적으로 가정환경 및 생활 수준이 비슷한 유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 및 평균 월령은 표 43과 같으며, 월령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 및 평균 월령 비교

집단	사례 수			평균월령	t
	총	남	여		
실험집단	18	9	9	69.50	.149
비교집단	18	10	8	69.33	

## (2) 연구기관

연구기관으로 경기도의 사회문화적 맥락 특성상 다문화 아이들이 꾸준히 증가(세계시민포럼, 2024)하고 있는 D시에 소재한 국공립 G어린이집을 임의 표집을 하였다. 임의표집으로 선정한 G 어린이집은 연구자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며 연구자가 근무했던 기관으로 연구 환경이 친숙하여 연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연구기관인 G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며 총 보육 정원 60명으로 만 1세반 1학급, 만 2세반 2학급, 만 3세반부터 만 5세반까지는 각 1학급으로 총 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과 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만 1세~만 2세반은 4차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 3세~만 5세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2) 연구 설계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전검사,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사전검사는 202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1주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로 의사소통 능력 검사와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만 5세 G 어린이집 유아 18명(남아 9명, 여아 9명)을 실험집단으로 지정하고, B 어린이집 유아 18명(남아 10명, 여아 8명)을 비교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13주간 주 2회 실시하였고, 1회에 40~60분씩 총 26회 진행하였으며, 비교집단 유아들에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사는 실험 처치가 끝난 후 2024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1주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표 44와 같다.

<표 44>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_1$	$X_1$	$O_3$
비교집단	$O_2$	$X_2$	$O_4$

$O_1, O_2$ : 사전검사(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O_3, O_4$ : 사후검사(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X_1$ :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시

$X_2$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시

###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사소통 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우혜진(2012)이 개발한 사회적 합의 능력 검사 도구 중에서 ‘의사소통능력 검사 도구’를 수정·보완한 양서영(2016)의 ‘유아 또래 간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의 내용 및 검사 방법,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 내용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의 평가는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 리더십, 책임감, 정직 등 9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책임감, 정직을 제외한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 6가지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본 검사 도구의 사전검사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8이며, 사후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5와 같다.

<표 45> 의사소통 능력 검사의 영역별 검사 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내용	문항수	Cronbach's $\alpha$
경청	1~5	친구가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듣는 행위와 그에 어울리는 반응 예) 친구의 이야기에 반응하면서 듣기	5	.95
예의	6~9	친구에게 예의를 갖추어 나타내는 말과 행동 예) 친구에게 바르게 행동하기	4	.92
배려	10~14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 예)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주기	5	.92
인정	15~19	친구의 생각을 수긍할 줄 알며, 나의 잘못은 받아들이는 마음 예) 친구에게 잘못했을 경우 사과하기	5	.91
존중	20~25	친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은 하지 않으며 친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예) 친구와 자신은 다름을 알고 존중하기	6	.95
절제	26~30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표현하는 말과 행동 예) 기분이 상해도 화풀이하지 않기	5	.91
전 체			44	사전/사후 .98

## ② 의사소통 능력 검사 방법 및 채점 방법

의사소통 능력 검사는 유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지내며 유아의 활동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사용 평가 도구이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가 각 문항의 내용에서 평소 유아의 언행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한다. 의사소통 능력 검사의 하위 변인 6가지에 속하는 각 문항에 따라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이 평정될 수 있으며,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 (2) 친사회적 행동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기술 상황 척도 ‘Skill Situation Measure’를 이원영 외(1993)가 번안하여 발췌·수정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를 이종향(2007)이 하위 요인별로 1문항씩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의 내용 및 검사 방법,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 내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의 평가는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학교 적응 능력 3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 능력을 제외한 개인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 2가지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본 검사 도구의 사전검사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이며, 사후검사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로 사후검사 신뢰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6과 같다.

<표 46>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영역별 검사 내용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내용	문항수	Cronbach' s $\alpha$	
개인 정서조절 능력	1~6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6		.83
		화가 무조건 날 때			
		친구가 놀릴 때			
		친구가 공평하지 못할 때			
		잘못된 행동 후 벌을 받을 때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					
대인관계 형성 능력	7~12	친구들 사이에 새로 참여하기	6		.77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친구의 슬픈 마음 위로하기			
		친구와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고 놀기			
		친구 도와주기			
친구 활동 끝어들이기					
전 체			18		
				사전	.85
				사후	.88

② 친사회적 행동 검사 방법 및 채점 방법

친사회적 행동 검사는 연구기관 내 조용한 공간에서 검사자와 유아가 만나 진행하였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유아의 이름, 날씨 등에 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검사 방법에 관해 간단히 안내한 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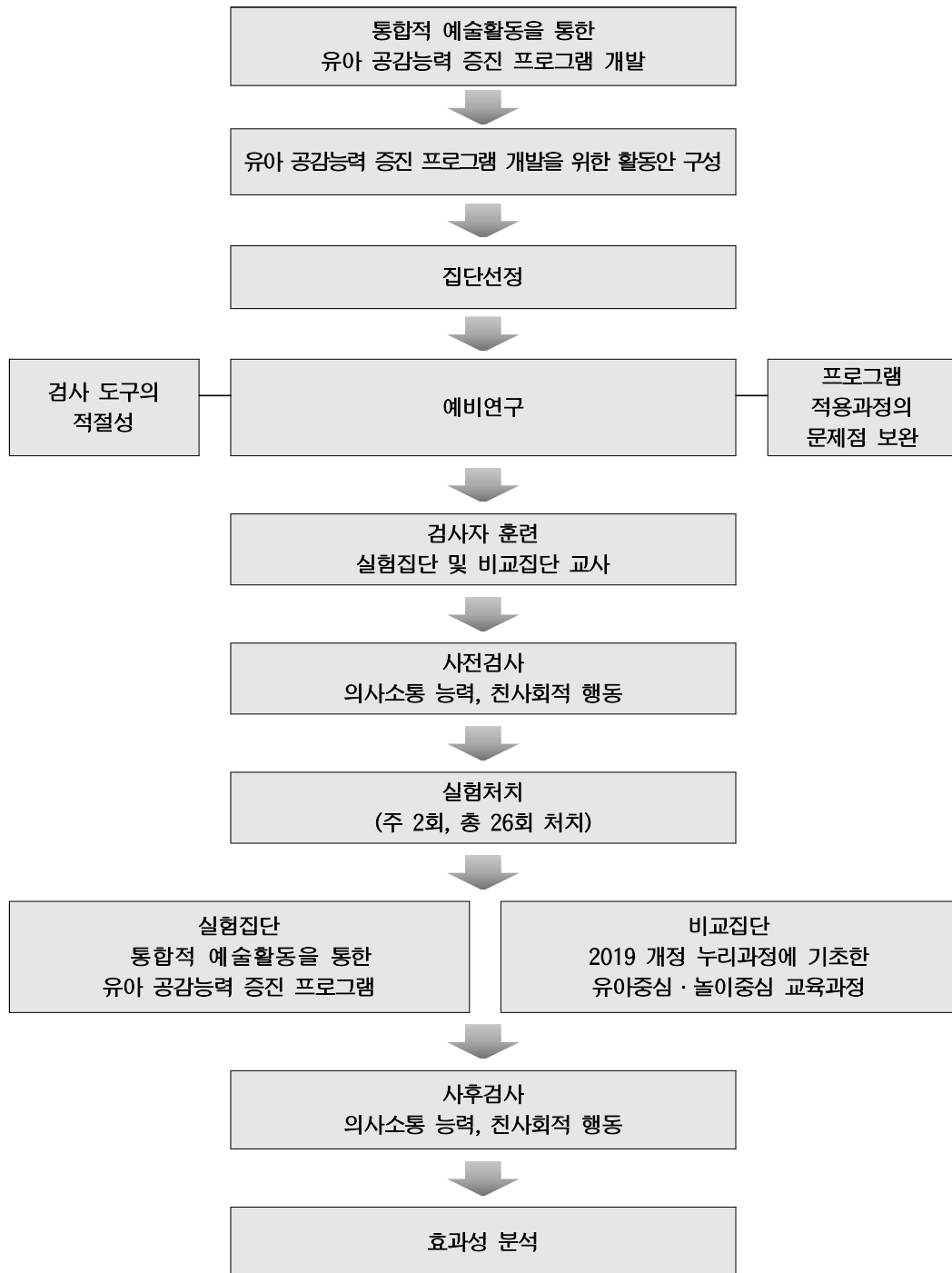
검사는 각각의 문항에 관해서 검사자의 질문을 들은 유아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문항의 상황을 담은 그림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종향(2007)이 제작한 그림 자료로서 A4 크기로 제작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검사자가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해당하는 내용의 질문을 한 후, 유아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과 동시에 녹음기로 녹음하여 유아의 반응 기록과 녹음 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검사 시간은 한 유아 당 10분~12분 정도 소요되었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채점 방법은 문항별 질문에 따른 유아의 대답을 검토하여 친사회적 행동 반응(감정 조절, 또래와 어울리려는 노력, 제안, 양보,

협동, 감정호소, 타인존중, 정직), 비친사회적 행동 반응(회피, 무시, 협박, 신체적, 언어적 위해나 공격), 무관련 반응, 무반응으로 범주화한 후, 신미영(2022)이 채점한 방식으로 친사회적 행동 반응에만 1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비친사회적 행동 반응, 무관련 반응, 무반응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상황에서 ‘다음에는 나랑 짝꿍 하자’ 또는 ‘다음에는 같이하면 좋겠어’ 라고 답변하면 친사회적 행동 반응으로 생각해서 1점을 부여하고, ‘나 화났어, 너 때문이야’ 또는 ‘다른 친구랑 짝하지 말고 나랑 짝하자’ 라고 답변하면 비친사회적 행동 반응으로 생각해서 0점으로 처리하였다. 각 요소의 점수 범위는 개인 정서조절 능력 0~6점, 대인관계 형성 능력 0~6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0~1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 반응이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 반응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 4)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앞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려 사항들을 숙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검사 도구의 적절성 및 프로그램 적용 과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실험 처치를 시행하기 전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검사자 훈련을 실시한 후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연구자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검사를 수행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감활동을 마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 절차

## (1) 예비연구 및 검사

### ① 검사 도구에 대한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 도구의 소요 시간과 적절성 및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알아보고자 만 5세 담임교사에게 유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9일~26일까지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검사의 경우 만 5세 담임교사가 1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예비연구에 참여할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검사 문항과 평가 내용, 평정 기준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문항 및 평정 기준에 대한 의문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검사 도구의 예비연구에 참여했던 담임교사가 제기한 각 응답 항목의 구체적인 빈도나 상황에 대한 의문점은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교사들에게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한 유아 당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경우 친근감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1로 검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상황과 여러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평소 유아들이 이용하던 공간이 아닌 경우 주변을 돌아보는 등 산만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기 전 유아들과 라포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유아들이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이 요구됨을 논의하였다. 이에 유아들이 검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독립된 조용한 교실로 유아들에게 익숙한 별도의 공간에서 연구자와 유아가 1:1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는 검사 문항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유아들에게 제시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한 유아 당 10분~12분 정도 소요되었다.

## (2) 검사자 훈련 및 교사 훈련

### ① 검사자 훈련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2024년 3월 20일~3월 26일까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검사 도구의 문항, 평가 내용 및 평정 기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숙지하도록 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해 교사들이 각 응답 항목의 구체적인 빈도나 상황에 관해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이 점을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사전검사를 실행하기 전 각 반의 유아 5명을 대상으로 예비평정을 하도록 안내한 후 검사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을 연구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검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 ② 교사 훈련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인 2024년 3월 22일, 3월 25일 이틀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목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 연구승인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요구사항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실험집단의 교사는 본 연구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활동 운영상 유의할 점, 평가 방법 등과 관련된 교사 훈련을 2024년 4월 1일~4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방식은 설명, 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활동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실험집단 교사와 의견을 나누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활동에 반영하여 실행하였다. 비교집단 교사에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 (3) 사전검사

본 연구의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적용 전인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전검사는 담임교사와 연구자가 나누어 진행하였다.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검사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일상생활 속 놀이상황 및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한 후 측정하였고,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유아와 놀이시간에 별도의 조용한 공간에서 1:1로 만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검사자와 유아 간의 라포 형성을 위해 검사 실시 전에 일상생활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검사 방법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 (4) 실험 처치

#### ① 실험 처치 기간과 일과 운영 계획

본 연구의 실험 처치는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만 5세 유아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가공휴일(22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탄신일) 및 근로자의 날로 가정 보육이 이루어진 날을 제외하고 13주 동안 주 2회 총 26회에 걸쳐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주관하여 실행되었으며, 실험집단의 교사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유희수와 윤수진(2022)의 공감 관련 프로그램 연구 동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감교육 활동 운영시간은 40~60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점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40~60분으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행되는 공감교육 활동은 대부분 협동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활동은 Vygotsky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기능적인 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Connery et al., 2010/2015). 즉, 협동활동은 학습자가 자발적이어야 하며,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다(정미숙, 2017). 또한, 통합적 접근의 예술활동은 정해진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조수현, 2012).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는 달리 교사가 활동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활동 내에서 선택하여 체험과 경험 방식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본 프로그램의 활동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요구될 때는 회당 운영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평균적으로 주 2회에 2개의 활동이 제시되었으나 활동 방법에 따라 애초 계획과 달리 당일에 마무리될 수 없는 활동의 경우에는 활동을 가깝스로 마무리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유아들에게 풍족한 시간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공감활동에 참여하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만 5세 유아반의 일과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이루어졌다. 실험 처치는 현장학습 및 원내 행사와 같은 일정이 없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였으며 일과 운영 중에서 실내 자유놀이 및 대·소집단 활동 시간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각각의 활동별 특성에 따라 대·소그룹, 개인별 활동으로 실행하였으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 활동에 참여 대상이 아니거나 소그룹 및 개인별 활동을 완료한 유아들은 자유놀이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실험집단에는 오전의 실내 자유놀이 및 대·소집단 활동 시간에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비교집단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윤리 차원에서 비교집단 유아들에게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림책

을 읽어주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계획은 표 47과 같다.

<표 4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계획

실험집단		비교집단	
시간	일과 내용	시간	일과 내용
07:30 ~ 09:30	등원 및 놀이	07:30 ~ 09:00	등원 및 놀이
09:30 ~ 10:00	오전 간식	09:00 ~ 10:10	오전 실내 놀이
10:00 ~ 11:00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대·소그룹, 개인별 활동)	10:10 ~ 10:30	오전 간식
		10:30 ~ 11:00	대소그룹활동
11:00 ~ 11:10	정리하기	11:00 ~ 12:20	오전 실외 놀이
11:10 ~ 12:20	오전 실외 놀이	12:20 ~ 12:30	정리 및 보육실로 이동
12:20 ~ 13:00	점심시간	12:30 ~ 13:20	점심시간
13:00 ~ 13:20	대집단활동 및 특별활동	13:20 ~ 14:20	자유놀이 및 휴식
13:20 ~ 14:50	오후 실내 놀이	14:20 ~ 14:30	정리하기
14:50 ~ 15:20	오후 간식	14:30 ~ 15:00	특별활동
15:20 ~ 16:30	자유놀이 및 귀가지도	15:00 ~ 15:30	오후 간식
16:30 ~ 19:30	연장보육 및 귀가	15:30 ~ 16:00	하루일과 평가
		16:00 ~ 19:30	연장보육 및 귀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교사는 진행된 활동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평가 내용은 다음 활동에 반영하였다. 적용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 초안은 표 48과 같고, 수정안은 표 49와 같다.

<표 48>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전체 내용(초안)

주	차	실시 시 날짜	통합적 예술활동 활동유형	활동 내용	활동명	공감 주제
1	1	4/3	영화, 신체	프로그램 소개하기 영화 감상하기 몸으로 감정표현하기 감정 알아맞히기	오리엔테이션 내 안에 있는 감정 친구들은 누구? 누구?	나
	2	4/5	문학, 미술, 음악, 극놀이영상 제작, 극놀이영상 감상	그림책 감상하기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가족
2	3	4/12		소품 및 효과음 만들기		
	3	4	4/17		극놀이영상 제작 및 감상하기 편지쓰기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5		4/19	영화, 사진, 미술	영화 감상하기 사진 촬영하기 신문 기사 작성하기 날씨·광고 만들기		
4	6	4/24		영화 감상하기 신문·뉴스 시청하기	노는 게 제일 좋아!	장애
	7	4/26	영화, 미술	책 만들기		
5	9	5/8	문학, 사진, 미술	그림책 및 영상 감상하기	어떤 마음일까?	다문화
	10	5/10		사진 촬영하기 전시회 준비하기		
6	11	5/17		전시회 열기	믿어지지 않아요!	세계 여러 나라
	12	5/22	문학 미술,	그림책 및 광고 감상하기		
7	13	5/24		상상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전쟁
	14	5/29	문학, 명화, 미술	그림책, 광고, 명화 감상하기		
8	15	5/31		채색 및 언어로 감정표현하기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동물 · 환경
	16	6/5	사진, 문학, 미술	사진, 그림책, 광고 감상하기 소품 만들기 및 뉴스룸 꾸미기		
9	17	6/7	신체, 음악,	북극곰 표현하기 뉴스 제작 및 시청하기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동물 · 환경
	18	6/12	사진, 문학, 신체	사진, 그림책, 뉴스 시청하기		
10	19	6/14		바다생물 표현하기 분리수거하기		

<표 49>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전체 내용(수정안)

주	차	실시 시 날짜	통합적 예술활동 활동유형	활동 내용	활동명	공감 주제
1	1	4/3	영화, 신체	프로그램 소개하기 영화 감상하기 몸으로 감정표현하기 감정 알아맞히기	오리엔테이션 내 안에 있는 감정 친구들은 누구? 누구?	나
	2	4/5	문학, 미술, 음악, 극놀이영상 제작, 극놀이영상 감상	그림책 감상하기 소품 및 효과음 만들기 극놀이영상 제작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2	3	4/12				
	4	4/17				
3	5	4/19		극놀이영상 감상 및 편지쓰기		
	6	4/24	영화, 사진, 미술	영화 감상하기 사진 촬영하기 신문 기사 작성하기 날씨·광고 만들기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이웃
4	7	4/26				
	8	5/3	영화, 미술	영화 감상하기 신문·뉴스 시청하기 휠체어 체험하기	우리는 다 같은 친구!	장애
5	9	5/8				
	10	5/10		나만의 책 만들기		
6	11	5/17	문학, 사진, 미술	그림책 및 영상 감상하기 사진 촬영하기 전시회 준비하기	어떤 마음일까?	다문화
	12	5/22				
7	13	5/24		전시회 열기		
	14	5/29				
8	15	5/31	문학, 미술	그림책 및 광고 감상하기 카드 작성하기	믿어지지 않아요!	세계 여러 나라
	16	6/5				
9	17	6/7	문학, 영화, 미술	그림책, 광고, 영화 감상하기 채색 및 언어로 감정표현하기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전쟁
	18	6/12				
10	19	6/14		동시 짓기		
	20	6/19	사진, 문학, 미술, 신체, 음악	사진, 그림책, 광고 감상하기 소품 만들기 및 뉴스룸 꾸미기 북극곰 표현하기 효과음 만들기 뉴스 제작하기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동물 · 환경
21	6/21					
11	22	6/26		뉴스 시청하기 및 노래 만들기(노래 재구성)		
	23	6/28				
12	24	7/3	사진, 문학, 신체, 미술	사진, 그림책, 뉴스 시청하기 바다생물 표현하기 분리수거하기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동물 · 환경
	25	7/5				
13	26	7/10		병풍책 만들기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은 표 50과 같다.


<표 50>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차시	구분	초안	변경안	변경이유
8~10	활동명	·노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다 같은 친구!	
8~10		·놀이터 이용이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 공감하기	·놀이터 이용이 어려운 아이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마음 공감하기	· 활동 내용 확장의 필요성으로 인한 변경 불가피성 확인
9	활동 내용		· 활동 추가 휠체어 경험하기	· 휠체어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는 대다수 유아의 반응 및 요구 반영
19			· 활동 추가	
23			동시 짓기, 노래 만들기(노래 재구성), 병풍책 만들기	· 활동 진행 과정에서 추가 필요성 발견
26				
10		· 그룹별 책 만들기	· 나만의 책 만들기	· 개별 책 만들기에 대한 유아들의 요구 반영
16	활동 방법	· 상상화	· 카드 작성하기	· 상상화에 대한 유아들의 요구 반영 및 연구자의 유아 관찰에 따른 활동 방법 변경 필요성 발견
2~5				
8~10		·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3회→4회)		
11~14	활동	· 우리는 다 같은 친구!(2회→3회)		· 활동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거나 활동이 추가되어 변경
17~19	운영	· 어떤 마음일까?(3회→4회)		
20~23		·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2회→3회)		
24~26		·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2회→4회)		
		·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2회→3회)		

표 4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공감주제는 나, 가족, 이웃, 장애, 다문화, 세계 여러 나라, 전쟁, 동물·환경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감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신체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등 관련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

하였으며, 공감 대상별로 적게는 2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의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의 교수-학습 과정은 1단계 공감요소 탐색하기, 2단계 공감상황 인식하기, 3단계 공감 표현하기, 마무리 4단계 공감적 감상·소통하기로 이루어졌으며,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공감교육에 관해 이해를 도우며, 활동에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PPT 자료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적용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상세 내용

차시	활동명	매체자료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흥미 중심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엔테이션- 유아들이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개하기</li> </ul>
			흥미 중심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영화 ‘인사이드아웃’ 주요 장면 감상하기</li> <li>•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li> </ul>
1	O.T 내 안에 있는 감정 친구들은 누구 누구?	영화 ‘인사이드아웃’	통합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 카드 확인한 후, 카드 속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보기</li> <li>•또래가 표현하는 감정을 알아맞히기</li> </ul>
			협력적 소통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을 몸으로 표현해 본 느낌 또래들과 나누기</li> <li>•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li> </ul>

차시	활동명	매체자료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2 ~ 5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그림책 '돼지책'	<p>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p>	<p>공감 요소 탐색</p> <p>•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림책을 감상하고 그림책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상황·감정 탐색하기</p>
			<p>상황수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p>	<p>공감 상황 인식</p> <p>•공감대상의 마음에 관해 상상해 보며 상황을 수용하고 공감대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해 보기</p>
			<p>통합의 원리</p>	<p>공감 표현</p> <p>•극놀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참여하기 •엄마에 관해 공감하는 마음 담아 편지쓰기(기록 또는 영상)</p>
			<p>협력적 소통의 원리</p>	<p>공감적 감상·소통</p> <p>•기록 또는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을 또래들과 감상하며 소통하기</p>
6 ~ 7	서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영화 '신문사뿐콩'	<p>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p>	<p>공감 요소 탐색</p> <p>•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상황·감정 탐색하기</p>
			<p>상황수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p>	<p>공감 상황 인식</p> <p>•공감대상의 마음에 관해 상상해 보며 상황을 수용하고 공감대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해 보기</p>
			<p>통합의 원리</p>	<p>공감 표현</p> <p>•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신문 기사 작성하기</p>
			<p>협력적 소통의 원리</p>	<p>공감적 감상·소통</p> <p>•완성된 작품(신문)을 또래들과 감상하며 소통하기</p>

차시	활동명	매체자료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8 ~ 10	우리는 다 같은 친구!	 영화 '모두의 놀이터'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요소 탐색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화를 감상하고, 뉴스와 신문을 본 후,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상황·감정 탐색하기
		 뉴스 '우리도 놀고 싶어요'	상황수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공감 상황 인식  •공감대상의 마음에 관해 상상해 보며 상황을 수용하고 공감대상에 하고 싶은 말 해 보기
		 신문 '무장애 통합놀이터 태부족'	통합의 원리	공감 표현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야기를 지어보기
11 ~ 14	어떤 마음일까?	 그림책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요소 탐색  •완성된 작품(이야기책)을 또래들과 감상하며 소통하기
		 영상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	상황수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공감 상황 인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책 및 영상을 본 후,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상황·감정 탐색하기
		 '검은 색 싫어'	통합의 원리	공감 표현  •공감대상의 마음에 관해 상상해 보며 상황을 수용하고 공감대상에 하고 싶은 말 해 보기
			협력적 소통의 원리	공감적 감상· 소통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 및 가족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기 •사진 전시회 열기 •작품을 또래들과 함께 감상하며 촬영 동기에 관해 소통하기

차시	활동명	매체자료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15 ~ 16	믿어지지 않아요	 그림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요소 탐색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림책, 관련 광고를 본 후, 자료 속 메시지 와 공감대상의 상황· 감정 탐색하기
		 광고 '물 한 모금 위해 걷는 12시간'	상황수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공감 상황 인식	•공감대상의 마음에 관 해 상상해 보며 상황 을 수용하고 공감대상 에게 하고 싶은 말 해 보기
		 광고 '담배공장 마의 꿈'	통합의 원리	공감 표현	•내가 만약 공감대상의 아이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본 후, 공감대 상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을 그림과 글 로 표현하기
			협력적 소통의 원리	공감적 감상· 소통	•완성된 작품을 또래들 과 감상하며 소통하기
17 ~ 19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림책 '시냇물 저쪽'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요소 탐색	•흥미를 일으키는 그림책 과 관련 광고를 본 후,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 대상의 상황·감정 탐색 하기
		 광고 '전쟁에 맞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눈물'	상황수용의 원리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	공감 상황 인식	•공감대상의 마음에 관해 상상해 보며 상황을 수 용하고 공감대상에게 하 고 싶은 말 해보기
		 명화 피카소의 게르니카	통합의 원리	공감 표현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 을 감상하고 전쟁 상황 을 상상하여 채색하고 작품 속 인물이 하고 싶 은 말을 말풍선에 표현 해 보기 •공감대상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지 상 상하여 동시 지어보기
			협력적 소통의 원리	공감적 감상· 소통	•완성된 작품을 또래들과 감상하며 소통하기

차시	활동명	매체자료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20 ~ 23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요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를 유발하는 사진을 보며 어떤 상황인지 예측하며 이야기 나누기</li> <li>• 그림책 감상하고 관련 광고를 본 후,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상황·감정 탐색하기</li> </ul>
		사진 '지구온난화에 고통받는 북극곰'			
			통합의 원리	공감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극곰을 공감하며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제작하기</li> <li>• 북극곰의 마음, 북극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 노래 만들기를 해 본다 (노랫말 재구성)</li> </ul>
		그림책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여주었어'			
	광고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24 ~ 26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흥미 중심의 원리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	공감 요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사진을 보며 어떤 상황인지 예측하며 이야기 나누기</li> <li>• 그림책, 관련 뉴스 본 후,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상황·감정 탐색하기</li> </ul>
		사진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통합의 원리	공감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 오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바다생물들을 몸으로 표현하기</li> <li>•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하기</li> <li>• 바다생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협동작품으로 병풍책 만들어 보기</li> </ul>
		그림책 '플라스틱 섬'			
	뉴스 '해양생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				

실험집단의 ‘어떤 마음일까?’ 활동안 예시는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공감 활동안 예시

활동명	(11회차~14회차) 어떤 마음일까?!	활동유형	문학·사진·미술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및 영상 속 대상(주인공)의 상황과 마음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li> <li>•사진을 활용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li> <li>•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안다.</li> </ul>		
공감 교육내용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		
활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PPT 자료-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포토보이스 활동 방법 소개, 영상-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1분 30초)’ (사례: 캐나다 다문화가정)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L_6pzPK9KM">https://www.youtube.com/watch?v=iL_6pzPK9KM</a>), ‘검은색이 제일 싫어(1분 2초)’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M-JNX6bEU">https://www.youtube.com/watch?v=IM-JNX6bEU</a>), 사진- ‘다문화가정의 아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떠올라요.’,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색종이, 4절 색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휴대전화 카메라), 음악CD, CD플레이어</li> </ul>		
활동 단계	공감 요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 표지, 먼지, 제목을 유아들과 함께 살펴보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예상해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책 표지를 보여주며 제목과 작가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 속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li> <li>•교사는 ‘예술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그림책을 읽어준다.</li> <li>•영상자료의 첫 화면을 살펴보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추측하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영상자료의 첫 화면을 보여주며 등장인물의 표정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li> <li>•영상자료- ‘캐나다 국적을 가진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 및 ‘검은색이 제일 싫어’ 를 함께 시청한다.</li> </ul>	
	공감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및 영상 내용을 회상하며 관련 경험·느낌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PPT 자료- 언어 장벽으로 인한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는 아이들 (사례: 캐나다 다문화가정)’ 및 피부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의 사례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li> <li>-두 사례 속 아이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ul>	

	공감 상황 인식	<p>-예슬이 엄마 구티엔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엄마, 엄마와 대화하고 싶지만,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 피부색으로 고민하는 아이의 감정 및 그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나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슬이 엄마 구티엔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엄마 및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피부색으로 고민하는 아이의 감정에 나의 감정을 이입한다.</li> </ul> <p>-베트남(캐나다) 사람이 한국어를 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p> <p>-엄마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볼 때의 내가 엄마 구티엔 또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엄마라면 어떤 마음일지 이야기 나눈다.</p> <p>-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엄마인데 영어로 소통은 힘겨운 아이 및 검은색 피부라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지 않아 속상해하는 그 아이가 나라면 어떤 마음일지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슬이 엄마 구티엔과 캐나다 국적을 가진 엄마, 그리고 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ul>
활동 단계	공감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 및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활동을 해본다.</li> <li>•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계획을 바탕으로 사진을 촬영한다.</li> <li>★사진은 개별 유아나 짝(2명) 또는 소그룹(3명) 별로 유아들이 원하는 참여 형태를 선택하여 활동을 수행한다.</li> <li>•사진을 촬영한 유아는 사진의 제목을 지어본다.</li> <li>•유아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액자 프레임을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색깔과 재질, 무늬의 색종이를 준비하여 제공해 준다.</li> <li>•유아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 전시회를 준비한다.</li> </ul> <p>-유아들과 논의하여 원하는 역할을 정한다.(예: 소품팀, 광고팀, 연출팀)</p> <p>-사진 전시회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만들고 사진 전시장을 꾸민다.</p> <p>-여러 사람들에게 사진전을 광고할 목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p> <p>-사진 전시회를 위하여 작품 전시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적절하게 전시한다.</p>
	공감적 감상·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된 공감 작품을 또래와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한다.</li> <li>•또래에게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된 동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li> <li>•또래의 사진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사진에 대한 생각, 느낌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사진 촬영하기 활동 과정을 회상하며 활동 과정에 관해 평가해 본다.</li> <li>•사진 촬영하기 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나의 감정 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 및 가족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li> <li>•사진 전시회장으로 만 4세 동생들을 초대하여, 참여를 원하는 동생들에게 자신의 사진 작품을 소개하는 경험을 해본다.</li> <li>•전시된 또래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감상하며 내면화한다.</li> <li>•다음 시간에 함께 할 활동에 관해 간략히 안내하고 마무리한다.</li> </ul>

## (5) 사후검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적용을 마친 후 2024년 7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5)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26회 적용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Windows 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3주간 공감활동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 공감활동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인인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3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교집단의 평균( $M=16.92$ ,  $SD=3.77$ )이 실험집단의 평균( $M=16.83$ ,  $SD=3.08$ )보다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두 집단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7$ ,  $p>.05$ ).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M=23.46$ ,  $SD=1.51$ )과 비교집단( $M=17.42$ ,  $SD=4.07$ )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5.91$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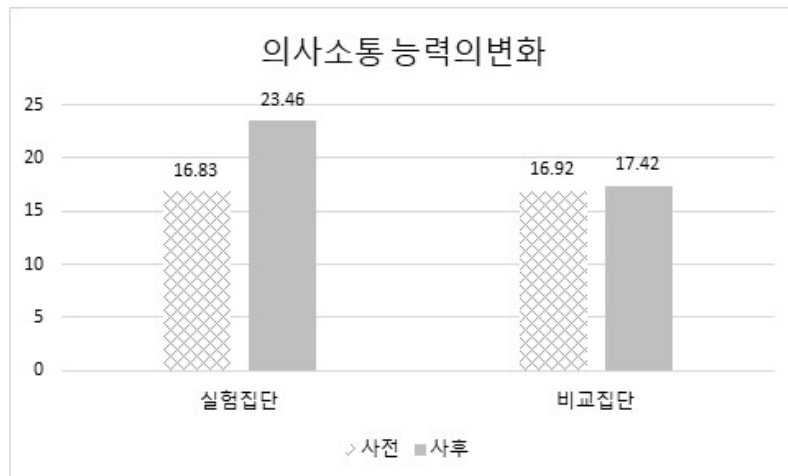
<표 53>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N=36)

하위 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t	M	SD	t
경청	실험	18	16.17	3.93	-.07	22.83	1.89	4.54***
	비교	18	16.28	4.98		16.78	5.33	
예의	실험	18	13.89	3.51	-.04	18.72	1.56	3.50**
	비교	18	13.94	3.93		14.39	5.01	
배려	실험	18	17.78	2.82	.24	23.83	1.79	4.38***
	비교	18	17.50	4.03		18.11	5.25	
인정	실험	18	18.11	3.34	-.33	23.89	1.94	8.13***
	비교	18	18.44	2.66		18.83	1.79	

하위 요인	집단	<i>n</i>	사전검사			사후검사		
			<i>M</i>	<i>SD</i>	<i>t</i>	<i>M</i>	<i>SD</i>	<i>t</i>
존중	실험	18	19.17	4.84	-.13	27.78	2.49	4.76***
	비교	18	19.39	5.26		20.33	6.15	
절제	실험	18	15.89	3.63	-.04	23.72	1.67	6.36***
	비교	18	15.94	4.18		16.06	4.83	
전체	실험	18	16.83	3.08	-.07	23.46	1.51	5.91***
	비교	18	16.92	3.77		17.42	4.07	

\*\* $p < .01$ , \*\*\* $p < .001$

표 5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각 하위 요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경청’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 $M=22.83$ ,  $SD=1.89$ )과 비교집단( $M=16.78$ ,  $SD=5.33$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54$ ,  $p < .001$ ). ‘예의’의 사후검사 또한 실험집단( $M=18.72$ ,  $SD=1.56$ )과 비교집단( $M=14.39$ ,  $SD=5.01$ )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t=3.50$ ,  $p < .01$ ). 다음으로 ‘배려’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M=23.83$ ,  $SD=1.79$ )과 비교집단( $M=18.11$ ,  $SD=5.25$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38$ ,  $p < .001$ ). ‘인정’의 사후검사 역시 실험집단( $M=23.89$ ,  $SD=1.94$ )과 비교집단( $M=18.83$ ,  $SD=1.79$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8.13$ ,  $p < .001$ ). ‘존중’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M=27.78$ ,  $SD=2.49$ )과 비교집단( $M=20.33$ ,  $SD=6.15$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t=4.76$ ,  $p < .001$ ), 마지막으로 ‘절제’의 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M=23.72$ ,  $SD=1.67$ )과 비교집단( $M=16.06$ ,  $SD=4.83$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6.36$ ,  $p < .001$ ).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의사소통 능력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비교집단의 유아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즉,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인인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감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인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4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M=4.22$ ,  $SD=1.02$ )과 비교집단( $M=4.25$ ,  $SD=0.49$ )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t=-.10$ ,  $p>.05$ ). 반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M=5.69$ ,  $SD=0.73$ )과 비교집단( $M=4.64$ ,  $SD=1.11$ )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37$ ,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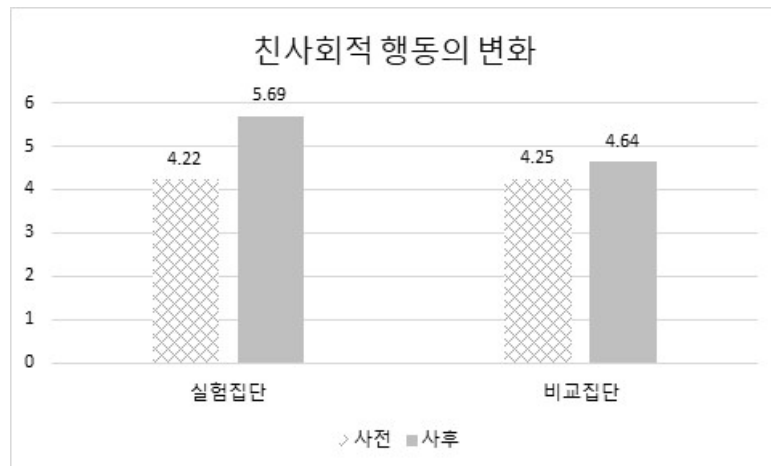
<표 54>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N=36)

하위 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t	M	SD	t
개인 정서 조절 능력	실험	18	3.72	1.13	.17	5.50	1.04	3.46**
	비교	18	3.67	0.77		4.06	1.43	
대인 관계 형성 능력	실험	18	4.72	1.18	-.33	5.89	0.47	2.44*
	비교	18	4.83	0.79		5.22	1.06	
전체	실험	18	4.22	1.02	-.10	5.69	0.73	3.37**
	비교	18	4.25	0.49		4.64	1.11	

\* $p<.05$ , \*\* $p<.01$ ,

표 5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 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 정서조절 능력’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 $M=5.50$ ,  $SD=1.04$ )과 비교집단( $M=4.06$ ,  $SD=1.43$ )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46$ ,  $p<.01$ ).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형성 능력’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 $M=5.89$ ,  $SD=0.47$ )과 비교집단( $M=5.22$ ,  $SD=1.06$ )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44, p<.05$ ).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즉 개인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비교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의미하며,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논의

#### 1)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의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를 시행하고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을 함양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 목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

절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한다.’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 Gordon, 2005/2010). 연구들에서는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가 각각의 극놀이, 그림책, 명화를 활용한 경험이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김정아, 2019;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 그러나 단일의 예술활동을 통한 감정 표현보다는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통합적 예술활동은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최진, 2014). 그뿐만 아니라 통합적 예술활동은 협동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또래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경험이 쌓여 공감능력 증진에 효과적(권난주, 안재홍, 2012; 김유진, 2022; 성순임, 2016; 이은경, 2017a)이다.

또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극놀이, 미술, 음악, 신체표현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달한다(박형신, 김영연, 2004). 특히 음악·미술과 같은 예술활동의 내용 영역 또는 단계로 볼 수 있는 탐색, 표현, 감상은 각각 분리되어 수행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은주, 2024; 홍명옥, 2007). 이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분절된 경험보다 통합된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amford & Wimmer, 2012).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극놀이, 미술, 음악, 신체표현, 문학과 같은 예술활동을 분절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으로 구성한 예술활동을 실행할 때 탐색, 표현, 감상 역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실행하는 것이 유아기 발

달에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통합된 경험이 강조되는 경향을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영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공감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강경희, 2019; 강은희, 2019; 김미정, 2011; 김창순, 2013;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우지연, 2017; 임영숙, 2018; 정하나, 2015; 조수연, 2017; Gordon, 2005/2010; Howe, 2012/2013)를 비교·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현장에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이다. 인지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생각, 상황 인식하고 이해하기 내용으로 구성하고, 정서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 공유하기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통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기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공감을 설정하였다. 인지적 공감은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추론하여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Howe, 2012/2013). 공감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공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박성희, 2004), 진정한 공감을 위해 인지적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정서적 공감은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타인의 정서에 반응하여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Barnett, 1987; 정하나, 2015 재인용).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간에 궁극적인 차이는 인지적 공감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인지적으로 이

해하는 것인데 반해,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공유도 포함한다는 점으로(Shamay et al., 2009), 인지적 공감은 이해의 측면을 설명하는 반면, 정서적 공감은 느낌의 측면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소통적 공감은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한 후, 이를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Rogers, 1983). 공감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부분(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인성교육진흥법, 2020)으로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통적 공감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사하게 느끼며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내면적으로 일어난 공감을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소통적 공감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전략, 교사 역할, 교수-학습 자료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은 일방향의 공감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감의 가치를 주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유아들이 공감활동에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공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선정하는 것에 관해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체 자료는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등으로 문학적 요소, 예술적 요소, 교육적 요소, 공감적 요소, 인성적 요소, 정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유아교육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순환적 공감모형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연희(2015)와 어

포던스 기반 놀이 중심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신미영(2022)은 유아가 타인의 상황에 대한 감정을 이입하고 이해하는데 다양한 매체 활용은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김유진(2022)은 활동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관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박선영(2013)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풍부한 매체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현장에 만 3세~만 5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 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교육, 대화를 통한 공감교육, 극놀이 활동을 활용한 공감교육 등 이러한 4가지 교수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미술, 문학, 음악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언어를 활용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 백령(201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 5세 유아에게 적합하며 유아의 공감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 및 통합적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원리는 공감교육(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윤석미, 2011)과 통합적 예술교육(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박선영, 2013; 이경혜, 2019) 및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교육(박예원, 2015; 안지영, 2013), 예술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이시영, 2022)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반영하였다. 교수-학습 원리로 상황수용의 원리는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 공감대상의 상황, 감정 그리고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강송희, 2024; 반신환, 2010; 신미영, 2022)에서 반영되었다. 협력적 소통의 원리는 공감한 내용을 또래와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통하여 공감의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공감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신미영, 2022)에서 적용하였다. 상상을 통한 추론의 원리는 높은 수준의 공감을 이루기 위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상상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반영하였다. 흥미 중심의 원리는 활동에 몰입하는데 근원이 되어 유아가 무언가 알아가는 데 힘이 되어준다(곽향림, 2015)는 시각에서 선정하였다. 통합의 원리는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신체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등의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예술활동간의 통합(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박선영, 2013; 이경혜, 2019)과 통합적 예술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을 탐색하며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고, 완성된 작품을 또래와 감상하며 소통하는 탐색, 표현, 감상의 경험(김혜원, 김은경, 2017; 손지민, 2023; 안진아, 2003)을 통해 유아들이 공감에 관해 경험한 내용을 유의미하게 확장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하였다. 공감 주제 확대의 원리는 유아 자신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 국가, 세계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로 공감 주제를 확대하여 제공(윤석미, 2011; Gordon, 2005/2010)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도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은 공감교육(강경희, 2019; 김견미, 2014; 김연희, 2015; 김정아, 2019; 나혜선, 2016;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임영숙, 2018; 정하나, 2015; Barrett-Lennard, 1981)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통합적 예술교육(강은영, 2013; 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이은영, 이수경, 2019; 이진, 2017; 임현희, 2018), 미술교육(김선월, 2012)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하였다.

우선,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 유아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껴 활동에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강조한 선행연구(강경희, 2019; 김견미, 2014; 김연희, 2015; 나혜선, 2016; 안미인, 2022; 이진, 2017)와 공감대상의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이입하여 진정한 공감

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교수 매체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김연희, 2015; 신미영; 2022)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는 유아의 흥미 유발 및 공감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을 소개하고 자료 속 메시지와 공감대상의 공감요소를 탐색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살펴본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소개한 공감대상의 감정, 생각,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실행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는 요구조사와 선행연구(강은영, 2013; 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이은영, 이수경, 2019; 이진, 2017; 임현희, 2018)를 근거로 1단계에서 소개한 매체 자료 속 공감대상과 연관된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신체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을 통해 유아가 공감대상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완성한 공감 작품을 감상·소통하며 평가하고 실천하기로 구성하였으며 3단계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에 관해 회상하고 공감대상에게 공감을 표현한 내용에 관해 또래와 소통함으로써 도덕적 판단과 공감의 가치가 내면화되어(신미영, 2022) 공감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공감활동을 시행할 때 단일 활동이 아닌 주제 하나당 최소 2가지의 활동에서 최대 5가지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감대상에 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공감대상의 상황, 감정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여타 프로그램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수-학습 활동은 선행연구의 교수-학습 활동(강은영 2013; 고영미 외, 2016; 권유선, 최혜진, 2013; 김유나, 2023; 김유진, 2022; 김은아, 2014; 박선영, 2013; 박예원, 2015; 변윤희, 2004; 안지영, 2013; 윤덕순, 2009; 윤수진, 2010; 윤희정, 2020; 이경혜, 2019; 이은경, 2017a; 이은영 외, 2016;

이은영, 이수경, 2019; 이진, 2017; 임현희, 2018)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문학활동, 영화활동, 극놀이영상 제작활동, 신체 표현활동, 사진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등 7가지 활동이 선정되었다.

교수 전략은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협동활동 제공하기, 공감표현 촉진하기, 추론활동 제시하기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강은희, 2019; 김유진, 2022; 김은주 외, 2011; 박선영, 2013; 박순철, 2019; 신미영, 2022; 이사임, 2018; 정하나, 2015; Gordon, 2005/2010). 유아의 관심, 동기를 불러일으켜 적극적으로 공감활동에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추론하기 전략을 통해 공감대상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이해는 진정한 공감을 표현하는데 토대가 되어준다. 이는 유아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전략으로 공감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수 전략은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본다.

교사의 역할은 유아가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감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유아가 자신의 감정 및 공감대상의 감정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유아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표현에 관해 교사는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할 및 공감활동 전반에 관해 평가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이는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로 계획자, 환경 제공자, 동기 유발자, 감정표현 촉진자, 공감적 지지자, 평가자의 역할을 강조한 선행연구(강경희, 2019; 강은영, 2013; 강은희, 2019; 김유나, 2023; 박예원, 2015; 박은주, 2012;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안지영, 2013; 임현희, 2018; 정하나, 2015; 정효은, 2009; Gordon, 2005/2010)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교수-학습 자료는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김선아, 2012; 남기원, 2013; 이진, 2017), 교수-학습 자료로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그림(감정카드)와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실물 자료, 모형 자료, 표현 자료, 표현 도구, 소리 및 영상기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여러 매체 자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경험이 가능하여 유아들이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의 표현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본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공감교육(강은희, 2019; 신미영, 2022; 안미인, 2022; 정하나, 2015)과 사회성·인성교육(이사임, 2018), 통합적 예술교육(김유진, 2022; 이경혜, 2019), 예술 기반 과학교육(김남연, 2012; 박예원, 2015)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하여 유아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평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유아평가는 유아 스스로 활동을 회상하며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자기평가와 유아의 반응과 태도 분석, 활동에 대한 참여도, 활동 결과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사평가는 활동 계획안 및 활동실행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평가는 양적 분석으로 평가하였다. 양적 분석은 연구실행 전과 후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평가를 표준화된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유아 공감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유아반 담임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이 쉬운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2)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집단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류은경,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인성 동화를 활용한 동극활동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경험(오혜정, 2018)과 토의를 통한 나눔활동(이혜경, 2017)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공감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공감대상에 관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또래 유아의 감정 표현에는 세심한 경청을 통해 공감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또래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을 보고한 류은경(2018)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유아들이 다양한 공감적 상황에서 또래 및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공감 경험은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의사소통 능력 검사 결과 하위 요인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경청’, ‘예의’, ‘배려’, ‘인정’, ‘존중’, ‘절제’에 미친 영향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경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이 공감대상이나 또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했던 경험이 경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유아들이 명화감상을 하면서 관련된 질문을 유아들 상호 간에 나누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상대 유아의 질문을 세심하게 들어야만 대답을 할 수 있어 경청하는 태도가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장지윤과 최일선(2021)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인성 동화를 활용한 동극활동을 하면서 유아가 또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경청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오혜정(201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다양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해 공감을 표현한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 간의 감정 혹은 생각을 나누는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는 또래의 감정 및 공감표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고 경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공감의 표현을 또래와 공유하며 소통하는 경험은 경청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예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공감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자신의 감정과 공감을 표현할 때, 일부 유아들이 기다리지 못하거나 바르게 앉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친구가

말할 때는 기다려주고 바르게 앉아 있는 예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발표하는 친구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또래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래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기, 바른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 등과 같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예의 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김미경(2020)과 류은경(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어투와 고운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향상되었다는 양서영(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토의활동에 대한 약속 중 또래가 이야기할 때 지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나타나 예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혜경(2017)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공감을 표현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유아들은 친구 간 예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배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이웃, 장애, 다문화, 세계 여러 나라, 전쟁, 동물·환경 등 공감 주제에 따른 공감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공감대상을 도와주려 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을 표현(편지 쓰기, 신문 만들기, 책 만들기, 사진 촬영하기, 카드 만들기, 동시 짓기, 뉴스 제작하기, 노래 만들기, 신체 표현하기, 병풍 책 만들기)해 보는 과정에서 배려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황 속 등장인물이 곤란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했으며 유아 자신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도우려는 자세를 자주 보여 배려 요소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정지원(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의 표현이 서툴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배려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류은경(2018)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유아들이 명화를 감상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또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배려하는 행동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한 장지윤(2020)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나눔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행동을 직접 경험하며 배려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하며 향상되었다는 이혜경(2017)의 연구 결과와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상황 속 공감대상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예술활동으로 표현해 본 경험들이 배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표현해 보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공감활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대상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결과물을 또래와 함께 감상하며 소통하는 단계에서 결과물을 감상하는 청중에 있는 다수의 유아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거나 또래의 작품에 관해 멋지다 혹은 감동받았다는 등의 칭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정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또래의 말과 행동에 관해 적절한 말로 칭찬을 해 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점에 관해서는 칭찬할 줄 알며,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류은경(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와 소통하는 단계에서 또래의 좋은 생각을 다른 또래에게도 공유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인정 요소가 증진하는데 효

과적이라는 장지윤과 최일선(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유아들이 즐겁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방법으로 선택할 필요성을 깨달아 또래의 의견을 수용하고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김미경과 권이정(2021)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토의활동을 하면서 또래의 생각이 자신과 달라도 상황에 적절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인정하는 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전희준(2014)과 오혜정(2018)의 연구 결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공감을 나타낸 결과물을 또래와 감상하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과정이 인정 요소를 증진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대상에 대한 유아 자신의 감정과 공감의 표현을 또래에게 소개할 때 나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라도 또래의 표현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짝 또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협동활동(극놀이 영상 제작하기, 뉴스 제작하기, 신문 제작하기, 사진 촬영하기, 동시 짓기, 노래 만들기, 병풍책 만들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직면했을 때 또래와 함께 조정하고 또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의 단계 중 ‘공감하며 생각하기’ 단계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와 타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류은경(2018)의 연구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 또한, 동극에 필요한 소품과 무대 배경을 꾸미는 과정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또래의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여 존중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오혜정(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함께,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오는 다른 생각일지라도 자신의 의견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중시한다는 김호정(2023), 우혜진(201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활동보다는 짝 또는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협동활동을 비중 있게 구성하였다. 그 결과로 유아는 또래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협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채로운 공감활동의 결과물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또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아들의 존중하는 능력과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협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절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순서 지키기 또는 활동 진행에 따른 참여 순서 기다리기(극놀이영상 제작하기, 신문 제작하기, 휠체어 체험하기, 사진 촬영하기, 뉴스 제작하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절제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할 때 말하는 순서 지키기,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 이야기 듣고 질문하는 시간 갖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적절한 말 해 주기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순서를 지키게 되면서 절제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류은경(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양서영(2016)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동화를 활용한 협동적 이야기 짓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유아들 간의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들 자신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서로 간의 대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험이 절제하는 태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공감 주제나 공감 사례별로 진행되는 활동의 실행 방법

이 다양하여 유아 자신이 선택한 활동의 진행 순서에 따라 차례 기다리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의 절제 요소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공감을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또래와 감상하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경험은 경청, 예의, 인정의 요소에 효과적이다. 또한, 또래와 함께하는 협동활동은 존중과 절제에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경험은 배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의 경청, 예의, 인정, 존중, 절제, 배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물에 관해 또래와 소통하는 경험과 협동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비교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순환적 공감모형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켰다는 김연희(201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신미영(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속 공감대상의 상황, 감정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통해 공감대상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가 공감대상의 감정에 이입해 보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정서를 공유하며 그에 적절한 공감을 표현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연스레 인식하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친사회적 행동 검사 결과 하위 요인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정서 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개인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감대상의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을 공유하여 공감대상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눈 경험과 공감대상이 만약 나라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눈 경험 역시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감활동 중 협동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공감대상의 감정과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그와 관련한 협력활동의 경험이 개인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한 신미영(2022)의 연구와 협동활동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박진주(2016), 이나영(2008), 전세연(2001), 천혜빈(202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그림책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하고 당면한 문제에 관해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떠한 감정일지, 어떻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또래와 소통하면서 개인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박찬옥과 황지영(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이진영과 성소영(2013)은 생활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 상황에 관해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극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입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탈중심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 함께 협동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이 개인 정서조절 능력에 효과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공감대상에 감정이입하는 경험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탈중심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며 공감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활동에 참여하기, 순서 지키기, 위로하기, 나누기, 도움주기, 함께하기 등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유아들이 공감활동을 통해 협동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진행 상황에 따른 참여 순서를 지킬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및 공감표현을 하는 소통 과정에서도 말하는 순서를 지키려는 경험이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감대상의 감정을 공감하며 공감대상에게 편지쓰기, 공감대상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내용의 신문 제작하기, 공감대상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카드 작성하기, 공감대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동시 짓기 및 노래 만들기(노래 재구성), 병풍책 만들기, 공감대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책 만들기, 뉴스 제작하기, 바다 대 청소하기(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공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감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래와 원만한 놀이를 위해 서로 적절한 방식으로 놀이에 참여하기, 배려하기, 나눠 쓰기, 양보하기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 형성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신미영(2022)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나눔의 주제가 담긴 그림책을 읽고 관련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나눔이 필요한 상황에 관해 이해

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친사회적 행동 신장에 효과적이었다는 맹지나(2010)와 위지혜(2014)의 연구 결과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대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본 경험들이 쌓여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협동활동과 감정이입의 경험은 개인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한 방법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대인관계 형성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유아의 개인 정서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과 협동활동, 감정이입의 경험이 중요하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기초하여 내린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공감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아의 공감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의 범위를 정립하였다.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들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유아반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감대상의 감정 표현이 구체적이고 유아들이 쉽

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반영된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문학, 영화, 극놀이영상 제작, 신체표현, 사진, 미술, 음악 등과 같은 통합적 예술활동으로 공감활동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아들은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등을 통해 다양한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을 접하고 그러한 공감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에 적절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공감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돕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극놀이와 명화 또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공감의 주제나 공감대상이 대부분 그림책 속 인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영화, 영상, 신문·뉴스·광고, 명화, 사진 등을 통해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반영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감의 주제를 나, 가족, 이웃, 장애, 다문화, 세계 여러 나라, 전쟁, 동물·환경으로 확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감 주제 및 공감대상과 범위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예술활동은 예술활동을 교육과정의 다른 활동과 통합

하여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의 형태는 예술활동 내 통합, 예술활동 간의 통합, 예술활동과 비예술활동 간의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활동 간의 통합을 적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극놀이, 그림책, 명화 중심의 단일한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문학, 영화, 극놀이영상 제작, 사진, 신체표현, 미술, 음악과 같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이 단일한 예술활동에 비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임현희, 2018)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내며 타인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최진, 2014)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극놀이영상 제작, 신문 제작, 뉴스 제작, 사진 전시회, 동시 짓기, 노래 만들기, 병풍책 만들기과 같은 협동활동 중심의 통합적 예술활동은 또래와의 소통, 이견 조율, 타인 이해와 존중, 배려를 통해 공감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유아의 공감능력 증진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기간(13주 26회)의 프로그램 적용과 만 5세의 제한된 연령과 제한된 지역의 유아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와 적용 기간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프로그램 적용 기간과 연령이나 지역 등 더 많은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화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동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여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 연수의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유아 공감교육 지도방법 및 교재·교구 개발 연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며, 교육 대상 측면에서는 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흥미를 느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예술활동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만 3세에서 만 4세 유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만 3세에서 만 4세 유아를 위한 통합적 예술활동 기반의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경희 (2019). 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민주 (2010).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주, 심미경 (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32(4), 203-216.
- 강 상, 권가영, 류경희 (201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한국보육학회, 13(4), 329-356.
- 강송희 (2024). 초등학생의 생태적 형평성 함양을 위한 환경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녀, 신현정 (2024). 아버지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6(1), 101-122.
- 강은영 (2013).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은영, 최미숙 (2014).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2), 157-181.
- 강은희 (2019). 순환적 공감모형 기반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충열 (1998). 주제중심 교수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2(1), 5-29.
- 강혜경 (2017). NCS 운영을 위해 전문대학 교수자가 인식하고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미, 오세곤, 이은영 (2016). 미적체험을 강조한 유아 통합문화예술교육

- 프로그램의 개발. 유아교육연구, 36(3), 171-200.
- 고영희 (2011).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갑 (2014). 아동용 공감 척도(EQ-C)의 유아적용을 위한 타당화 예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갑, 심숙영, 임선아 (2015). 유아용 공감 척도 (EQYC) 타당화 예비연구. 아동교육, 24(1), 59-80.
- 공영숙, 임지영, 안선정, 이윤정 (2022).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 배려행동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HER (Human Ecology Research), 60(1), 99-113.
- 곽영미 (2016). 그림책 기반 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의 미적 반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향림 (2015). 구성주의 유아교육 교수 학습법. 공동체.
- 교육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교육부.
- 교육부 (2021. 1. 21.).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3315&lev=0&m=020402>에서 2023년 7월 10일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구광현, 이희경 (2002). 유아사회교육. 동문사.
- 구이선 (2018).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 (2023a). 애니메이션.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 국립국어원 (2023b). 영화.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 국순아 (2023). 예술과 의사소통-듀이의 예술철학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113(-), 17-38.
- 국은순 (2023).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유아공감 면접 도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난주, 안재홍 (2012).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을 위한 과학 예술융합 방안 -분석. 교육논총, 32(1), 77-93.
- 권미혜 (2017). 그림책과 연계한 감각중심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민정 (2019).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유선, 최혜진 (2013). 창의성 기법을 적용한 유아 예술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55-78.
- 권정윤, 황인주 (2013). 유아를 위한 비폭력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또래유능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3(1), 361-387.
- 권현숙 (2016). 초등학생용 감정카드와 바람카드 개발 및 공감능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효과 분석: 공감능력, 친사회적 행동,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견미 (2014). 공감능력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2011). 공감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하 (2016). 과학과 예술활동 통합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수 (2012). R. Steiner 교육이론에 기초한 유아예술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6(1), 63-83.

- 김나원 (2014).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에 기초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원, 류경희, 심성경 (2014).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에 기초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4), 613-631.
- 김나현 (2013).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적 조형활동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연 (2012). 미술과 통합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운 (2022). 아버지의 공감능력,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 유아의 공감능력의 관계.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6(1), 245-264.
- 김명정 (2015).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유아과학음악극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화, 류혜숙 (2010). 동화에 기초한 영화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5), 135-156.
- 김미경 (2018). 동요를 활용한 통합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2020).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놀이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권이정 (202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놀이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20(4), 53-77.
- 김미정 (2011). '공감의 뿌리'프로그램의 유치원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부산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화 (2016). 인성동화를 활용한 예술놀이 활동이 유아의 감성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규, 박수정, 김용석, 김봉주, 서정은 (2012). 체험중심 통합영역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성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하교육연구, 18(2), 123-141.
- 김민정 (2022). 동시대 미술감상 기반 통합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미술표현력, 정서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549-565.
- 김민주 (2011). 부모애착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라 (2018). 전래동화를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연 (2018). 사진을 활용한 이야기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기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순 (2020). 공감화법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 공감 능력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년 (2012). 아이의 친구관계, 공감력이 답이다. 조선앤북.
- 김상겸 (2018). 만 5세 유아를 위한 신체·정서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 (2012). 동화를 활용한 유아과학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 박진희, 박한울, 정혜원 (2017). 유아기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형교육, 61(-), 37-64.

- 김선월 (2012). 자연의 미적 요소에 기초한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민 (2009). 유아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정 (2016). 극놀이와 연계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은 (2017).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특수학급학생의 또래관계향상 및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 (2016). 국악감상에 기초한 통합적 예술활동이 유아의 국악능력과 국악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2018). 공감대화카드 활용 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 도미향 (2022).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9(3), 75-98.
- 김여선 (2020). 통합적 접근에 의한 유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 (2015). 순환적 공감모형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 (2012). 공감교육프로그램이 감정반응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이종길, 홍혜전 (2014). 다문화아동의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전래 동요 율동놀이” 체험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1-17.
- 김영수, 강충열 (2008). 주제중심 통합학습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과정연구, 2(2), 21-40.

- 김영애 (2004). 인간관계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 김영연 (2002). 유아음악교육론(개정판). 학지사.
- 김영연 (2008). 유아교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5(2), 217-238.
- 김영옥 (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4(5), 105-118.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1. 시그마프레스.
- 김은유, 백지혜 (2019).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공감능력과 유아의 행복감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95-119.
- 김완수 (2013). 초등학생의 도덕적 행동 증진을 위한 공감교육 방안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영 (2014). 명화감상을 활용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나 (2023). 전통놀이를 활용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진 (202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통합교육활동 개발 및 적용 - 에르베 툴레 그림책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수 (2018). 예술경험 연계 과학활동이 유아의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태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 (2014). 명화감상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중심 예술교육활동의 효과: 유아의 그림감상능력, 창의성,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7). 가족의 건강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조절력과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 (2013). 사진을 활용한 숲 체험 활동이 유아의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김미정, 안세정 (2011).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의 유치원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교사교육연구, 50(3), 119-135.
- 김은지 (2019). 공감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동시 짓기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16). 예술적 경험을 통한 유아 과학 활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섭 (2017).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 기반 인성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배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순 (2012). 명화감상을 통한 감정이입활동이 유아의 개인적 지능과 감정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19). 그림책에 기초한 감정코칭중심의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민희숙, 방승연 (2014). 누리과정에 근거한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리더십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1), 227-249.
- 김정현 (2014).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 역할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김민경 (2019). 모 공감능력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

- 향에서 유아 메타인지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7(4), 87-98.
- 김지영 (2013). 일상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유아 극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운 (2015).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액션러닝 기반의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순 (2013). 공감능력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채연 (2019). 예술표상과 연계한 식물중심 유아 과학탐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충현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정서교양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훈 (2015). 공감(Empathy)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연구, 47(-), 1-28.
- 김택환 (1997). 영상미디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향숙 (2007). 아담 스미스의 공감이 도덕교육에 주는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조수현 (2012). 미술중심 통합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45-173.
- 김현정, 서성미, 홍희주, 고정리, 변선주, 구혜현, 이경혜, 이가경, 남현주, 김현애, 김숙자 (2017). 영유아교육과정(2판). 양성원.
- 김혜금 (2014).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와 교사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5), 529-539.
- 김혜정 (2017). 만 5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위한 실행연구. 이화여

-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김은경 (2017). 예술의 소통으로 바라본 뉴미디어, 놀이공간의 중심에 서다.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157-164.
- 김호정 (2023). 블록놀이를 통한 협력적 과학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홍지명 (2017). 협동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 및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21, 8(2), 971-990.
- 나경아, 오유진, 박현정 (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19-35.
- 나정숙 (2017). 토의활동 중심 유아참여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혜선 (2016).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배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원 (2013). 만 3세 유아를 위한 신체표현 연계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원, 김남연, 김명정 (2019). 영유아음악교육. 공동체.
- 남윤희 (2019).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미란 (2000). 듣기의 추론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민자 (2014). 누리과정에 그림책을 연계한 유아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효관, 이재진, 우연경, 이정찬, 차조일, 최정순, 신소연, 이영미, 안지연, 문선영 (2020). 중학생의 공감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탐색

- (연구보고서 RRI 202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류승민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은경 (2018). 공감적 의사소통 활동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현강 (2015).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이 유아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형순 (2002).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따른 인기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지나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나눔교육 활동이 유아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문예은 (2017). 공익광고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영 (2018). 극화놀이를 중심으로 한 공감교육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훈 (2007). 초등학교 문화 예술 교육으로서 ‘방과후 학교’를 위한 통합형 음악 교육의 수업안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 189-211.
- 박경주, 최경숙, 권이정 (2018). 통합예술교육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32(2), 1-22.
- 박기수 (2004).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와 전략. 논형.

- 박병준 (2009).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3(1), 127-144.
- 박상희, 임영숙 (2019). 동화를 활용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25-36.
- 박선민 (2016). 영유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줄리아 가브리엘 에듀드라마(EduDrama)와 뉴욕 필하모닉 베리 영 피플스 콘서트(Very Young People's Concert)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3). 자연친화를 통한 유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 박성희 (2012). 언어 구성 요소를 적용한 만 5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2014). *공감 - 인간관계의 필요충분 조건*. 학지사.
- 박성희, 이동렬 (2003). 공감 교육에 대한 개관 연구: 1970년 이후 영어로 출판된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1(3), 499-518.
- 박소영, 이미나 (2018). 극놀이 프로그램이 공감능력과 놀이성에 효과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0), 205-214.
- 박수연, 이진숙 (2023). 유아의 성·연령·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공감능력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지*, 6(1), 41-62.
- 박순철 (2019). 통합문화예술놀이에 기반한 유아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임, 장혜림 (2022).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배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5), 2369-2384.
- 박예원 (2015). 예술경험 연계 자연친화적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경 (2017). 신경과학에 기반한 초등 도덕과 공감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신은수, 김현진 (2012).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혼자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 12(4), 249-268.
- 박은주 (2012). 표상 및 토의 중심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주 (2024). 탐색, 표현, 감상의 통합적 아동미술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과 미술감상능력 및 미술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및 변화과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3) 413-432.
- 박지선 (2014). 유아 세계시민교육이 유아의 세계시민의식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5).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서표현의 듣기·말하기 교육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주 (2016).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극놀이가 유아의 상상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욱, 황지영 (2012). 그림책을 활용한 배려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221-244.
- 박학서 (200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공감능력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신 (2020). 전래동요를 활용한 통합예술활동이 유아의 국악능력과 국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8(2), 119-136.

- 박형신, 김영연 (2004). 예술영역간의 통합적 국악 활동이 유아의 장단개념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7(-), 65-89.
- 박혜빈 (2013). 아동용 공감하기 척도의 타당화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 (2015). 탐구공동체를 통한 음악 중심 통합예술교육 연구: 고차적 사고력과 인성함양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반신환 (2010). 거울뉴런(Mirroring Neurons)에 근거한 공감훈련의 원리. 신학과 실천, 24(2), 87-108.
- 방세현, 서현 (2023).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 친사회적행동 간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22(3), 57-81.
- 배지현 (2021). 유아가치교육 현장적용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과 요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343-351.
- 백령 (2015).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박스.
- 백인경 (2017).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윤희 (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및 유아 창의성 루브릭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혜원, 김민정, 이미나 (2018).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와 교사-유아 관계에서 유아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2(3), 247-273.
- 서봉연, 유영분, 강길례 (2001). 효과적인 대인관계 노하우 프로그램집. 한국가이던스.
- 서봉연, 황상민, 김정옥 (1994). 사회인지 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9(1), 69-106.

-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2013).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도움자료.
- 서정숙, 남규 (2005). 그림책으로 하는 유아문학교육. 창지사.
- 서지은 (2009). 유아를 위한 의사소통 훈련이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한나 (2023). 디지털 시대의 사회과 뉴스 리터러시 수업 특성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미정 (2009). 초등학교 문학교육의 애니메이션 작품 선정 기준 연구.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순임 (2016). 통합적 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함양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계시민포럼 (2024). 다문화특별학급 수업 후기. <https://www.globalcitizenship.kr/post/409>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손복영 (2015).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조절력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13-130.
- 손연주, 임부연 (2017). 유아예술교육에 대한 방향 탐구: Deleuze의 예술론 분석. 미술교육논총, 31(4), 189-210.
- 손은애 (2005). 만 4세 여아의 또래놀이 참여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지민 (2023). 실증적 미학의 관점에서 본 예술작품을 통한 소통 의도의 진정성 문제: 최선과 이우환의 경우. 미학예술학연구, 70(-), 190-220.
- 손혜원 (2020). 순환적 공감 모형에 기초한 그림책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2008). 발달심리학. 학지사.
- 송문영 (2019). 만 3세 사랑반 유아들의 공감발달을 위한 실행연구. 영유아 교육: 이론과 실천, 4(1), 29-48.

- 송민서 (2018).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술통합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수희 (2006).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수희 (2014). 유아의 공감능력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간에 관계. 포괄영유아아동교육지원연구, 2(2), 32-51.
- 송순옥 (2012).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순옥 (2016a). 미술놀이와 신체표현을 통합한 예술경험활동이 유아의 정서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5(1), 141-160.
- 송순옥 (2016b). 음악과 신체표현을 통합한 예술경험활동이 유아의 정서능력 및 창의적 신체표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5(4), 227-245.
- 송순옥, 최미숙 (2013).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57-78.
- 송순임 (2001).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놀이가 유아의 창의력과 언어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옥진 (2017). <동극>프로젝트를 통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함양.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 임부연 (2012. 10. 27.). 유아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칸트 예술론을 중심으로[포스터 발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서울.
- 신나라 (2021. 12. 7.). 어린이집 만 3세 반에서 집단 폭행 ‘충격’ 여성조선. <https://wom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20>에서 2024년 8월 31일 인출.
- 신경일 (1994a).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

-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9(1), 1-37.
- 신경일 (1994b).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남주 (2017). 사회적 갈등 중심의 스토리텔링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미영 (2022). 어포던스 기반 놀이중심 유아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승환 (2007).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재한 (2012).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주제 중심 통합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및 적용. 한국예술연구, 5(-), 87-103.
- 신하람 (2019). 유아의 환경적 지속가능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공동체의식 간의 구조관계 분석.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인 (2022). 유아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명화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정, 임지영 (2020). 부모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공감능력, 배려행동,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38(2), 51-68.
- 안정의 (1985). 인형극.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안지영 (2013). 예술적 경험을 통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최미숙 (2014). 예술적 경험을 통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4), 431-455.
- 안진아 (2003).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미술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정서지

- 능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가원 (2022). 공감 중심 극화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서영 (2016). 동화를 활용한 협동적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또래 간의 의사소통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성은 (1995).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은, 정문자 (1995).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2), 97-112.
- 양승희 (2017).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통일대비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보육학회지, 17(4), 31-50.
- 양윤숙 (2004).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소집단 영어지도 방안.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은나 (2006).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진영 (1986). 아동의 공감발달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가정문화연구, 4(-), 7-31.
- 염연정 (2009).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준 (2018).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나타난 Arts Integration (통합 예술교육)의 개념 변이.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2), 21-36.
- 오안나 (2022). 어머니 공감능력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7(4), 89-111.

- 오혜정 (2018). 인성동화를 활용한 동극활동이 만 5세 유아의 배려행동과 또래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길러야...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52(-), 4-5.
- 우자영 (2015).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증진 프로그램이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우지연 (2017). 공감교육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배려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 (2016). 사회정서학습(SEL)의 교육적 의의. 청소년학연구, 23(3), 163-185.
- 우혜진 (2012). 유아의 사회적 합의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위지혜 (2014). 나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세현 (2019).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예술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찬기, 남기범 (2018).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13(3), 75-100.
- 유하나 (2013). 자기표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수, 윤수진 (2022). 공감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537-560.
- 윤덕순 (2009). 슈타이너 교육이론에 기초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석미 (2011). 초등 도덕과에서 공감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진 (2010). Arts PROPEL에 기초한 통합적 유아 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은 (2020). 극적 요소를 활용한 명화감상기반 유아 신체표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진희 (2022).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활용한 기독교 유아 예술교육 프로  
그램 개발.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정 (2020). 레오 리오니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예술활동이 유아 자아개념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옥균 (2016). 문학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정서 인식에 미치  
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2014). 통합예술교육을 통한 유아발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잠재적  
공연예술 관객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2010).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교우관계 및 사  
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양  
서원.
- 이경주 (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 도미향 (2022).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아버지의 놀이참여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19(1),  
5-23.
- 이경혜 (2019). 유아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혜, 김미애 (2019). 유아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어린  
미디어연구*, 18(3), 361-392.
- 이기숙, 강숙현 (2012).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 이나영 (2008). 유아의 협동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0).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매체 활용 실태와 요구분석. 아주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11). 미국의 예술통합교육과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  
38(3), 33-52.
- 이미경, 서지영, 이근호, 조성민, 김기철, 유창완, 김종윤, 이재진, 윤기준.  
(2018).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 참여 연구(연구보고  
서 RRC 201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성, 조성심 (2020). 직업군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 공감능력에 미  
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4), 183-214.
- 이미정 (2012). 공감능력과 미술 감상능력의 상관관계 연구-초등학교 4 학년  
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31(-), 95-118.
- 이민영 (2018). 3-컷 에피소드를 활용한 유아의 공감능력 측정도구 개발연  
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사임 (2018).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순 (1999). 유아의 공감 발달을 위한 방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9(-),  
239-26.
- 이선경 (2016). 영유아의 공감능력 발달에 대한 고찰. *글로벌사회복지연구*,  
6(2), 27-42.
- 이선영 (2016). 공감에 기반한 유아 토론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흙 (200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이세나 (1999).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1985). 유아의 예술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1(1), 43-48.
- 이슬 (2015). 유아대상 구성주의 기반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감성지능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하, 김유중 (2020). 유아기 괴롭힘 현황 및 예방/개입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787-816.
- 이승희 (2021). 인형극을 활용한 토의 활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영 (2022). 문화예술 기반 유아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석, 이세나 (2000).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2), 147-156.
- 이영자, 이기숙, 이정옥 (2000). 유아의 정서적 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 이옥희 (2018).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주, 백승학 (2017). 유아의 공감 및 동정심, 도덕적 행동, 사회적 유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1(2), 445-464.
- 이용준 (2006). 중학교 사회교과서 사진자료 분석 -'인간과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2007). The role of adults in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 39-63.*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유아사회성 발달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65-91.
- 이유진 (2016).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6(1), 57-71.
- 이윤경, 박경애 (2023). 놀이를 활용한 공감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153-170.
- 이윤영 (2020). 영화를 활용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8). 누리과정의 유아 예술경험활동이 창의성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7a). 통합적 예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공감능력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387-415.
- 이은경 (2017b). 협동 예술활동 경험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상호작용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8(2), 227-246.
- 이은경 (2019). 유아의 협동음악활동이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1), 399-425.
- 이은영 (2015). 공감의 교육학적 의미 연구: 학교폭력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공감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문화, 21(1), 5-27.
- 이은영 (2017). 설치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2), 189-214.
- 이은영, 고영미, 김은영 (2016). 미적체험을 강조한 유아 통합문화예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77-102.
- 이은영, 우민정 (2013).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7(3), 433-455.

- 이은영, 이수경 (2019). 명화감상과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예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그림표현력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조형교육*, 71(-), 205-238.
- 이은진 (2021). 뇌기반 교육원리를 적용한 가정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최새은 (2021). 뇌기반 교육원리를 적용한 가정과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3(2), 153-172.
- 이은형, 김남연, 김명정 (2012). 예술과 통합한 유아과학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 실태와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137-160.
- 이재경 (2020). 공감향상 그림카드를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 (2018). 사진을 활용한 주말지낸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 (2017).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16).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동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정화, 이수련 (2008). 유아를 위한 협동학습 모형 개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343-367.
- 이종향 (2007). 문제해결 움직임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형 (2004). 공감발달과 이타적 행동: 호프만을 중심으로. *한국윤리교육학*

- 회, 2004(1), 84-96.
- 이 준, 유숙경, 이윤옥 (2015). 초· 중학생의 [학교생활 공감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775-797.
- 이 진 (2017). 예술기반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성소영 (2013). 생활동화를 활용한 역할극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135-163.
- 이진희 (2008). 공감과 그 도덕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26(-), 77-100.
- 이혜경 (2017). 토의를 통한 나눔활동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 기술,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주 (2013). 배려교육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https://law.go.kr/LSW/main.html> 에서 2024년 8월 9일 인출.
- 임성관 (2014).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국독서교육학회지, 2(1·2호 통합분), 25-42.
- 임승렬, 남연정, 김정림 (2014). 유아 의사소통 능력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18(5), 53-77.
- 임선숙 (2017). 의사소통훈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숙 (2018). 공감적 이해에 기초한 유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숙, 김밀양 (2021). 유아용 자기보고식 공감능력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6), 183-213.

- 임영심, 박은주, 문수백 (201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발달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207-224.
- 임주희 (2011).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희 (2018).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심미적 경험 탐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문희 (2018).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 교육 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 문혁준 (2004).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53-66.
- 장범관 (2000). 귀인과 공감 정서가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희 (2007). 동화에 기초한 유아 음악극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지윤 (2020). 하브루타를 활용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그림감상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윤, 최일선 (2021). 하브루타를 활용한 명화감상활동이 유아의 그림감상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7(6), 635-658.
- 전세연 (2001). 벽화그리기 공동작업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옥 (2004).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경 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연, 최은영 (2011). 점토를 활용한 협동활동이 정인지체 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8(1), 1205-1224.

- 전택수, 신중호, 소원현, 구문모, 박은실, 창병모, 김재범 (2014). 문화예술 기반 창의교육과 교육혁신. 창의경제와 문화예술의 역할(pp. 229-277).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형길 (2008). TV광고를 활용한 통합적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희준 (2014). 토의활동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환경친화적태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대현, 조명옥, 곽연미 (2014). 부모코칭역량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공감 능력간의 상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83-100.
- 정덕희 (2009). 4, 5세 유아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3), 31-50.
- 정도진 (2018). 명화를 활용한 RAFT 기반 공감적 글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351-376.
- 정미라 (2022). 공감적 발문에 기초한 실시간 온라인 하브루타 토론이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숙 (2017). 예술을 활용한 창의적 인성교육.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7), 121-130.
- 정승영 (2015). 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가 유아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아림, 신철아, 김경철 (2017). 유아 대상 영화교육에 대한 고찰. 한국유아교육연구, 19(2), 83-106.
- 정유미 (2021).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초로 한 관계형성 신뢰서클활동이 유아

- 의 공감능력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용 (2023). 듀이의 예술적 의사소통의 초등 민주시민교육적 함의. 초등교육연구, 36(3), 1-25.
- 정지원 (2019). 토의를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와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화 (2017). 노래를 활용한 유아 극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하나 (2015). 극화놀이를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하나, 지성애 (2015). 극화놀이를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35(6), 5-31.
- 정현주, 김정희, 김수지 (2014). 예술교육에서 예술인성교육의 개념. 교육과학연구, 45(1), 53-72.
- 정효은 (2009). 탐구·표상 중심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섭 (2019). ‘장애공감’의 조건과 교육실천의 원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2(4), 285-307.
- 조강모 (1991).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조망수용과 공감의 역할모형.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연 (2008).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한 감상학습지 개발: 7학년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 (2017).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교육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 (2012). 미술중심 통합문화예술교육이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주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순옥 (2014).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유아의 공감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9(1), 243-266.
- 조연경 (2016). 주제극놀이를 통한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례 (2019). 그림책에 기초한 통합적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및 배려적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127-156.
- 조은진 (2012). 공감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9(-), 219-233.
- 조재휘 (2020. 2. 10.). 유아기의 따돌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89>에서 2024년 8월 31일 인출.
- 조현희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 및 교실 수준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유형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2(2), 1-30.
- 지민경 (2011). 유아정서조절능력과 교사-유아관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련성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김치곤, 이경희, 강현아, 신수경 (2009). 연령집단 구성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전략과 사회적 행동. 유아교육연구, 29(3), 23-47.
- 지성애, 김희정, 김치곤 (2011). 가정과 연계한 동화 극화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29(1), 131-154.

- 지성애, 박찬옥, 유구종, 조형숙 (2010). 유치원교육 과정에 기초한 총체적 유아 미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4(5), 99-133.
- 지성애, 정하나 (2015).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유아교육연구, 35(3), 101-126.
- 지성애, 조유진, 연규승 (2018). 유아의 지적능력과 공감능력, 적응기술, 낙관성 간의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3), 359-376.
- 지성애, 최다은 (2017). 유아의 창의성과 지적능력, 공감능력 및 그리기표상능력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1(3), 241-268.
- 차윤아 (2022). 사회적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과 수업 구성: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혜정, 송승민 (2017).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6), 1-20.
-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 (2011).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 (EQ-C)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63-81.
- 천세영, 정일화, 김수아 (2015). 공감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탐색. 교육연구논총, 36(3), 221-244.
- 천순미, 이경민 (2023).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사회정서유능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4(3), 603-625.
- 천우영 (2016). 교사용 유아 공감능력 검사도구의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혜빈 (2022). 인성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놀이가 유아의 인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2007).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고정완, 이주화, 임은정 (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협동게임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대인문제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71-93.
- 최미숙, 임연자 (2016). 그림책을 활용한 도덕적 상상력 기르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23.
- 최민수, 김수정 (2019). 유아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분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151-177.
- 최선향 (2018). 유아를 위한 공감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배려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주 (2016). 인물화를 활용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은 (2019). 미술요소 중심 미술활동과 동화 중심 미술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 언어능력, 공간 지각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 (2015). 만3세 유아의 교실에서의 공감하기 상황과 그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4), 67-92.
- 최정인 (2013). 예술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2세 영아의 예술성 변화 탐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선 (2018). 그림책을 활용한 갈등상황 토의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원, 서소정 (2015). 만 5세 유아의 창의성 및 과학적 탐구능력을 위한 예술, 과학 융합프로그램의 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1), 67-80.
- 최진 (2014). 예술경험의 도덕교육적 가치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진, 곽덕주 (2015). 감정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예술경험의 교육적 가치 탐색. *교육철학연구*, 37(1), 117-137.
- 하정희, 조영진 (2018). 유아예술교육의 통합적 접근. *공동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사업운영 가이드*.
- 한국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7). *문화예술교육개론*. 레인보우북스.
- 한상희 (2019). 주말 지낸 이야기나누기 짝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아람 (2016). 아동의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과 공감능력 및 친사회성 간의 구조적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3), 397-406.
- 한영미 (2009). 유아의 도덕적 자아와 정서조망수용 및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지 (1998). Kodaly와 Orff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유아음악지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윤이 (2006).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악 중심의 교과간 통합 지도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67-89.
- 한희정 (2008). 타 교과 내용 통합의 생활경험 중심 에피소드를 활용한 초등 영어몰입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445-465.
- 허경숙 (2021).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를 활용한 문화 예술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문화예술교육연구*, 16(5), 57-88.
- 허순향 (2018). 공감능력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순향, 남승규 (2019). 공감의 구성요소와 심리적 기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3), 939-947.
- 허애수 (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 능력과 또래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은 (2018).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연구: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혜진 (2011). 공감적 행동 인지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영 (2013).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영, 김수영 (2015).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감능력 향상과 공격성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4(3), 313-328.
- 홍명옥 (2007). 탐색·표현·감상을 통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그림 표상능력 및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정, 김재춘 (2017). 교육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홍순정, 김희태 (2009). 유아사회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홍화진 (1987).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다현 (2014). 공감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유선, 김주환 (2009).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휴대전화 사용과 대인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9(3), 687-719.
- 황혜익 (2000). 유아교육평가. 양서원.
- 황혜진 (2018).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 내용-판소리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3(-), 61-97.
- Bamford, A., & Wimmer, M. (2012). The Role of Arts Education in Enhancing School Attractiveness: a literature review. *European Expert*

*Network on Culture(EENC), February.*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 Bauer, J. (2006). 공감의 심리학[*Warum ich fuehle, was du fuhest*]. (이미옥 역). 에코리브르. (원서 2005년 출판)
- Beaty, J. J. (2001).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행동지도[*Prosocial guidance for the preschool child*]. (이기숙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저 1999년 출판)
- Bloomfield, A. (2000). *Teaching integrated arts in the primary school: dance, drama, music and the visual arts*. David Fulton Publishers.
- Bredenkamp S., & Rosegrant, T. (1995). *Reaching potentials: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sment*(Vol 2).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 Connery, M. C., John-Steiner, V., & Marjanovic-Shane, A. (2015). 비고츠키와 창의성: 놀이, 의미 만들기, 예술에 대한 문화 역사적 접근 [*Vygotsky and creativity : A Cultural-historical Approach to Play, Meaning Making, and the Arts*]. (조현행, 정연철 역). 한국문화사. (원저 2010년 출판)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85), 85-103.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rown and Benchmark.

- Ehrlich, P. R., & Ornstein, R. E. (2010). *Humanity on a tightrope: thoughts on empathy, family, and big changes for a viable futur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 and Feshbach, S. (1987). Affective processes and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8*(5), 1335-1347.
- Gallese, V. (2007). Before and below theory of mind: Embodied simulation and the neural correlates of social cogni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62*(1480), 659-669.
- Gordon, M. (2010). 공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문희경 역). 산티. (원저 2005년 출판)
- Haz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4), 867-876.
- Hoffman, M. 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 121-137.
- Hoffman, M. L. (2011). 공감과 도덕발달: 배려와 정의를 위한 함의들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박재주, 박균열 공역). 철학과 현실사. (원저 2000년 출판)
- Howe, D. (2013). 공감의 힘[*Empathy : what it is and why it matter*]. (이진경 역). 지식의 숲. (원저 2012년 출판)

- Hymes, D. (1972). Editorial introduction to Language in Society. *Language in Society*, 1(1), 1-14.
- Krznaric, R. (2014). 공감하는 능력[*Empathy*]. (김병화 역). 더퀘스트. (원저 2014년 출판)
- Lane, J. D., Wellman, H. M., Olson, S. L., LaBounty, J., & Kerr, D. C. (2010). Theory of mind and emotion understanding predict mor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871-889.
- Mages, W. K. (2008). Does creative drama promote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a review of the methods and measures employes in the empirical literat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8(1), 124-152.
- Malti, T., Gummerum, M., Keller, M., & Buchmann, M. (2009). Children's moral motivation,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80(2), 442-460.
- McGinnis, E., & Goldstein, A. P. (1990). *Skillstreaming early childhood*. Research Press.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44.
- Nussbaum, Martha C. (2011).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우석영 역). 궁리출판. (원저 2010년 출판)
- Read, H. (2007).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 (황향숙 김성숙, 김지균, 김향미, 김황기 역). 학지사. (원저 1943년 출판)

- Rifkin, J. (2010).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이경남 역). 민음사. (원저 2009년 출판)
- Roberts, R. D., Zeider, M., & Matthews, G. (2001). Does emotional Intelligence meet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Emotion*, 1(3), 196-231.
- Rogers, C. R.(1983). *Freedom to learn* (2th ed.). Charles E. Merrill.
-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3), 617-627.
- Smith, A. (2009).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일, 민경국 역). 비봉출판사. (원저 1759년 출판)
- UNESCO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ESCO.
- Walsh, H. M. (1984). 유아를 위한 사회교육[*Introducing the young child to the social world*]. (이경우, 서영숙 공역). 교문사. (원저 1980년 출판)
- Winner, E., Goldstein, T., & Vincent-Lacrin, S. (2013).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rt for art's sake? The impact of arts education*. OECD Publishing.

# **ABSTRACT**

##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Lee Og-H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and test its effects on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 of five-year-old children.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is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organized?
  - 1-1. What are the purposes and goals of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 1-2. How is the content of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 1-3. What are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 1-4. How is the evaluation of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2. What is the application effect of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 2-1. What kind of effect does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have on young children's communicative competence?
  - 2-2. What kind of effect does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have on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order to develop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literature review were carried out on empathy and 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fter setting program purposes and goals by analyzing the needs of the educational field, the study selected educational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for the program and developed a program draft based on them. The program draft was finalized after an expert consultation and preliminary study. Developed in this process, a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had the following educational purposes and goals, educational cont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First, the purpose of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was to promote young children'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 by cultivating their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Its educational goals include "cultivating the ability to perceive and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developing an attitude to express and communicate empathy," and "promoting pro-social behavior by regulating one's emotions and actions."

Second,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program consists of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is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the emotions, ideas, and situations of others as well as oneself.” Affective empathy is “sharing emotions between oneself and others.” Communicative empathy is “expressing and communicating the emotions of others as well as oneself.”

Thir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are comprised of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s,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eaching strategies, teachers’ role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s for teaching and learning principles, the study applied the principle of accepting a situation, the principle of collaborative communication, the principle of inference through imagination, the interest-centric principle,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empathy topics.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consist of four steps. Step 1 is to explore the elements of empathy. Step 2 is to perceive a situation of empathy. Step 3 is to express empathy. Step 4 is to communicate empathic sentiment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re comprised of literature, movie, dramatic play video production, physical expression, photography, art, and music activities in an integrated way. The study set utilizing various media, providing collaboration activities, facilitating empathic expressions, and proposing inference activities as teaching strategies. A teacher is supposed to play roles as a planner, environment provider, motivator, facilitator of emotional expressions, empathic supporter, and evaluator.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clude media, real, model, and expressive materials and expressive and audio & video instruments.

Lastly, the evaluations of the program consist of the evaluation of young children, the evaluation of teachers, and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evaluation of young children includes young children’s self-evaluation based on their satisfaction with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recalling their activities themselves and also teachers’ evalu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young children’s reactions and

attitude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nd results of activities. The evaluation of teachers assessed teachers' activity plans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based on a standardized scale rated by young children after its implementation.

The study investigated 18 five-year-olds at G Daycare Center(experiment group) and 18 five-year-olds at B Daycare Center(comparison group) in Gyeonggi Province to test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o the young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in 26 sessions in total with two sessions per week on Wednesdays and Fridays for 13 weeks on April 3 - July 10, 2024. The young children of the comparison group followed the young children- and play-based curriculum based on the Revised Nuri Curriculum of 2019.

The study used the inventory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mong young children used by Yang Seo-yeong(2016) to measure young children'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developed in the study.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as measured with the inventory on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used by Lee Jong-hyang(2007).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22.0 Windows program. An independent-sample t-test was conducted with young children's mean pre- and post-test scores i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experiment and comparison group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test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on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found that the young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had higher communicative competence than the young children of the comparison group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former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listening attentively, courtesy, consideration, recognition, respect, and moderation under

communicative competence compared to the latt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the promotion of young children's communicative competence.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found that the young children of the experiment group had higher pro-social behavior than their counterparts in the comparison group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former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ability to regulate personal emotions and the ability to form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der pro-social behavior compared to the latt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gram has desirable effects on the promotion of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short,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developed in the study was effective for promoting young children'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 These findings are significant in that the program to promot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through integrated art activities proposes practical plans to enhance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부 록

부록 1. 요구도 조사 설문지

부록 2. 연구 동의서

부록 3.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

부록 4.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

부록 5. 활동안 사례

## 부록 1. 요구도 조사 설문지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을 위해 기관에서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선생님들이 평소 생각하시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유아교육현장에 계시는 만 3세~만 5세 유아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연구자 : 이윤희

지도교수 : 권정윤

■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1-5)

1.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기관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민간어린이집    | ② 국·공립어린이집 |
| ③ 법인·직장어린이집 | ④ 사립유치원    |
| ⑤ 국·공립유치원   |            |

2.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3년 이하  | ② 4~6년   |
| ③ 7~10년  | ④ 11~15년 |
| ⑤ 16년 이상 |          |

3.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25세 이하 | ② 26~30세 |
| ③ 31~35세 | ④ 36~40세 |
| ⑤ 41세 이상 |          |

4.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학점제 원격   | ② 평생교육원  |
| ③ 2~3년제 대졸 | ④ 4년제 대졸 |
| ⑤ 대학원 이상   |          |

5.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만 3세             | ② 만 4세             |
| ③ 만 5세             | ④ 유아 혼합(만 3세~만 4세) |
| ⑤ 유아 혼합(만 4세~만 5세) | ⑥ 유아 혼합(만 3세~만 5세) |



- ⑦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⑧ 유아의 공감능력이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 ⑨ 기타

11. 유아 공감교육에 적합한 교육 활동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까지 중복체크 가능)

- |           |        |
|-----------|--------|
| ① 이야기 나누기 | ② 동화   |
| ③ 동시      | ④ 동극   |
| ⑤ 음악      | ⑥ 미술   |
| ⑦ 게임      | ⑧ 요리   |
| ⑨ 수학      | ⑩ 과학   |
| ⑪ 신체      | ⑫ 바깥놀이 |
| ⑬ 현장학습    | ⑭ 가정연계 |
| ⑮ 지역사회연계  | ⑯ 토의   |
| ⑰ 기타      |        |

12. 유아 공감교육에 적합한 공감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까지 중복체크 가능)

- |         |           |
|---------|-----------|
| ① 가족    | ② 친구      |
| ③ 장애인   | ④ 동·식물    |
| ⑤ 다문화   | ⑥ 한 부모 가족 |
| ⑦ 조손 가족 | ⑧ 기타      |

13.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유아 공감교육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조금 제시되어 있다  |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
| ⑤ 잘 모르겠다        |               |

■ 다음은 선생님의 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 공감교육에 대한 교사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14-22)

14. 선생님께서는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수시로(상황에 따라) | ② 일주일에 1~2회  |
| ③ 한 달에 1~2회   | ④ 한 학기에 1~2회 |
| ⑤ 가끔(상황에 따라)  |              |

15. 유아 공감교육은 언제 실시하십니까?

- |              |               |
|--------------|---------------|
| ① 자유선택활동시간   | ② 대집단 시간      |
| ③ 이야기 나누기 시간 | ④ 수시로(상황에 따라) |
| ⑤ 기타         |               |

16. 유아 공감교육 활동은 어떤 그룹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                                |
|--------------------|--------------------------------|
| ① 개인별 운영(자유선택활동시간) | ② 소그룹으로 운영                     |
| ③ 대그룹으로 운영         | ④ 상황에 따라 운영<br>(대그룹, 소그룹, 개인별) |

17. 유아 공감교육의 적합한 공감교육 활동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3개까지 중복 체크 가능)

- ①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과정)에 따라 선정
- ②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하다가 관련 활동 선정
- ③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정
- ④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
- ⑤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선정
- ⑥ 상업화된 교구·교재에 따라 선정
- ⑦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선정
- ⑧ 생활주제에 따라 관련 활동으로 선정
- ⑨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영역을 중심으로 선정
- ⑩ 기타

18. 유아 공감교육을 계획할 때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 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공감교육 관련 내용 활용
- ② 상품화된 공감교육 프로그램
- ③ 공감교육 관련된 참고 서적
- ④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감교육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 ⑤ 기관에 구비된 공감교육 교재·교구
- ⑥ 장학자료(예: 교육부의 공감교육 자료집 활용)
- ⑦ 기타

19. 기관의 유아 공감교육을 위한 자료의 구비 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충분하지 않다
- ② 충분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20. 유아 공감교육의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유아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통해
- ②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
- ③ 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통해
- ④ 유아의 활동 결과물 분석
- ⑤ 유아 자기평가
- ⑥ 유아 면담
- ⑦ 평가하지 않는다
- ⑧ 기타

21. 유아 공감교육을 실시할 때 겪는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3개  
까지 중복체크 가능)

- ① 안내 지침서 및 체계적인 유아 공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② 공감교육에 대한 정보 및 재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③ 활동 내용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④ 다른 활동에 비해 현장에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⑤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유아 공감교육을 연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 ⑥ 효과적인 공감교육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⑦ 유아들의 발달 및 개인경험 차이의 어려움 때문에
- ⑧ 공감교육 활동 및 관련 놀이를 위한 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 ⑨ 다른 프로그램 진행 및 업무 과다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⑩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⑪ 기타

22. 유아 공감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3개까지 중복  
체크 가능)

①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자료 및 교재·교구

② 공감과 관련된 활동들에 관해 구체적이고 현장 적용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공감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연수 진행

④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감 관련 연수 진행

⑤ 유아 공감교육 가정연계를 위한 부모교육 진행

⑥ 유아들의 공감능력 평가 도구

⑦ 다른 업무들로 인한 유아 공감교육을 준비하는데 시간 부족

⑧ 기타



27.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어떤 그룹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별 운영(자유선택활동시간)
- ② 소그룹으로 운영
- ③ 대그룹으로 운영
- ④ 상황에 따라 운영  
(대그룹, 소그룹, 개인별)

28.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까지 중복체크 가능)

- ① 공감능력 향상
- ②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능력 발달
- ③ 자아존중감 향상
- ④ 따돌림 등의 사회적 폭력 예방
- ⑤ 상호존중과 배려심 향상
- ⑥ 갈등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향상
- ⑦ 기타

29.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3개까지 중복체크 가능)

- ① 공감능력 향상
- ② 자아존중감 향상
- ③ 사회적 기술 향상
- ④ 친사회적 행동 증가
- ⑤ 또래 상호작용 행동 증가
- ⑥ 자기조절력 향상
- ⑦ 정서지능 향상
- ⑧ 또래 유능성 향상
- ⑨ 감성지능 향상
- ⑩ 기타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연구 동의서

### 연구 동의서

#### 연구주제: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통합적 예술활동을 통한 유아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2024년 0월 0주부터 2024년 0월 0주까지 총19회를 1주에 2회씩 유아의 00시간에 실시한 후 담임교사의 관찰 및 연구자의 유아 면담을 통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자료들은 연구가 끝난 후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 논문에 기관명, 교사와 유아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결과에 제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 어린이집, 교사 등 실명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가 의사소통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 중 연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절차 및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동의서 사본은 부모님께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권정운

연구자: 이옥희

본인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연구 참여자(유아):

보호자:

(인)

### 부록 3.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

이름: \_\_\_\_\_ (남 / 여)      검사일자: \_\_\_\_\_

	문 항	척 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경 청	1.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2. 하던 일이 있더라도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듣는다.					
	3. 친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듣는다.					
	4. 친구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반응을 하면서 듣는다.					
	5.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예 의	6.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7. 친구에게 바르게 행동한다.					
	8. 친구의 특유한 행동이나 말을 따라 하는 등 놀리지 않는다.					
	9. 친구의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다.					
배 려	10. 친구의 말이나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11.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한다.					
	12. 친구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13. 친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 준다.					
	14. 친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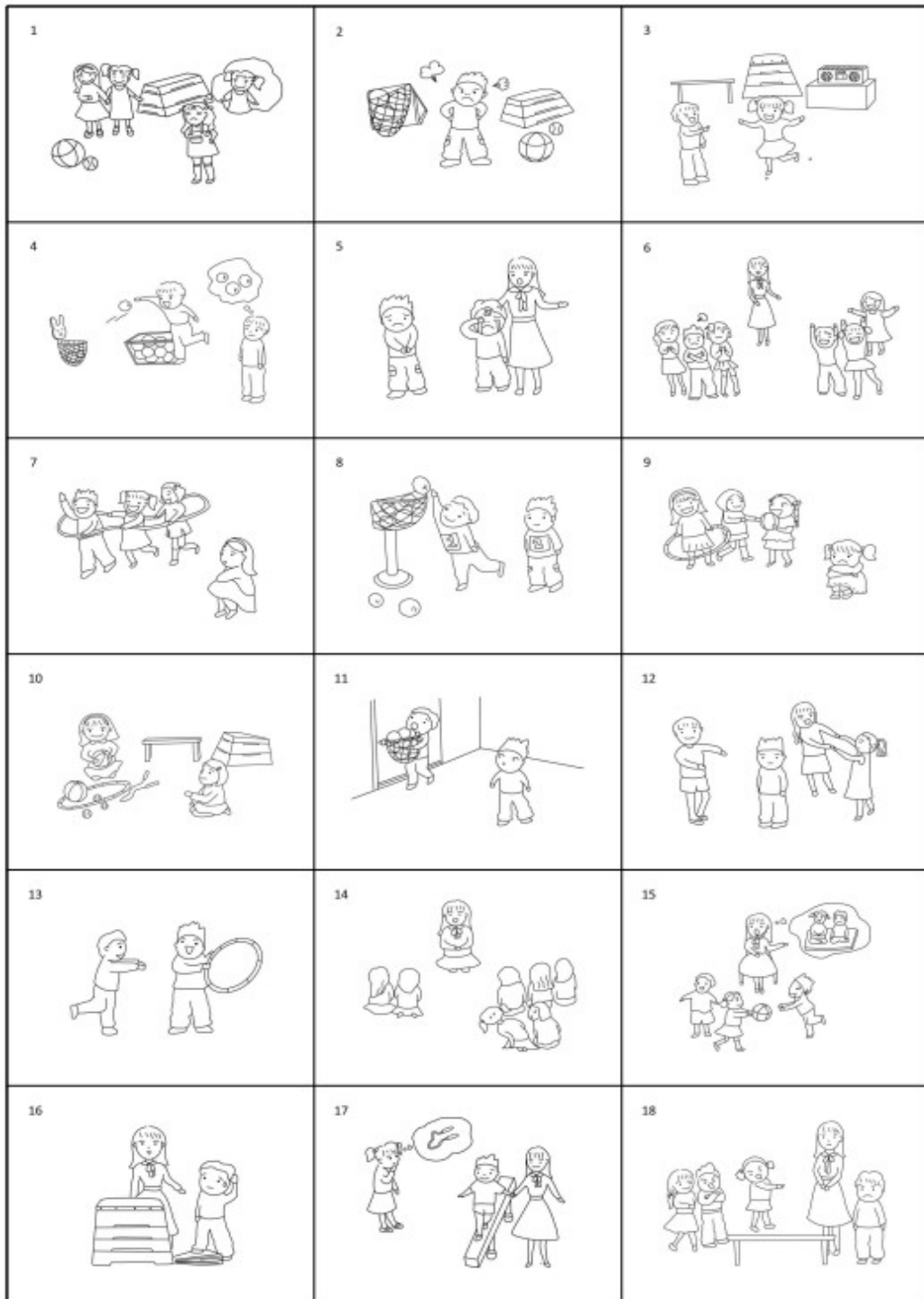
	문항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인정	15. 친구가 한 일에 관해 잘했다고 표현한다.					
	16. 친구가 전보다 더 잘했을 때, 어떻게 잘했는지 이야기 해 준다.					
	17. 친구가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상황에 적절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18.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					
	19. 친구가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존중	20.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21. 친구 놀리기, 약 올리기, 상소리하기를 하지 않는다.					
	22.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친구를 때리는 등 신체적인 가해는 하지 않는다.					
	23.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4. 친구와 자신의 다른 점을 알고 존중할 줄 안다.					
	25. 친구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절제	26.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27.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부적절한 화풀이(예: 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는 하지 않는다.					
	28. 기분이 상해도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					
	29.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말로 해결한다.					
	30. 학급의 규칙을 잘 알고 스스로 지킬 줄 안다.					

#### 부록 4.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

이름: \_\_\_\_\_ (남 / 여)      검사일자: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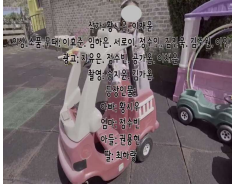

구분	문항	문항내용	유아반응
개인 정서  조절 능력	1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순희와 영희는 매우 친한 친구야. 준비체조를 하려 하는데 영희가 순희와 짝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랑 짝을 해서 기분이 나쁘대. 순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	<화가 무조건 날 때> 철수는 활동을 하는 중에 화가 나있어. 이럴 때 철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3	<친구가 놀릴 때> 영희는 나비를 표현하고 있는데 철수가 와서 돼지야! 하고 놀렸어. 이럴 때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4	<친구가 공평하지 못할 때> 글쎄 친구가 유치원에서 공동으로 쓰는 공을 혼자 다 쓰고 있어. 철수도 공을 쓰고 싶어. 그런데 친구는 “네 것으로 해” 하면서 안 주는 거야. 이거 공평한 거니? 어떻게 해야 할까?	
	5	<잘못된 행동 후 벌을 받을 때> 철수가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어. 선생님이 “네가 친구를 때렸니?” 물으셨어. 이때 뭐라고 해야 되겠니?	
	6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했는데 우리 팀이 졌어. 그래서 난 너무 속상했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구분	문항	문항내용	유아반응
대인관계 형성능력	7	<p>&lt;친구들 사이에 새로 참여하기&gt;  친구들이 즐겁게 줄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p>	
	8	<p>&lt;자기 차례를 기다리기&gt;  친구가 공을 넣을 차례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 동안에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p>	
	9	<p>&lt;친구의 슬픈 마음 위로하기&gt;  친구와 같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할까?</p>	
	10	<p>&lt;친구와 장난감 나눠 놀기&gt;  행동도구들이 다 순희 앞에만 있어.  그런데 친구도 도구를 가지고 놀고 싶어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둘 다 그 도구를 가지고 놀 수 있을까?</p>	
	11	<p>&lt;친구 도와주기&gt;  친구가 공을 많이 갖고 가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 할까?</p>	
	12	<p>&lt;친구활동 끌어들이기&gt;  철수와 수철이는 함께 몸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수철이가 아무 전략이 없었어. (방법이 없었어)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p>	



## 부록 5. 활동안 사례

활동명	(2회차~5회차) 엄마 혼자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활동유형	문학·음악·미술· 극놀이영상 제작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속 대상(엄마)의 상황과 마음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li> <li>•극놀이활동을 통해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li> <li>•극놀이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li> <li>•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li> </ul>		
공감교육내용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돼지책’, PPT 자료- ‘돼지책’,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만들기 도구, 만들기 재료,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하트모양 종이</li> <li>•표현 도구: 극놀이 소품(앞치마, 가방, 유아용 자동차, 의자, 여러 옷, 신문, 음식모형, 그릇, 수세미, 유아용 키친세트, 이불, 청소도구)</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CD플레이어, 음악CD,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휴대전화</li> </ul>		
활동단계	공감 요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 표지 및 제목을 유아들과 함께 살펴보며, 어떤 내용의 이야기 기일지 예상해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책 표지를 보여주며 제목과 작가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 속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li> <li>•교사는 ‘돼지책’ 그림책을 읽어준다.</li> </ul>	
	공감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내용을 회상하며 관련 경험이나 느낌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엄마(피곳 부인)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엄마(피곳 부인)의 감정 및 엄마(피곳 부인)를 바라보며 느끼는 나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엄마(피곳 부인)의 감정에 나의 감정을 이입한다.</li> <li>- 엄마(피곳 부인)도 아빠처럼 일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피곳 부인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이야기 나눈다.</li> <li>•엄마(피곳 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ul>	

<p>활동단계</p>	<p>공감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놀이활동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편집하여 극놀이영상 제작하기를 해본다.</li> <li>-등장인물 역할 정하기, 대본 작성하기, 효과음 만들기, 의상 준비 및 만들기, 소품 및 무대 배경 꾸미기, 광고 포스터 만들기, 촬영 및 편집하기</li> <li>★유아들과 논의하여 원하는 역할을 실행함.(예: 연기자팀, 작가팀, 음향팀, 소품팀, 광고팀, 촬영팀 등)</li> <li>•각 팀이 맡은 역할에 따라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완성된 극놀이영상은 유아들이 모두 모여 팝콘을 먹으며, 다 함께 감상한다.</li> <li>•감상을 마친 후, 엄마(피곳 부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 본다.</li> <li>•피곳 부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엄마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본다.</li> <li>•피곳 부인 또는 우리 엄마에 관해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를 한다.</li> <li>-편지쓰기 방법: 글로 표현하는 방식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여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p>공감적 감상·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된 공감 작품(극놀이영상)을 또래와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한다.</li> <li>•그림 및 언어로 표현한 공감하는 마음에 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li> <li>•또래의 결과물을 함께 감상하고 결과물에 대한 생각, 느낌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극놀이영상 제작활동 과정을 회상하며 활동 과정에 관해 평가해 본다.</li> <li>•극놀이영상 제작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나의 감정 또는 엄마(피곳 부인)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li> <li>•다음 시간에 함께 할 활동에 관해 간략히 안내하고 마무리한다.</li> </ul>

활동명	(24회차~26회차) 오늘은 바다 대청소의 날!	활동유형	문학·사진·신체·미술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림책 내용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li> <li>•그림책 속 대상(바다 생물)의 마음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li> <li>•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로 지어본다.</li> </ul>		
공감교육내용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소통적 공감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자료: 그림책- ‘플라스틱 섬’, PPT 자료- ‘플라스틱 섬’, 사진-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출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091&amp;cid=47309&amp;categoryId=47309">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091&amp;cid=47309&amp;categoryId=47309</a>), 뉴스- ‘해양생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실태 어떻길래’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WNRRNdEAAk">https://www.youtube.com/watch?v=AWNRRNdEAAk</a>), 그림- ‘감정그림(어휘) 카드’</li> <li>•실물 자료: 신호악기, 재활용품(음료수 캔, 우유갑, 종이컵, 과자상자, 휴지심, 과자봉지, 요구르트 병, 생수통, 플라스틱 컵, 등), 분리수거함,</li> <li>•모형 자료: 동물 모형(바다 동물)</li> <li>•표현 자료: 쓰기·그리기 도구, 무지 스크랩북(병풍), 다양한 형식의 B5 종이 (그림, 그림+글자, 글자)</li> <li>•표현 도구: 신체표현 소품.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li> <li>•소리 및 영상기기: 컴퓨터, CD플레이어, 음악CD</li> <li>•기타: 점수판</li> </ul>		
활동단계	공감 요소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 자료-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사진을 보여주며 바다거북의 모습을 살펴보고, 바다거북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사진을 보여주며 제목과 작가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사진 속 주인공의 표정과 행동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사진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 면지, 제목을 유아들과 함께 살펴보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예상해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책 표지를 보여주며 제목과 작가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 속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책 표지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li> <li>•교사는 ‘플라스틱 섬’ 그림책을 읽어준다.</li> <li>•뉴스 자료의 첫 화면을 살펴보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추측하며 이야기를 나눈다.</li> <li>-뉴스 자료의 첫 화면을 보며 등장인물의 표정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눈다.</li> <li>•뉴스 자료- ‘해양생물 위협하는 바다 쓰레기 실태’ 를 함께 시청한다.</li> </ul>	

<p>활동단계</p>	<p>공감 상황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및 그림책, 뉴스 내용을 회상하며 관련 경험이나 느낌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 바다생물들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 바다생물들의 감정 및 바다생물들을 생각하며 느끼는 나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li>• 바다생물들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나의 감정을 이입한다.</li> <li>- 온갖 쓰레기와 바다생물들에게는 위험한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생물이 나라면 어떤 마음일지 이야기 나눈다.</li> <li>• 바다생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li> </ul>
<p>활동단계</p>	<p>공감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환경오염 및 여러 위험 요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생물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바다생물들이 삶의 터전에서의 생활이 어려움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li> <li>• 바다생물들이 좀 더 깨끗한 바다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여 분류하는 활동을 한다.</li> <li>• 바다생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협동작품으로 병풍책을 만들어 볼 것임을 안내한다.</li> <li>• 바다생물들을 공감하는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그림으로만 표현, 그림과 글쓰기로 표현, 글쓰기로만 표현) 표현할 것인지 유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형태로 준비하여 제시한다.</li> <li>• 유아들이 표현한 결과물을 자신이 직접 병풍책에 붙인다.</li> <li>• 병풍책의 면지에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지 함께 의논한 후, 원하는 유아들의 경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 완성된 병풍책의 제목을 함께 지어본다.</li> <li>• 병풍책을 다 함께 감상한다.</li> </ul> <div data-bbox="571 1352 1305 1765"> </div>

<p>활동단계</p>	<p>공감적 감상·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된 공감 작품(병풍책)을 또래와 함께 감상하는 경험을 한다.</li> <li>• 다양한 쓰레기들(비닐)이 신체 부위(발)에 걸린 것을 표현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말로 표현해 본다,</li> <li>• 또래와 함께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해 본 자신의 느낌,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li> <li>• 환경오염 및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바다에서 바다생물들을 몸으로 표현해 본 활동을 회상하며 활동 과정에 관해 평가해 본다.</li> <li>• 오늘의 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나의 감정 또는 바다생물들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li> <li>• 작품(병풍책) 전시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적절하게 전시해 본다.</li> <li>• 전시된 작품을 지속적으로 감상하며 내면화한다.</li> <li>•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활동이었음을 안내하며 마무리한다.</li> </ul>
-------------	---------------------------	---